

於斯夏

第四號



横城文化院

於斯夏

第四號

横城文化院

형성군의 노래

(상권영)
방직현 작사
노명석 작곡



때기 - 산 편은 줄 기 역교 - 의 정 기 모 아
운암 - 정 청 ~~한~~ 아 대 침성 - 교 잇 거 잇 교
포봉 - 의 심 장 부 르 사 방 편은 동 맥 의 길

↓
강



앞 돌 - 의 넓 은 옥 르 부 강 을 자 랑 하 고
대 풍 - 부 반 송 되 는 옛 일 을 아 외 는 곳
경 람 으 로 사 용 으 달 거 리 가 출 비 하 고

↓
가



동 서 로 - 구 비 친 강 구 출 회 - 호 르 산 곳
나 다 강 송 넓 은 숲 의 풍 의 정 신 가 두 람 곳
전 통 의 - 산 업 정 신 부 종 을 - 회 학 산 곳



아름다 운 이 - 강 산 에 빛 나 는 우 리 형 성



제 5 회 태풍문화제에 출전한 마을농악대 경연이 끝나고
주민과 학생까지 참석하여 한마당 놀이를 하였다.



경로효친사상선양 강연회가 8 개읍면을 순회 실시되었다.



제 2 회 내고장 문화논단에서 강원대학교 최상의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제 5 회 학생 사생대회에 참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학생들 - 장소 : 3. 1 공원 -

目 次

◆	군민현장	
◆	화 보	
◆	목 차	
◆	권 두 언	／ 한중희 7
◆	애향논단	○ 농촌의 앞날 / 김정기 8
		○ 어사매 그 뜻과 음은? / 유장희 11
		○ 횡성지명고 / 김준기 12
		○ 고향의 뿌리의식 / 차배근 17
◆	어사매논단	○ 건강한 성격이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 / 안범희 21
		○ 유학사상에 관한 소고 / 김기원 25
◆	초 대 석	○ 향토문화 의 역할과 기대 / 조원혁 28
		○ 87 학년도 횡성교육의 방향 / 조진행 30
		○ 87 학년도 학교 설계 / 김광수 31
		○ 87 년도 학교운영방향 / 신동하 33
		○ 87 학년도 본교 장학방향 / 한태수 36
◆	어사매 칼럼	○ 애향동참 의식으로 몽친 재춘천 횡성군민 회원들 / 조상현 38
◆	향토순례	○ 이인거의 난 / 김기원 42
◆	수 상	○ 내 고향 태오지 / 임교순 44
		○ 어느 여인이 일깨우는 향수 / 이진우 47
		○ 토끼해에 코끼리를 생각하며 / 유수륜 49
		○ 애정교육 / 송수영 51
		○ 지렁이속에 뉘시를 생각하자 / 권용환 52
		○ 가을 / 최인숙 56
◆	시	○ 설날을 기다리는 아이 외 1 / 이연승 59
		○ 가야금 산조 외 1 / 김성수 61
		○ 구름 꽃 외 1 / 광영기 63
		○ 그믐달 외 1 / 김기원 65
		○ 청솔가지 외 1 / 김성기 68

◆ 만 화	／이병현	71
◆ 꿈 트	○떠나는 여름／김양수	72
◆ 학원문학		
	○태극기／김현주	74
	○몽계구름／임영선	75
국민학교	○국어사랑 나라사랑／장은자	76
	○어머니／정연순	77
	○고향의 봄／최미정	79
중 학교	○금수강산／최은경	80
	○우리땅 우리고향 어사매의 얼이여／권금옥	81
	○조국／김영주	83
고등학교	○민족의 염원／허숙이	86
	○우리의 태도／박희자	87
◆ 단편소설		
	○살 가르기／정재영	89
◆ 특집 : 황성의 재발견 3		
	○이 영원한 삶의 터전을 위하여／김승기	111
◆ 86년도 주요 사업실적		120
◆ 87년도 주요 사업계획		122
◆ 황성문화원 임원 및 회원명부		124
◆ 편집후기		

표지말 :

우리들을 즐겁게 하는 새싹들의 자람, 황성의 들판을 힘껏 달리도록
 힘 모아 주자 내일의 번영을 다함께 누릴 수 있게...

文化院을 郷土文化의 原動力으로



文化院長 韓 重 熙

於斯買 第四號를 一年 以前에 發刊할 計劃이었으나, 여러가지 事情으로 늦어지게 된 것을 悚懼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第四號에서는 그동안 論議가 많았던 「於斯買」의 참뜻을 밝히고 이 고장을 더욱 發展시켜 나가기 爲한 各 機關의 소리를 重點으로 담은 한편, 郷土의 歷史를 再照明해 보는데 焦點을 맞추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땅을 사랑했던 우리 先祖들의 깊은 뜻을 우리는 地名 變遷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2000年代를 向한 우리 郡民의 意志를 各 機關을 통하여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고장을 文化의 落後地域으로 諦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생각은 不息되어야 합니다. 文化院은 展示會와 發表會도 자주 열고, 文藝誌도 發刊하는 등 마음대로 쓰고 말하고 發表할 수 있는 그런 機會를 마련하려 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의 共感帶가 形成되고 郷土 發展의 原動力이 샘솟기를 바라는 마음 懇切합니다.

本誌도 그 하나의 몫을 할 수 있으리라고 期待하며 더 많은 聲援있으시기 바랍니다.





農村의 앞날

橫城文化院 副院長 金鼎基

글머리 (序 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시대가 발달해가고 있어 머리가 뱅글 뱅글 돌 정도입니다. “앨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이란 冊에서 2차산업에서 3차산업체로의 進 入나팔이 울렸다고 말했습니다.

“갈 브레이드”는 不確實性的 時代에 접어 들었음도 지적했습니다.

83年度에서 數年間을 淸은 李某가수가 디스코춤을 추면서 하늘을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아리송해 아리송해 그대가 나를 좋아한다는 그 말이 아리송해” 하면서 流行歌를 불렀습니다.

아울러 올해 (87年)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EC”와 “코메콘”이 單一 歐羅巴 共榮圈 형성을 위한 會議을 開催하기에 이른 時代가 到來했습니다.

이렇게 불대 理念 思想 經濟 社會 文化等 나아가 政治에 이르기까지 科연 體 系化가 무너지고 뚜렷하지 않은 時代에 오직 荒蕪地 (다듬어지지 않고 거친 들판) 로 팽개쳐진 곳이 내가 살고 있는 農村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時代 이런 環境에서 科연 農村의 앞날을 생각해 봄이 無價値하지 않게 여겨져 이 글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본 말 (本 論)

첫째~現實

요즘 “農村이 病 들었다.” “農村이 이래서는 안되는데”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할 程度로 深刻한 現實이다. 卽 繼續되는 離農 쌓이기만 하는 負債 그 동안의 소값이나 고추값 高冷地 소채값 波動 그리고 農藥公害等으로 農村은 속병을 앓고 있다. 첫째로 農村 倫理 道德의 破壞를 들수 있다. 봄 가을이면 野遊會다 觀光旅行이다 해서 돈을 낭비하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 勿論 現 農村의 負債가 그래서 생긴것은 아니다.

肥料값 飼料값 子女의 學費로 因해 생긴 빚이지만 여기에 더욱 부채질을 하는 企業하는 製造業者들이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그밖에도 냉장고 칼라TV等 各種 電子機器들은 “다음에 내시오” 하고 꼬여서 購買心理를 자극하여 健全 生活精神을 타락시켜서 생긴 빚이다. 더욱 4年마다 한번씩 選舉를 치루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風土를 勸獎하는 惡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實情.

둘째로 農村現實의 피폐다. 소값의 파동으로 農村後繼者가 自殺을 하는가 하면 86年度 가을에는 모든 밭에서 배추와 무우가 방치된채 썩는 境遇까지 發生 經濟的으로 피폐한 實情이다.

셋째로는 教育의 不足과 環境施設의 不足을 들수 있다. 教育을 받은 頭腦 勞動은 모두 都市로 進出해 나가고 農村에는 老人層 만이 남아서 教育도 못받았을뿐 아니라 싱싱한 勞動力도 없다. 거기에다 大學은 모두 都市에 高等學校도 一流는 모두 都市에 集結 돼있고 文化 體育施設마저도 世界에서 몇째 東洋에서 第1 하는 50萬坪도 넘는 훌륭한 施設環境을 만들고 農村은 정말 거처를 들관 다듬어지지 못한 荒蕪地로 버려진 것이다. 앞날을 살펴본다.

① 農工地區와 人力수용~多幸히 政府에서는 86年度부터 都農間의 收入隔差를 줄이기 위해 農工地區를 設定 7個를 選定했고 그중에 橫城도 한개 끼어들었다. 70年代에 日本 田中角榮首相이 日本列島 改造論을 폈던것과 같은 論理인것 같다. 1ha未滿의 農家가 60%를 차지하며 24%의 現 農村人口를 그대로 두고서는 위의 現實을 解決하기 至難할진대 農村에 工場을 유치하고 農村의 高校卒業 水準의 男女 人力을 수용해서 農外 所得을 올리는 政策은 우선 好評받아 마땅한 것으로 여긴다. 農村의 딸 한사람이 工場에서 年間 200萬원을 벌수있는 工場 勤勞者가 되면 負債상환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農繁期에 農事를 돕고 農閑期인

年間 10個月間을 工場에 勤務한다면 錦上添花이다. 그러려면 農村의 마을길이 모두 포장돼야 되고 또 工場의 出勤버스가 出退勤을 시켜야 俸給을 모두 所得으로 連結시킬수 있으리라고 確信한다. 또한 農耕地를 모두 整理해서 機械化시켜 農村人口를 現在의 切半으로 줄인다면 只今보다는 살기좋은 農村으로 탈바꿈 하리라 믿는다. 또한 大學을 마친 農村의 子女들이 都市에 進出한 後 高級人力 俸給者가 된다면 故鄉인 父母와 兄弟를 기억해서 生活費를 節約해서 故鄉 送金을 벌여야 한다. 이는 日本 農村에서 키워놓은 子女들이 都市에서 부쳐지는 送金額이 적지 않은 例로도 본받을 點이다.

② 地方自治制 實施와 農村發展 ~ 地方自治制란 地方發展時代의 예고이다. 先進 各國에서는 地方에서 生産되는 産物을 附加價値를 높여서 所得을 늘리는 地方時代가 이룩돼 있다. 多幸히 올해나 來年부터 地方自治制를 實施한다고 하니 우리 橫城에서도 우리 故場 特産物을 살피고 여기 附加價値를 높이는 研究가 進行되어야겠고 條例를 뒷 받침해 줘서 所得向上에 힘써야 되겠다.

맺 음 말 (結 論)

農村에서 자라나는 靑少年들이 혹심한 受驗戰爭에서 이긴후 大學에 進出해서 友情과 連帶를 體驗할때 어느날 集團行動에서 데모에 加擔하는 不確實한 마음의 갈등을 防止해주고 잃었던 倫理와 道德을 되찾으며 勤儉하고 節約하는 風土를 造成할때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 퇴폐에서 벗어나며 7000 \$ 내지 8000\$의 2005年 時代에 對備 부지런한 農村 健全한 風吐 높은 所得의 福祉農村을 이룩하는 一員이 되었으면…….





於斯買 그 뜻과 음은 ?

柳 章 熙

필자는 1983년 횡성문화원지를 처음 발간하게 되었을 때 그 책명을 「於斯買」로 하자고 제의하였다. 대개 그 지방의 유명한 山이나 江의 이름을 따는 것이 보통이나, 문헌에 내려오는 우리 橫城의 가장 오랜 옛 이름이 「於斯買」인데 그 이름이 특이하고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책이 보급되면서 「於斯買」를 「어사매」로 읽어야 하느냐 「오사매」로 읽어야 하느냐가 문제가 되더니 그 뜻이 과연 무엇일까하는 의문들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부탁도 하고 의견도 들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의문을 집약 할 수 있었다.

우선 어떻게 읽어야 옳은가 하는 문제이다.

「於斯買」의 「於」字가 ‘땅이름 오’로 쓰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오사매」로 읽어야 옳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견해는 한문학을 전공하는 분들의 주장으로 「泰岐文化報」 제3호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문학을 전공한 분들은 「於斯買」는 당시의 순수한 우리말 지명인 「엇」을 한문식(漢文式)이 아니라 이두식(吏頭式)으로 적은 것이며 따라서 한문식으로 읽을 때는 「어사매」로 읽고 순수한 우리말로 읽으려면 「엇매」로 읽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자세한 내용은 金潛基氏의 橫城 地名放 參照)

「於斯買」의 뜻에 관해서도 그 이견이 있다.

어떤 분은 橫城은 四通五達의 교통의 요지였고, 安興에 역관(驛館)이 있었으므로 상업이 성하여 「買」(살매)字가 쓰여진 것이니 「상업이 발달한 곳」의 뜻이 있고, 횡성 각쟁이란 말도 그래서 나왔을 것이라는 해석이었다.

그러나 김준기씨의 주장은 於斯買(엇매)는 고구려때의 순수한 우리말로 그 뜻은 橫川(강이 가로 흐르는 곳)과 똑 같다고 한다.

필자도 金氏의 주장이 문헌을 통한 고증이므로 於斯買는 한자식으로 읽을 때는 「어사매」로, 순수한 우리말로 읽을 때는 「엇매」로 읽어야 하며 그 뜻은 「橫川」이 옳다고 생각한다.

혹여 보다 타당성 있는 이견(異見)이 있으신 분은 본 문화원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에 게재한 횡성 지명고를 읽으시고 우리 고장의 옛 지명을 확실히 알아주시기 바란다.

횡성 문화원 이사
 횡성 여자고등학교 근무



橫城地名攷

於斯買와 潢川에 對하여

金 濬 基

— 머리말

橫城郡誌(86.6.20. 橫城郡發行)를 보면 橫城 고을은 高句麗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번 이름이 바뀌었는데, 三國時代에는 高句麗에 속하여 當時의 고을 이름은 ‘於斯買’와 ‘潢川’ 두 가지로 불렀고, 統一新羅 以後에는 ‘潢川’이라고 했으며, 高麗 때에는 다시 ‘橫川’이라고 하다가 朝鮮 太宗 14년에 와서 비로소 現在의 이름인 ‘橫城’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記錄되어 있다. 그리고 潢川이라는 이름은 이 고장의 江물이 北에서 南으로 縱流하지 아니하고 東西

◇ 애항논단

로 橫流하기 때문에 그 같은 이름이 생겼으며, 橫川을 現在의 이름인 橫城으로 바꾸게 된 動機는 이웃 고을인 洪川과 發音이 비슷하여 混同하기 쉬우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그렇게 바꾸었다고 한다.

그러면, ‘於斯買’와 ‘潢川’은 무슨 뜻이며, 이들과 ‘橫川’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二. 於斯買에 對하여

漢字가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는 確實히 알 수 없으나 대개 三國時代以前으로 보고 있으며, 漢字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以前에는 人名이나 地名은 지금처럼 漢字式이 아니라, 순수한 우리말 그대로 불렀고, 漢字가 들어온 以後에도 처음에는 여전히 순수한 우리말 그대로 불렀지만, 다만 이것을 表記할 때만 오늘날과 같은 表音文字인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漢字의 音과 訓을 빌어서 그것을 表記했던 것이다. 이제 한두 例만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누리닛금 → 儒理尼師今(新羅 第三王)

사느리 → 沙熱伊(淸風縣의 옛이름)

이 같은 表記方法을 吏讀(吏頭)라고 하는데 ‘於斯買’는 곧 吏頭式 表記法에 依하여 그 當時의 순수한 우리말 地名을 그대로 적은 것이다. 그러면 於斯買는 어떻게 읽었던 것이며, 무슨 뜻이었을까?

結論부터 말하면 ‘於斯買’는 ‘엇미’로 읽어야 하고, 그 뜻은 ‘가로 비끼어 흐르는 내(川)’ 곧 ‘橫川’의 뜻이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說明해 보면 於斯買는 ‘於斯’와 ‘買’가 습친 말로서 於斯(엇)은 가로(橫)의 뜻이요, ‘買(미)’는 내(川)의 뜻이다. 모두 漢字에서 그 글자의 뜻은 버리고 音만 借用했는데, ‘於’자와 ‘買’자에서는 그 音을 온전히 그대로 取하고, ‘斯’자에서는 그 글자의 音이 ‘사’이지만 ‘卜’는 버리고 ‘스’만 借用하였다. (이른바 略音借). 이것을 좀더 알기 쉽게 圖式化해보면 다음과 같다.

於(어)斯(스) + 買(미) = 於斯買(엇미)

橫 川 橫 川

그러면 ‘엇’을 ‘橫’의 뜻으로 잡은 根據는 무엇인가? 高麗 때나 朝鮮時代에는 ‘엇’은 주로 ‘母’ 또는 ‘父母’의 뜻으로 쓰였다. 그러나, ‘엇’이 ‘橫’의 뜻으로 쓰인 例도 찾아 볼 수 있으니, 龍飛御天歌(世宗 27年(1445)에 지은 朝鮮創業을 頌祝한 노래로서 總 125章으로 構成되었는데 各章마다 우리말 노래 다음에 漢譯詩가 붙어 있다.) 第四十四章에는

거퇴 엇 시니(말 곁에 가로막으시니)

野外橫防(漢譯詩)

라는 句節이 있으니 여기서 ‘엇’은 곧 橫의 뜻임을 알 수 있다. 또 國語國文學會에서 펴 낸 ‘새국어대사전’(진영출판사, 1974)’을 보면 現代國語에서도

- ‘엇나가다’(장작 따위가 비뚜름하게 쪼개지다)
- ‘엇뜨다’(노동자가 한쪽으로 몰아 박혀 빗보다)
- ‘엇가게’(지붕을 한쪽으로 기울게 하여 덮은 헛가게)

등이 있는데 이런 낱말들 앞에 온 接頭辭 ‘엇’에는 분명히 橫의 뜻이 엇보인다.

다음으로 ‘買’字는 ‘미’의 借音表記인데 現在の 漢字音은 ‘매’이지만 奎章全韻(正祖 8年, 1784年 刊行)을 보면 ‘買’의 古音은 미이다. 朝鮮時代의 文獻에서는 주로 ‘野’의 뜻으로 쓰였으나 三國史記 卷三十四~卷三十七 地理志에서 散見되는 高句麗의 地名을 보면 買(미)는 모두 ‘川’ 또는 ‘水’의 뜻으로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 南川縣 一云 南買
- 述川縣 一云 省知買
- 橫川縣 一云 於斯買
- 水谷城縣 一云 買且忽

◇ 애항논단

固有語의 地名을 漢字語로 바꿀 때에는 대개 원뜻을 그대로 따르거나 원뜻과 관련이 있게 지었는데, ‘於斯(엇)’을 ‘母’나 ‘父母’의 뜻으로 풀이하거나 ‘買(미)’를 ‘野’의 뜻으로 풀이하면 橫川이라는 뜻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따라서 ‘엇미(於斯買)’는 漢字語가 들어오기 전부터 부르던 순수한 우리말 地名이요, ‘橫川’은 漢字가 들어온 以後에 원뜻을 그대로 따서 漢字語式으로 고친 이름이다. 마치 ‘선들’이나 ‘다리목’은 순수한 우리말 地名이요, 立石里나 橋項里는 원뜻을 그대로 좇아서 지은 漢字語式 地名인 것과 같다. 다만 ‘엇미(於斯買)’는 너무도 오랜 옛말이요, 그것도 現代國語의 根幹이 되고 있는 南方系인 新羅語가 아니요, 北方系인 高句麗語인데다가 表記마저 吏讀(吏頭)式 表記이니 理解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三. 潢川에 對하여

郡誌에서는 統一新羅時代에 와서 橫川은 潢川으로 바뀌어졌다고 하였다.(1970年, 震檀學會에서 발행한 韓國史古代篇 附錄 ‘新羅統一時代 州郡縣表’에는 統一以後인 景德王 때에도 여전히 橫川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그것의 正誤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기로 한다.) 그러면 潢川은 무슨 뜻이며, 어떻게 해서 생긴 이름일까?

우선 ‘潢’字를 辭典(省文社, 大漢韓辭典)에서 찾아보면, 音은 ‘황’이요, 訓은 ‘웅덩이’, ‘길바닥물’, ‘물층층할’, ‘은하수’, ‘별이름’ 등 여러가지로 나와 있으나 이 글자 밑에 ‘川’字를 붙여서 ‘潢川’이라는 合成語가 되었을 때에는 ‘銀河水’란 뜻이 되어야 하지 만 뜻이 되기는 어렵다. 또 銀河水란 뜻이 되어야 橫川이라는 이름과도 관련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橫川이라는 이름은 이 고장의 강물이 北에서 南으로 흐르지 않고 東에서 西로 가로 비껴 흐르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고 郡誌에 설명되어 있는데, 潢川이라는 이름 역시 이 고장의 강물에서 由來했을 것이라고 筆者는 생각한다. 東쪽에서 發源하여 花城을 지나 西南쪽으로 구비쳐 흘러 蟾江을 이루는 이 고장의 강물은 마치 하늘의 銀河水를 聯想케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이름이 생긴 것이 아닐까? 이 고장의 地圖를 한번 펼쳐 본다면 금방 首肯이 갈 것이다. 於斯買(엇미)

은 橫川이든 潢川이든 모두 물에서 온 말이니, 그 由來와 發想이 모두 同一하다. 狩獵生活로부터 農耕生活로 옮겨 갈 때 그들은 높은 산에서 내(川)를 따라 벌로 내려 왔고, 벌로 나와 농사를 짓고 살게 되면서부터 물은 그들의 生活에 있어서 絶對的인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地名에는 물과 관계있는 이름이 많다. 春川, 洪川, 華川 등은 모두 그 좋은 예이다.

엇미(於斯買)나 橫川이라는 이름은 寫實的인 反面에 潢川이라는 이름은 매우 아름답고 浪漫的이다. 前者가 高句麗人의 北方的 現實主義的인 思考의 影響이라면 後者는 新羅人의 南方的 理想主義的인 氣質의 反映이라고 해도 좋을지 모르겠다.

四. 맺 음 말

맺음말로써 다시 한번 要約하면 於斯買는 ‘엇미’라는 순수한 우리의 옛말을 吏讀(吏頭)式으로 表記한 것으로서, 그 뜻은 橫川과 같고, 潢川이라는 이름은 이 고장의 江물의 흐름이 마치 銀河水와 같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라는 것이 이 글의 要旨이다. 그러나, 이중 於斯買에 대해서는 이미 故 梁柱東博士의 名著 ‘古歌研究(博文出版社, 1954)’와 李昇熙博士의 ‘國語學概論(民衆書館, 1972)’ 속에 비록 斷片的인기는 하나 言及되어 있다. 筆者는 다만 여기에다가 筆者 나름의 思考를 多少 添加補足하고 이를 알기 쉽게 說明했을 뿐이다. 한 가지 아쉬운 바는 筆者의 無知의 탓인지는 모르나 ‘엇’이 ‘橫’의 뜻으로 쓰인 것이나 ‘미’가 ‘川’의 뜻으로 쓰인 例가 龍飛御天歌나 三國史記 地理志 이외에는 별로 보이지 않는 점이다. 이러한 理由는 新羅의 三國統一은 國土의 統一만이 아니라 國語의 統一도 가져 왔는데, 그 결과 新羅語가 國語의 根幹이 되어 오늘날까지 내려왔고, 高句麗語는 약간의 殘影만을 남기고 사라져 버린 것도 그 原因의 한 가지가 아닐까?

郷土文化에 대한 各별한 愛着을 가지신 분들의 좀더 알찬 考究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맺는다.



(橫城女高 教師)

고향의 뿌리 의식

차 배 근 (서울대학교수·신문학)

『강원도 횡성군 횡성면 읍상리 295 번지』

자랑스럽게, 본적을 일사천리로 줄줄 외어대는 내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뿌듯해지곤 한다.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본적을 모를리는 없건만은 그들이 본적을 거침없이 외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대견해 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호적등본이나 초본이 필요해서 그것을 떼려고 아내에게 꼬박 하루동안의 심부름을 시킬 때는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호적을 서울로 옮겨 놓지 않은 것을 후회한 적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분가(차남이기 때문에)를 할 때, 호적을 서울로 옮기라는 주위의 권유들을 뿌리치고 그냥 고향에 호적을 놓아 둔 것은 정말로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나이를 들면서 더욱 굳어지고 있다. 호적을 통해서나마 아이들의 마음속에 고향의 뿌리를 심어 준 것은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다. 그들이 「강원도 횡성 사람」으로 자랑스럽게 자처하고 나서는 것을 볼 때에는 가족의식(家族意識) 이외에 야릇한 동향의식(同鄉意識)까지도 느끼게 된다.

도대체 고향이란 무엇일까? 그것이 최소한 나에게 있어서는 무엇이길래, 서울에서 낳은 나의 아이들까지도 내 고향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렇게도 대견해 하고 있는 것일까?

아이들의 고향까지도 횡성으로 만들어 놓고 좋아하고 있는 터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가 고향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또한 자주 생각해 되는 것은 애향심보다는 아무래도 나 자신의 이기심 때문인 것 같다. 왜냐하면, 고향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는 생각은 없이, 고향을 이용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출세나 영화를 위해서 고향이나 고향 사람들을 팔고 다닌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지연(地緣)을 빙자한 파벌의식을 싫어하고 있다. 특히 객지에 나와서 고향 사람을 만나면 더 없이 반갑지만, 동

향의식을 악용해서 고향 사람을 이용할 생각도 없으며 또한 나의 직업상 그럴 필요도 없다.

맹자(孟子)의 「성선설」(性善說)을 그대로 맹신하고는 있지 않으나, 인간의 본성 중에는 순수해 보고자 하는 착한 마음의 구석도 없지 않다는 말에는 동감이다. 물욕(物慾)이나 출세욕, 명예욕 등에 가리워서 항상 순수하게는 살고 있지 못하지만, 때로는 순수함 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잠시나마 갖게 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본성이라고 믿는다.

물욕이나 출세욕 때문에 그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나의 경우도 객지에 나와서 세파에 시달려 오다가 보니까, 정신적으로 각박하게 살 수 밖에 없었다. 그러한 중에서도 불현듯 순수함 속으로 되돌아 가고 싶은 충동을 때때로 잠시나마 느끼게 되었으며, 바로 그러한 때마다 맨먼저 떠오르는 것이 고향이었고 또한 그 속에서 티 없이 뛰어 놀던 어린시절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있어서의 고향이란 단순히 지역적으로 「내가 나서 자란 곳」이 아니라, 내 마음 속의 순수성이 꿈틀 거리는 심령의 피안(彼岸)이다. 고향을 생각하면, 일그러져 가는 내 마음의 순수성을 잠시나마 되찾아 볼 수 있었으며, 그 순간적인 순수한 마음 속에서 긍정적인 삶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이유를 굳이 캐어 본다면, 50년에 가까운 내 생애 중에서 가장 순수한 삶의 세월을 보냈던 곳이 바로 내 고향 황성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서려 있는 곳도 내가 어린시절을 보낸 내 고향 황성이기 때문이리라. 누구에게나 어린시절의 추억이 아름다운 것은 마음이 단순했으며 또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불행했던 일들은 빨리 잊어 버리는 동시에 아름다웠던 과거만을 기억하려는 인간의 심리적 성향 때문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 이유야 어쨌든간에, 아름다웠고 즐거웠던 어린시절의 추억의 화신(化身)으로서의 고향은 역시 아름다운 것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고향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당위적인 단순한 애향심 때문은 아니라는 점을 앞에서 고백했거니와, 또한 나는 의도적(?)으로 고향을 자주 찾지 않으려는 묘한 심리적 성향도 가지고 있다. 고향분들에게 섭섭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나에게서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고향에 자주 가고 싶지 않은 이율배반적 심리가 있다. 그것은 순전히 나의 이기심에 연유된 것이라고 하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내가 지금의 변모된 고향을 자주 찾음으로서 그것이 그간에 내가 비밀스럽게 고히 마음속에 간직해 오면서 나 혼자 즐겨 왔던 어린시절의 내 고향의 소중한 상(像)과 그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혹시 허물어 버리

◇ 애향논단

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나는 아직도 횡성읍내 구리고개를 넘어서 뒷내개울 한 복판의 물 위에 떠 있는 장수바위가— 내가 어렸을 때 발가 벗고 「미역」을 감으면서 자라새끼들을 잡고 신기해 마지 않았던 장수 발자국이 있는 그 장수바위가 저 부여의 낙화암 만큼 큰 바위이기를 마음 속으로 희망하고 있다. 또한 내가 「창꽃」(진달래)을 꺾으러 갔다가 굴러서 떨어졌던 공근면 학담 앞의 벽각산이 저 설악산만큼이나 가파르고 웅장한 산이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횡성읍내 군청 옆의 태봉로는 아직도 내 마음 속에서만은 우뚝 서 있으며, 옛날 우천면소사무소가 있던 곳 옆의 종대산에는 지금도 할미꽃이 여기저기서 쪽도리를 쓰고 나를 반겨야만 한다고 믿고 있다.

내가 근래에 횡성읍내를 들려도 군청 뒤의 공원에 올라가지 않는 것은 내가 그토록 마음 속에 고히 간직하면서 그리워했던 고향의 모습들을 허물어뜨리지 않고 싶기 때문이다. 그 공원에는 태봉로가 더 이상 우뚝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고향에는 그 누구도 두번 다시 갈 수 없노라』고 서양의 어느 시인이 일찌기 갈파한 바와 같이, 내 고향 횡성은 내 어린시절의 그대로의 고향은 더 이상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 어린시절의 추억이 소중한듯이, 내 고향은 소중한 것이며, 만년의 연인으로서 나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고향을 생각할 때면 잠시나마 동심(童心)으로 되돌아 갈 수 있으며, 거기에서 인간으로서의 순수성도 되찾아 볼 수 있다.

고향은 나에게 순수한 마음을 가져다주기에,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종교이기도 하다. 아니, 「메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내 자식들에게도 그곳을 그들의 성지(聖地)로 삼게 하면서 좋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의 숲속에서 태어나서, 좁다란 골목길에서 온갖 차량과 행인들에 부딪기면서 애처롭게 놀고 있는 내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새삼 실향민으로서의 비애를 느끼게 된다. 그들이 성장했을 때, 가지게 될 어린시절의 추억은 과연 어떤 모습들일까? 이제부터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에를 자주 찾아가야만 하겠다. 비록 그들이 태어나서 성장한 곳은 아니겠지만, 내 고향 횡성을 그들의 고향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겠다.

이 글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반가웠다. 고향을 등진 나를 잊지 않은 고향의 고마움에 기뻐다. 그러나 「논단」을 써달라는 부탁에는 망서렸다. 감히

내가 고향을 지키고 있는 고향인들에게 그 무슨 설교적인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논단」의 성격에는 맞지 않는 바의 고향에 대한 나의 수상의 글이 되고 말았다. 고향의 발전과 번영을 손 모아 빌 뿐이다.



— 筆 者 略 歷 —

- 出生地：橫城邑 邑上里 295 (뱀구데이)
- 橫城中學校 卒業 (1957)
-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國語科 卒業
- 美國 Kent 州立大學校 大學院 新聞學科 卒業
(1970年 碩士, 1972年 博士 取得)
- 서울大學校 新聞大學院 專任講師
-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新聞學科 助教授,
副教授를 거쳐 現在 正教授

건강한 성격이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

安 凡 熙
(강원대학교수·교육학박사)

I. 오늘의 靑少年 問題

기원전 2.3천년 전에 쓰여진 것으로 판독되는 상형문자가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트에서 발견되었다. 그 내용은 “요즘의 청소년 문제는 너무도 심각하다. 이렇다간 나라의 장래가 염려스럽다”는 문구였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청소년에 대한 우려는 常存하는 것임을 위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성세대가 보호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을 볼 때 그들에게 늘 문제는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자랄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흔히들 한다. 그러나 그 기성세대의 아버지 역시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었을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에 대한 걱정은 극히 자연스러운 보호와 지도의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성세대는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태도 등을 은연중에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농경생활이 주를 이루던 이, 삼십년 전만 해도 청소년의 가치관이나 태도의 변화 속도는 극히 완만한 것이어서 그리큰 걱정거리가 되지는 않았던 성 싶다. 또한 농촌위주의 생활환경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너, 아무개 아들이구나” 하는 한마디로 지도가 가능한 시대였다. 그러다 각종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촉진되면서 이웃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도시화에 따른 급격한 서구문명의 범람 현상으로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태도, 성격 등은 기성세대의 그것과는 상당한 괴리현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여기에 지식습득을 위주로 하는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말미암아 학교에서의 덕성교육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청소년들의 각종 비행, 범죄 등 사회문제와 오늘의 대학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학생문제를 보면서 기성세대는 많은 염려를 하고 있다. 이 염려는 바로 자기 자식에 관한 염려이며, 그들이 이끌어갈 사회, 국가의 문제여서 그 우려의 정도는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II. 性格과 適應의 問題

성격이란 개인의 특징적인 행동과 思考를 결정하는 개인 내부의 심리학적 제 조건의 역동적인 조건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성격의 특징적 요소로 들 수 있는 점은 성격은 행동의 객관적 특징을 뜻하며,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으며, 환경에의 독자적인 적응을 결정하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즉, 그 사람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개념이 바로 그가 지닌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 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은 아닌 것이다.

성격의 일부는 유전의 영향을 받지만 환경적인 요인, 즉 사회 및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개인이 속한 문화권의 가치와 규범에 의해 개인의 성격형성은 큰 영향을 받으며, 이를 축소시켜볼 때 가정의 영향이 지대하다 할 수 있다. 가정은 인생의 초기에 경험을 겪는 곳이며, 행동의 통제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고, 정서적으로 질게 물들여진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며, 우리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곳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정에서의 교육은 한 개인의 성격 형성과 장차 사회에서의 적응 여부에 관건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적응이라는 개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 첫번째 관점은 환경에 순응하는 것으로서의 적응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목적을 중시하여 개인적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과정으로서의 적응이다. 여기서 자아실현이란 완성을 향한 노력, 즉 개인의 선천적이고 긍정적인 가능성을 개발하고 성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인 적응의 개념은 곧 한 개인의 자아실현의 정도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성격, 어떠한 특성을 지닌 사람이 보다 적극적인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사회적 적응과 자아실현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인간의 특성으로는, 첫째, 자신을 긍정적으로 본다. 즉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다.

둘째,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셋째, 풍부하고 확장되고 유능한 지각적 장을 지니고 있다.

넷째, 타인과 광범위한 동일시를 할 줄 안다.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것이 긍정적 자아개념을 갖는 일이다. 긍정적 자아개념을 지녔다함은 그 사람이 자신을 능력있는 존재로 보고 가치있는 존재로 보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을만하다고 보는 태도를 말한다. 자신을 긍

◇ 어사매논단

정적으로 봄으로써 자신감을 갖게되고 이러한 자신감은 그 사람의 잠재능력으로 작용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기약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커다란 저수지에 물이 가득차 있는 상태로 비유할 수 있다.

자신이 있으니까 현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하고자하는 의욕을 갖게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러한 도전적, 성취지향적 자세는 성공의 확률을 높이게 된다. 그리고 마음먹었던 일을 일단 성공시키고 나면 자신이 유능하다는 느낌, 가치있는 존재라는 느낌, 믿을만한 존재라는 느낌은 더욱 강화되어 자신을 더욱 긍정적으로 보게되고 따라서 그 다음의 일도 성공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성공의 경험이 많은 사람은 매사에 개방적인 반면 실패의 경험이 많은 사람은 방어적인 면이 많아진다. 방어적인 사람은 자신을 어떤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는 결과가 되므로 사물을 효율적으로 지각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도 어려워지게 된다.

한 개인이 지닌 자아개념은 곧 그 사람의 중심적인 성격을 의미한다. 긍정적 자아개념을 지닌 청소년은 탈선할 겨를이 없다. 개개인의 성격 특성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나는가는 단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 나라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Ⅲ. 健康한 性格, 健康한 社會, 健康한 나라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인종을 막론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잘 먹고 잘 사는 일이다. 누구나가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고 기왕이면 배부르고, 따뜻하고 안락하게 살기를 원한다. 사람이 행복해지는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하나는 자신의 욕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켜나가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욕구를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는 방법이다. 자신의 욕구수준과 그 욕구에 대한 현실에서의 충족도가 맞아 떨어질 때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서구문명권은 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켜 나가는데서 행복을 찾으려 했음을 보게 된다. 기독교 문명권에 속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이에 속하며 이들은 목적인 바의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회교문명권 역시 그러한 적극적인 욕구 충족의 노력을 보여왔다. 그들은 회교의 전교 수단으로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사용했다. 요즈음 그네들은 '한 손에는 코란, 다른 한 손에는 석유'를 들고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것이다.

한편 동양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들은 대체로 욕구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불교에서 말하는 백팔번뇌를 떨쳐버리는 일은 곧 인간이 지닌 수많은 욕구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인 것이다. 또한 유교적 전통 역시 ‘나물 먹고, 팔을 베게삼아 자는’ 데서 행복을 찾는 安分自足을 군자의 미덕으로 삼았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불교와 유교윤리가 지배적인 문화의 바탕을 이루어 왔다. 따라서 욕구의 적극적인 충족보다는 욕구의 억제, 청렴, 제 분수껏 살기 등의 생활 태도가 가치있는 생활규범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다 해방 이후 서구문명을 무한정 수용하면서 그러한 가치체계, 생활규범은 큰 혼란과 함께 흔들리게 되었다. 이제는 너, 나 할 것 없이 더 많이 갖는 일에 열중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개인의 성격, 사회의 성격, 나라의 성격도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듯한 감을 지을 수 없다.

富有에 대한 조급한 갈망은 부동산 투기, 사기 등 온갖 부조리를 낳게하고, 쉽게 번돈 쉽게 쓰게하는 향락산업이 번창하고, 가진 자의 사치스런 생활은 이웃에게 상대적 빈곤감을 조장하여 국민간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러나 나는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병들었다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다. 산업사회화, 서구화의 흐름을 슬기롭게 수용하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규범, 생활윤리와와의 조화를 도모하기만 한다면 곧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건강한 성격을 갖게된다. 어느 것이 先이고 어느 것이 後인지를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갖고, 이러한 긍정적 성격이 은연 중에 자식들에게도 전달되고, 그리하여 한 사회의 기풍이 더 나은 미래,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치로운 사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우리는 자라나는 세대, 청소년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한 염려는 어느 시대에나 있어왔음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거니와 오늘의 청소년 문제는 결코 비판스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청소년은 그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영국의 교육실천가 닐이 얘기했듯이 “이 세상에 문제아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다만 문제의 가정, 문제의 학교, 문제의 사회”라는 지적은 오늘을 사는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요약한 표현인 것이다.

儒學思想에 關한 小考

金 基 元

農耕社會에서 産業社會로 急變하는 社會構造와 世態속에서 固有의 傳統인 倫理道德觀은 날로 衰退하여 사람들은 倫理道德觀의 混迷속에서 精神인 支柱를 喪失하고 있다.

人間의 尊嚴性은 極도로 墮落되고, 不信思潮과 黃金萬能主義가 膨滿하여 人間의 참다운 生을 營爲할 수 없는 無道亂世 이다.

現代는 바로 儒敎가 發生하던 春秋戰國時代의 再版과도 같아서 儒道精神의 再發見이 切實히 要求되는 時代 이다. 近間에 와서 忠孝思想을 되 찾으려는 소리가 政府나 國民들間에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多幸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오늘날 儒敎라고 하면 흔히들 李朝時代에 腐儒와 末儒들이 犯했던 過誤를 連想하여 孤陋한 學問이요 頑固하고 陳腐한 것이라고들 生覺하나 儒敎의 참뜻을 吟味해 보면 儒敎야 말로 人類의 生命이요 眞理라 아니할 수 없다.

「儒」라고 하는 말은 예로부터 「선비」라는 뜻으로 通해 왔다. 「儒」字의 뜻을 좀더 살펴 보면 옛날 漢나라의 學者인 揚雄은 말하기를 「通天地人之謂儒 通天地而不 通人之謂伎」라고 해서 儒와 伎를 說明 했는데 이 말은 곧 「天地人의 三才의 道理를 다 通한 사람을 「儒」라 하고, 天地 卽 自然의 法則에는 通하나 人의 道理 卽 人倫에는 通하지 못한 사람은 伎(現代語의 科學者)라고 한다.」는 말이니, 이 말의 뜻으로 봐서 「儒」는 「哲學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把握된다.

그러므로 儒敎는 子思가 中庸에서 이른바의 「中」(中和의 道)의 思想을 根幹으로하여 格物致知에서 비롯해서 誠意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大同世界로 이르는 人生哲學이요 宗教이다.

「中」의 意味를 좀더 살펴보면 子思는 이르기를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라고 했는데 이 말은 喜怒哀樂의 情이 發하지 아니한 狀態 卽 事象에 接하여 反應하기 以前, 人間深底에 潛存해 있는 性, 그 性의 순수한 本

然의 姿勢를 가리켜 「中」이라 하고, 反應해서 本然의 中을 그대로 過不及이 없이 具現한 理想的인 反應이 「和」라는 말이다. 「和」는 바로 調和요, 率性의 道요, 人性本然의 自律의이며 純正한 實現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儒教는 우리 人間이 指向하고 나아갈 바를 가리켜주고 있으니 우리 人間이 窮極의으로 到達해야할 곳은 基督教에서 말하는 死後의 天堂도 아니요, 佛敎에서 말하는 彼岸의 極樂世界도 아니요, 大學經典에서 이른바의 「止於至善」의 大同世界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 人間이 生의 意義를 깨닫고 살아 나아가며 窮極의으로 到達하여 安命歸宿할 곳이라고 生覺하는 大同世界란 어떤 世界인가?

禮記 禮運編에서 이르기를 「大道之行也天下爲公 選賢與能 講信修睦故 …中略…是謂大同」이라고 하였다. 卽 大同世界란 「信」·「聖」·「愛」의 世界이니 現世的인 人間의 理想世界이다.

「信」의 뜻인즉 「循物無違」이니 이 말은 곧 사람이 人·事·物에 接했을때 그 理致와 道理를 좇아 어김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換言하면 大學에서 이른바 사람이 天命으로 이 世上에 태어날때 天賦의으로 갖이고 나온 人間의 마음 속에 이미 內在하고 있는 「明德」인 仁義禮知의 四端의 極致요, 「聖」은 智·仁·勇의 三達德을 이르는 말인데 이 三達德을 提示한 이는 子思이다. 子思가 生存하던 當代는 揚朱, 墨子等의 異端說이 대두하여 思想的인 混亂을 惹起했던 時代여서 儒家의 立場은 이러한 異端說에 對抗하기 爲하여 宇宙問題와 心性問題를 좀더 精密히 研究하여 深遠한 儒敎哲學을 提示하지 않으면 안될 時代的 潮流에 處해 있었다. 그래서 子思는 堯舜禹湯文武等의 眞意를 推察해서 中庸을 祖述했는데, 子思는 그의 德論에서 이르기를 儒敎의 根本倫理가 되는 五倫은 天下의 達道라고 하였고, 이 五達道를 實現하기 爲한 方法으로서 「智·仁·勇」의 三者를 提示 했는데 이것을 三達德이라 하고 中庸에 到達하는 手段으로 보았다.

「愛」의 뜻은 孟子가 이른바 親義別序信의 五倫의 極致이다.

이와같이 信·聖·愛의 極致로 이루어진 世界야 말로 全人類가 渴望하는 至高至上의 人間樂園이요 地上天國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儒敎에서는 人間으로 하여금 이 「止於至善」의 大同世界로 이르는 人道를 分明히 밝혀주고 있으니 그 길은 바로 大學經典에서 이른바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中略… 致知在格物」라고 한 이 말을 다시 整理해 보면, 첫째가 格物致知요, 둘째는 誠意正心이요, 셋째는 修身齊家요, 넷째는 治國平天下요, 다섯째는 大同世界인 것이다.

◇ 어사매논단

이와 같이 우리 人間이 指向하고 나아가야 할 人道와 安命歸宿할 바가 分明히 밝혀지고 있을진대 이 길을 버린다면 어느 길로 간다는 말인가?

儒教哲學을 거울로 삼아서 여기에 비쳐지고 있는 現世를 볼때 人間の 尊嚴性은 極도로 喪失되었고 黃金萬能主義가 社會的인 支配의 上座에 군림하므로서 利己主義와 個人主義가 극성을 부리며, 따라서 人間關係에 있어서는 非人間性이 痼疾化되고, 사람이 사람을 서로가 믿지 못하고 依支하지 못하는 不信思潮가 極도로 膨滿한 狀態이다.

이와같이 仁義의 正道가 墮落된 現世를 어찌 江건너 불보듯이 袖手放觀만 하겠다는 말인가. 孔夫子께서는 가진 患難을 겪으면서도 「天生德於豫」라 「하늘이 이 덕을 나에게 나리셨으니 내가 致命的인 患難을 當하게 된다면 하늘이 이 道를 喪失하는 結果가 될것이다。」라고 까지 生覺하였던 것이며, 이 道를 當時의 天下와 後世에 傳할 責任이 孔夫子 自身에게 있다는 確固한 信念을 갖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生覺한다.

그래서 孔夫子께서는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이라고 까지 生覺하여 積極的인 傳道觀을 가지고 온 天下人들로 하여금 이 道를 實踐하도록 가리키고 引導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傳道精神이요 이것을 일러 孔夫子는 말씀 하시기를 「怒」라고 했다. 「怒」란 文字가 나타나고 있는바와 같이 會意文字로서 如字와 心字를 습한 뜻으로 「내마음과 같은것」이라는 뜻이니 「怒」는 곧 「推己及人」의 뜻이다. 따라서 내가 밝힌 明德으로써 온 天下人들로 하여금 明德에 눈을 떠서 生의 意義를 깨닫고 참된 人道를 찾아 生을 누리며 窮極의으로는 大同世界에 이르러 安命歸宿하도록 引導한다는 뜻이다.

亂世를 當하고 있는 오늘의 儒林은 모름지기 時代的인 使命感을 갖고 儒道精神의 再發見과 傳道에 心血을 傾注하여 不仁和 不義가 판을치는 無道한 現世를 正道로 이끌어 나아가기 爲하여 獻身的인 役軍이 되어야 할것이다.



〔於斯賈 發刊〕

향토문화의 역할과 기대

橫城郡守 趙 源 赫

문예지 於斯賈 제 4 호의 발간을 축하하면서 지방문화창달을 위하여 애쓰시는 횡성문화원 韓重熙 원장님과 회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이곳에서 태어남과 학업을 수학하고 그동안 20 여년간의 공직생활 중에 영광스럽게도 고향의 군정책임자로 돌아와 7 만 군민여러분을 위하여 봉직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문화예술인 여러분의 군정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은 우리 군의 군정을 맡아 수행하는 기간에 지방문화의 활성화와 향토문화의 창달을 위해 힘써나갈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 영도하는 제 5 공화국의 국정지표에서도 「교육혁신과 문화창달」이 강조되었듯이 국민의 소득과 생활이 향상되면 문화적 욕구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책상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 질 것이며 또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 지리라 믿읍니다.

따라서 산업과 경제의 질적 양적 향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침체해 있던 문화 복지 특히 지방문화의 육성은 우리 모두에게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앞으로의 문화시책은 군민의 애향운동을 통한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신문화 분야와 지방문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유무형의 문화공간의 확대 그리고 문화예술인의 발굴육성과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인구의 저변확대와 함께 각종 문화시설, 문화유산의 생산적 활용에 중점을 두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하여온 뿌리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전통문화예술의 진수를 전승 보존하고 역사에 빛났던 향토사를 재정리 재조명하여 밝고 멋있는 군민상 확립과 애향, 애국심의 함양에 이바지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문화공간의 확대를 위하여는 문화원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초대석**

문화센터와 같은 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각종 문화행사와 태풍문화제를 전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축제가 되도록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는 향토문예인의 활동영역을 넓힐수 있는 계기의 부여와 출향 기성문예인의 향토 문예 활동참여를 비롯해 일반인, 청소년, 학생등 그 기능과 연령 계층에 맞는 문화예술활동의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각종 문화자원의 생산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유무형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정금향토민속관등 각종 문화시설의 자유로운 활용을 위한 개방과 관광과 연계한 소득자원화와 문화활동을 건전하고 생산적인 활동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문화행정의 방향설정은 그 목적이 단시일내에 이루어 질수 없는 것으로써 우리 모두가 깊은 관심과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할때에 하나 하나 결실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며 특히 문화란 政府나 郡같은 어떤 행정력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 것 보다는 대중적인 뿌리를 바탕으로 문화 예술인의 창의적인 노력에 의하여 창출되는 것이 더 가치있는 참다운 문화이며 예술이 될 수 있다고 믿어, 문화원이 그 구심점이 되어 많은 향토인사들과 문예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추진되고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권력이 그 지원과 보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과 우리 군이 앞으로 펼쳐나갈 지방문화의 창달은 興성문화원의 책임과 역할에 달렸다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이땅에 훌륭한 지방문화의 꽃을 피우는 선구자적 역할을 다해 주실것을 문화원장님과 회원 여러분에게 부탁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많은 발전과 보람을 가져오는 한해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於斯買 제4호 발간을 축하 드립니다.

87學年度 橫城教育의 方向

橫城郡教育長 趙 振 行

86 前年廣 橫城教育의 方向을 1)學力 提高 2)道德的인 人間育成 이라는데 力 點을 두고 그 施策으로써,

1. “個人別 學力水準의 引受引繼” 로 個別 能力別 指導를 通해 水準學力의 確保,

2. “授業計劃의 事前配付”로 自學 自習 態度 定着化로 學習效果를 極大化 시켜 都農間의 學力의 隔差를 없애고,

3. 東洋倫理觀에 入却한 生活指導로 새로운 價値觀을 形成시켜 보겠다는 指 標아래 86 學年度 上半期를 一線學校長의 一次獎學과 教育廳의 2次獎學을 通해 그 推進에 努力해 왔다.

86 學年度 上半期의 決算을 보면서 事實上의 進展도 있었고 展望도 보였지만 그 一角에서는 試行錯誤도 있었고 反省의 余地도 있어 그 充分한 審査分析을 通해 2學期에 再投入 86 學年度의 教育의 成果를 側定하고자 한다.

勿論 그 結果는 87年 2月에 가서야 그 成敗와 判斷의 自覺이 判가름 나겠지만 當初 86 學年度初 獎學計劃 樹立當時 地域社會의 特殊性 各級學校의 實情을 充分히 研究 檢討한 나머지 樹立된 計劃이기에 비록 86 學年度의 教育 成果가 우리가 期待했던것 만큼 내지

- 使命感으로 教材를 研究하며
- 學力提高에 盡力하고
- 不斷히 教授-學習方法을 改善해

나가며

지 못했다는 치더라도 教育의 效果는 一朝一夕에 이루어 지는것이 못되고 어떤 計劃이던 대한가지 겠지만 特히 教育計劃은 根本적으로 잘못된것이 아니라면 자주 變更한다는것은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따라서 87 學年度의 教育의 方向도 86 學年度 獎學計劃의 취약점을 修正 補完하는 程度에서 樹立할 生覺이니 87 學年度의 教育方向도 86 年度와 大同 少異할 것이다.

그 要點만을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推進方向으로

○教壇支援을 中心으로 行政力을 總 集注 하고

○精誠과 總和로 教育效果를 增大 시켜 나가며

○召命意識으로 責任獎學行政을 具顯 하고자 한다.

86 學年度 獎學의 基本 方向은

○먼저 學生을 爲한 獎學의 方向을

○自學自習 態度의 定着

○水準 學力의 確保

○基本體力の 維持

○秩序와 禮節教育의 生活化가 될수 있도록 獎學을 해나가겠으며,

教師를 爲한 獎學의 方向은

○教壇支援을 最優先으로 하며

○施設 設備의 維持管理를 잘할 수 있도록 獎學을 하여 教育力 向上을 圖 謀 하고자 함.

◆ 초대식

- 率先垂範하는 教師가 될수 있도록 獎學을 해나가겠으며,
學校經營을 爲한 獎學의 方向은,
- 校長 校監의 一次 獎學이 強化되 어 가며
- 快適한 教育環境을 構成하고

以上과 같이 87學年度 橫城教育의 方向을 構想하여 學校 教職員 獎學陳 混然一體가 되어 보다 알차고 着實 한 前進을 하여 橫城教育 發展을 爲해 혼신의 힘을 기우리고자 한다.

87學年度 學校設計

橫城中·高等學校
校長 金光洙

1. 공부하는 校風의 定着

本校는 農業高等學校로 設立 認可된후 61年 實業高等學校로 되었고, 다시 綜合高等學校로 改編되었다가 1984年 3月 1日자로 橫城高等學校로 校名이 바뀐지 3年만에 名實 共히 人文高等學校의 體制와 面貌를 갖추면서 첫 卒業生이 社會에 나갔읍니다.

그러기에 今年은 그 어느해 보다도 갖추어진 體制속에서 그 面貌를 一新하여 人文高等學校로서의 공부하는 校風을 定着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本校에 入學하는 學生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勿論 공부하는 學生으로 커서 將來生活이 保障되는 卒業生이 많이 나오는 學校로서의 傳統과 校風樹立의 디딤돌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爲하여 무엇보다 學生 個個人的 學習 目標을 뚜렷이 해 주어야 하는 일부터 始作해서 學校 學習環境의 整備 責任있는 學習 指導를 爲한 教授-學習 方法의 改善, 自學 自習하는 態度를 길러 주는 일 評價內容과 方法의 適正, 他 學校와의 情報 交換 및 比較 評價 等の 要因들을 하나 하나 檢討하고 補完하여 그 알뜰한 結實로써 入試철 마다 겪는 인근 都市와의 逆流 現象을 最大限으로 막아 보는데 努力 하겠읍니다.

2. 國民 精神 教育의 強化

學校生活을 통하여 學生들이 올바른 生活 習慣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重要한 일입니다. 바람직한 生活 習慣이 形成되어있지 않으면 個人은 勿論 社會가 發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教育은 學生들이 正直한 마음 姿勢와 바른 禮節, 協同하는 態度, 使命感을 갖고 責任있게 遂行하는 姿勢 等の 生活 習慣은 올바르게 指導되어야 하며 이는 單純히 知識 傳達이나 技術 習得과는 달라서 全 教育 活動을 통하여 家庭, 學校, 社會에서 調和로운 發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굳어져 가려는 生活 習慣을 健全한 方向으로 定立하고 個人的 올바른

價値觀과 國家觀을 심어 주기 爲한 國民精神教育 九大 德目を 充實히 指導하고자 합니다.

教育은 우리 國家가 當面한 여러 가지 解決을 위한 國家의 意志와 國民的 興望을 調和시켜 새로운 民主 國家를 建設해야 하며 바람직한 國民을 育成해야 할 課題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3. 示範 學校 運營의 充實

本校는 1986年 3月 1日자로 文教部 指定 職格 課程(自動車科) 示範學校로 指定되어 1年次로 2學年 職業 課程 1個 學級을 設置 運營하고 있습니다.

人文高等學校의 學生中 여러 가지 사정에 依하여 大學 進學이 어려운 學生들에게 自動車 實習을 通한 基礎的 整備 技能과 運轉 技能을 習得시켜 攄으로써 卒業 後 産業社會의 役軍으로 키우고자 努力하고 있습니다.

昨年 第一次年度로는 整備 및 運轉 實習用 車輛 5台를 確保하여 實習中에 있으며, 第2次 年度인 87년에는 增車는 勿論 整備庫의 擴充, 運轉實習場의 開設 등으로 實效性있는 職業 課程 示範學校를 運營하고자 합니다. 1次年度 運營 結果 學生들의 反應이 좋고 職業 課程 示範學校를 運營하고자 합니다. 1次年度 運營 結果 學生들의 反應이 좋고 職業 課程 選擇 希望者가 많아 施設만 擴充되면 指導에 希望의이라 보아 집니다.

4. 배드민턴부의 育成

本校는 江原道 教育委員會의 배드민턴團地 造成 計劃에 따라 배드민턴部를 創團하여 強化 訓練中에 있습니다.

1985年 全國 體典 4冠王에 오른 橫城中學校 卒業生 5名을 主軸으로 創團된 배드민턴部는 該간 本校 同窓會, 育成會, 各級 機關長, 地域 人士님들의 積極的인 支援과 教職員 및 在學生들의 뒷받침, 그리고 選手와 指導教師의 熱誠的이고 科學的인 指導 結果로 86年度 全國規模의 各種 大會에서 優勝 및 準優勝을 차지 하였으며 88꿈나무 選手 3名, 國家代表 1名을 誕生시키는 結果를 얻었습니다. 또한 2회에 걸친 유럽 傳地訓練에 4名이 參加하였고 國家代表 選手村에 1名이 入村하고 있습니다.

選手 育成을 위한 財政的 어려움이 큰 問題이나 앞서 밝힌 이 고장 모든 分들의 뜨거운 聲援과 슬기로 이 어려움을 克服하여 所望하는 結實이 맺어지도록 最善을 다 하고자 합니다.



87學年度 學校運營 方向

橫城女子高等學校長

申 東 河

一. 序 言

本校는 開校 7年째를 맞아 5學級씩 3個學年 15學級 編成의 單設 人文女子 高等學校로서 이 地域 女性教育의 中心이 되고자 基盤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橫城의 關門에 位置하여 地域社會의 期待속에 學父母들의 協調와 뜻있는 分들의 獎學金等 많은 支援속에 날로 發展하고 있습니다.

그간 特히 人文高等學校教育이 入試準備에 치우쳐 短片的 知識이나 注入暗記式 學習方法으로 人性指導나 情緒陶冶에 소홀하여 價値基準의 混同과 全人的 發達에 支障을 준 弊端이 적지 않았읍니다.

이제 入試制度의 改善이나 教育課程의 改編等 教育의 根本的 改革이 이루어지 게 됨은 참으로 多幸한 일입니다.

앞으로 人文高校의 特性인 進學공부에 힘쓰는 한편 全人教育, 科學技術教育, 平生教育을 目標로 知·情·意의 高른 發達과 透徹한 國民精神을 기르고 自主的 技能人을 키우는 산教育이 되살아나라라 믿읍니다.

本校에서도 새로운 教育政策에 발맞추고 地域社會 要求에 따라 즐거운 學校生活, 찾아배우는 活氣찬 學生活動으로 슬기롭고 쓸모있는 女性일꾼을 기르는데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二. 現況 및 問題點

1. 學生들이 誠實하고 淳朴하면서도 進取的 氣象이 적으므로 意志力과 競爭心을 길러 成就慾求를 키워야 하겠음.

2. 入學初 定員 290名이 얼마후면 居住地인 原州로 多數(年 40~50名) 轉出하므로 因해 雰圍氣가 不安定하고 아울러 地域中學 出身者가 많이 入學을 못하게 됨.

3. 자취나 下宿生이 約 150名(20%) 정도 되어 이들의 特別한 生活指導(安全, 行動 保健)가 要求됨.

4. 卒業學年の 進學希望者가 約 35%로 漸減趨勢이며 就業希望者는 約 65%로 進路別 對備指導가 切實함.

5. 大體的으로 家庭의 教育參與度와 成就慾求가 充分치 못한편으로 教育 相談이나 家庭通信이 많이 要望됨.

三. 目標 및 施策

中堅國民으로서의 一般的 品性을 기르고 鄉土 및 社會를 理解하고 參與하며 個性에 맞는 進路를 決定하여 이에 알맞는 豫備技能을 닦고 나아가 國家와 民族을 肯定的으로 自覺하고 奉仕하는 教養있는 女性을 기르기 爲하여

1. 基本學力의 確保
2. 進路別 技能指導
3. 生活指導 및 純潔教育
4. 情緒 및 教養指導

그리고 教育與件改善에 施策力點을 두었습니다.

四. 具現方案

1. 基本學力 確保
 - 가. 密度높은 教授學習과 個別化
 - 나. 學習要領 및 習慣指導
 - 다. 適正課題의 確認徹底
 - 라. 讀書指導와 圖書擴充
 - 마. 補充指導와 그룹別 自律學習
 - 바. 形成評價와 再投入 必行
 - 사. 科目別 特活班공부
2. 進路別 機能指導
 - 가. 進路情報의 蒐集提供
 - 나. 早期 進路相談 確定
 - 다. 進學準備공부의 集中指導
 - 라. 就業班別 技能指導
 - 마. 外部訓練施設의 連繫活用
3. 生活指導 및 純潔教育
 - 가. 人性指導—正直(無人販賣), 勸勉

◆ 초대석

- 나. 敎導相談－問題解消와 成就慾 誘發
- 다. 消費生活指導－儉素·節約·貯蓄
- 라. 社會性指導－禮儀, 秩序, 奉仕
- 마. 자취, 下宿生指導－主人訪問 相談
- 바. 純潔指導－生理, 交友, 性敎育
- 사. 行事敎育－學生會 集團 自治活動

4. 情緒 및 敎養指導

- 가. 藝能指導－音樂 美術 其他
- 나. 哲學班運營－特活班 運營
- 다. 傳統文化－禮法, 茶道, 敬老孝親
- 라. 趣味－꽃꽂이, 手藝, 娛樂 其他
- 마. 體育－1人1運動, 배드민턴, 陸上

5. 敎育與件的 改善

- 가. 基本施設(敎室3, 便所1)의 增築豫定
- 나. 校舍內外壁 塗裝
- 다. 庭園 花壇의 整理
- 라. 鄉土樹林帶 補植整備
- 마. 뒷산에 林間敎室 造成
- 바. 屋外椅子和 藤棚 設置
- 사. 校是塔 建立
- 아. 學習資料 機材 確保
- 자. 保健施設의 擴充

五. 結 語

敎育活動은 多樣하면서도 綜合的이어야 하므로 위의 어느 하나도 疎忽히 할 수 없습니다. 또 모든 施策은 時間的 計劃과 空間的 施設과 指導人力이 잘 짜여진 바탕위에 學生들의 旺盛한 意慾과 敎師들의 熱·誠·愛가 뭉쳐져 비로소 그 實을 거둘 수 있습니다. 더구나 一次的 敎育擔當者인 家庭과 學父母의 積極的인 指導參與 그리고 社會의 關心과 協調支援 없이는 發展하기 어렵습니다.

本校가 一致된 誠力에 힘입어서

1. 進學者는 準備公부에 集中努力하고
2. 就業希望者는 打字 珠算 簿記 컴퓨터等 저마다 技能訓練에 熱中하고

3. 모든 學生이 讀書 禮法 純潔等 女性의 教養美를 몸에 배게하고
4. 正直·儉約 進取하는 自主的 生活人이 되어 鄉土와 國家社會에 이바지하는 現代의 民主女性으로 슬기롭고 아름답게 자라주기를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87學年度 本校 獎學方向

大東女子中學校長
韓 泰 洙

一. 序 言

오늘날 우리 나라 學校教育이 知識中心과 入試爲主의 教育이라고 批評의 소리를 듣고 있다. 이것은 教育이 참다운 삶을 爲한 全人教育과 人間教育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民族民主統一과 民族中興이라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課題를 안고 있는 民族的 特殊狀況과 앞으로 展開될 高度産業 社會와 急速히 變化하고 發展하는 國際社會에 適應하고 能動的으로 對處하며 創造하여 人類共榮에 이바지할 수 있는 教育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要求되는 教育이라고 生覺한다. 中學校教育이 完熟한 人間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상의 課題를 解決할 수 있는 健全한 價値觀을 定立하고 바람직한 生活態度를 確立하며 基礎 知識과 能力을 涵養하고 몸을 기르는 것이라고 前提하며 1987學年度의 本校 獎學方向을 다음과 같이 設定한다.

二. 本校 獎學方向

첫째, 人間에게 가장 重要한 것은 참다운 人間이 되는 것이라고 生覺한다. 現代 機械文明과 物質文明의 汎濫속에서 喪失되어가는 人間性을 恢復하는데 努力하며 物質과 量爲主의 生活에서 健全한 精神을 涵養하고 生活의 質을 向上시켜 健全한 倫理觀과 國家觀, 生活觀을 確立하는데 第一의 目標을 두겠다.

둘째, 基礎學力向上에 힘쓰겠다. 現代 社會는 國內的으로나 國際的으로 熾熱한 生存競爭을 하는 社會로 되었고 高度의 産業社會로 發展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받

◆ 초대석

드시 요구되는 것이 知識과 技術, 能力이라고 볼때 中學校에서 基礎學力을 完全히 具備하지 못하고서는 未來社會에 必要한 人間으로 成長할 수 없다고 본다.

세계 藝體能을 비롯한 個人的 素質啓發에 힘쓰겠다. 個性을 살리고 能力을 마음껏 發揮할 수 있는 것이 民主社會의 長點中の 하나이며 그것이 바로 人間 尊重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分化되고 專門化되어가는 社會에 對應하는 길이라고 본다.

네째, 우리의 傳統文化繼承과 共同體意識 涵養 教育에 힘쓰겠다.

다섯째, 깨끗하고 아름다운 環境構成을 爲해 努力하겠다.

여섯째, 學生들의 情緒涵養과 즐거운 學校運營에 力點을 두겠다.

三. 結 言

繼續 探求하고 創造하여 나가도록 雰圍氣를 造成하며 積極的으로 獎學하고 學校와 家庭, 社會가 一體가 되어 協助하여 獎學效果를 學揚하도록 努力하겠다.



筆者略歷



出生地：江原道 橫城郡 橫城邑 邑上里 328-3

經 歷：1954年 4月 1日 以後 現在까지

32年間 大東女子中學校 勤務.

現 學校長

◆ 어사매 칼럼 ◆

愛郷同參意識。一로 뭉친
在春川橫城郡民會員들

曹 尙 鉉
(江原道統計擔當官)

23年前인 1963年度에 發足한 郡民會

在春川橫城郡民會가 發足된것은 지금으로부터 23年前인 1963年 6月 3日의 일이다.

春川地方에 橫城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것은 6.25 동란 이후, 1953年 3月 7日 原州 宣化堂 자리에 있던 避難道廳이 春川으로 收復하면서 職場關係로 또는 일자리를 찾아 春川으로 移住하는 분들이 한두사람씩 늘기 시작했다.

筆者가 春川에 자리잡은것이 1954年 3月이었는데 그때 春川에서 만날수 있던 橫城사람은 몇분에 불과했다.

그후 春川에 橫城사람들의 얼굴이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한것은 그로부터 2~3年 동안인데 1960年 전후해서 급격히 늘어났다.

當時를 회고해 볼때, 아는 사람이라곤 눈을 비비고 찾아볼래야 찾을수 없었던 그때 어쩌다가 길거리에서 故郷까마귀를 만난다는것은 그것처럼 반가운 일이 없었다. 더구나 戰災復舊事業이 한창이던 당시 의지할곳 없는 客地에서 뜻밖에 故郷분을 만나 두손을 맞잡고 故郷消息을 나누던 옛일들은 平生을 두고 잊혀질것 같지 않다.

그래서 그때엔 春川市內 中心街에 직장을 가진 몇몇분들만이 모여 가끔 저녁식사를 나누면서 故郷 얘기로 꽃을 피우는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다가 1962年 年末이 되어, 당시 華川登記所長을 그만 두고 春川에 司法代書所를 개설하고 있던 咸在星씨, 政黨일을 보던 李丙參씨, 春川市副市長으로 在職中이던 南相明씨 그리고 筆者등 네사람이 그해 忘年會 모임을 갖고 얘기를 나누던 끝에 鄉友會 問題가 제기되었으니 바로 이날의 좌석이 在春川 橫城郡民會 태동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날밤 論議된 내용은, 이제 春川지방에 와있는

◆ 어사매 칼럼

橫城사람들도 많아졌으니 조속히 郡民會를 만들어 慶弔事때에 서로 알려 돕자는 것과 각종 體育大會때 마다 出戰하기 시작한 橫城郡代表 任員選手들의 慰問과 應援을 펼치자는 것이었다.

☆ 牛頭山 公園서 盛況裡에 結성한 創立總會 ☆

1963年 새해를 맞아 春川에 移住해온 橫城분들의 所在把握을 위해 年初부터 서둘러 着手했다. 威在星씨는 주로 橫城이 故鄉이거나 緣故를 가진 분들을 찾아 수소문했고, 李丙參씨와 筆者는 春川市와 春城郡의 戶籍과 轉出入狀況을 열람하는 등 근 3個月동안에 걸친 작업끝에 本籍地와 現住所 등 名單을 作成하고 보니 모두 86世帶 그리고 春川市內 各급學校에 在學中인 高等學校 學生과 大學生이 70余名 예상외로 5~6年 사이에 많은 분들이 春川地方에 와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해 6月 3日, 春川市 牛頭山 公園에서 처음으로 在春川橫城郡民會 創立總會를 개최하게 이르렀던 것이다. 이날 70人分을 準備했던 中食과 飲料가 모자라 급히 30人分을 추가로 운반해 왔었으니 創立總會에 參席했던 橫城郡民은 모두 100余名에 달했다.

이날 總會에 參席한 郡民들은 新緣이 우거진 잔디밭 위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客地에서의 苦生스러웠던 얘기, 事業얘기, 그리고 故鄉消息등을 나누며 해저무는 줄 몰랐다.

故鄉을 떠난 他鄉살이가 얼마나 외롭고 힘겨웠으면 그토록 화기에애할 수 있었을까. 그날 서로 얼싸안고 반가워하던 會員들의 모습에서 애뜻한 鄉里愛를 읽을 수 있었고, 100余名의 會員들은 하나같이 故鄉의 소중함을 새삼 뼈저리게 느끼는듯 했다. 참으로 愛鄉同參意識으로 뭉쳐진 흐뭇한 광경이었다. 그래서 故鄉이란 그 누구에게나 평생 간직해야할 信仰이며 宗教같은 것인지 모른다.

이날 創立總會에서 郡民會定款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會長에 威在星씨를, 副會長에는 지난 78年에 昨故한 李鍾學씨, 監査에 李丙參씨를 각각 선출하고 幹事 일은 筆者가 맡게 되었다. 그리고 이날 總會를 마치고 돌아와 당시 樂園洞 네 거리에 있던 威會長 事務所玄館에 郡民會 간판을 걸었으니 이것이 바로 在春川 橫城郡民會의 嚆矢이다.

☆ 慶弔事때마다 서로돕고 鄉愁달래 ☆

盛況裡에 創立을 본 在春川橫城郡民會는 그후 매년 總會를 열어 會員間의 서

로 안부를 전하고 외로움을 달랠다. 그리고 會員들의 慶弔事가 생기면 빠짐없이 서로 알리고 參席하여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春川에서 매년 2~3회씩 개최되는 각종 體育行事때마다 參加하는 橫城選手任員들을 찾아 慰問 激勵하는 한편 郡廳新築廳舍落成式, 橫城獎學會, 걷기大會, 泰豐文化祭등의 行事때마다 郡民會 任員들이 參席해오고 있다. 그런데 매년 개최해 오던 定期總會는 차차 會員들의 參席率이 저조해지기 시작하여 1969年이후 부터는 會長團과 任員들만이 每月 한번씩 會sum을 갖고 結束을 다지면서 總會를 대신했다.

☆ 郡民會 活性化 爲해 定款改定 運營委員制 導入 ☆

1983年度에 들어와 郡民會의 活性化를 위해 創立이래 처음으로 定款을 改定하고 運營委員制를 導入하는 한편 任員을 改選했다.

새로 選出된 任員은 咸在星會長이 留任되고 副會長에는 당시 土地改良組合道支部長에 在職中이던 鄭瑩澈會員과 曹圭益(道 養苗課長)會員 그리고 鄭東壽(國際電業社長) 會員을 각각 選출하는 한편 12名의 運營委員을 뽑고, 鄭致和會員이 總務를 맡았다.

그후 1986年度 定期總會에서 다시 定款을 전면적으로 대폭 改定하고 任員陳을 改編했다. 10月 26日에 개최된 86年度 總會에서 選出된 任員은 會長에 朴孝植(前 高城慶察署長)會員을, 第1副會長에는 鄭瑩澈(前揚口, 寧越郡守)會員, 第2副會長 曹尙鉉會員, 第3副會長 金仁煥(清溪漢醫院長)會員을, 그리고 監査에 金振用(道 監査擔當官室)會員, 總務에는 鄭致和會員을 留任시키고 李秉甲(道 地方課輿論係長)會員을 새로 더 뽑았다.

1963年 在春川橫城郡民會 創立이후 지금까지 會長職을 맡아 本會 發展을 위해 物心兩面으로 努力해 온 咸在星會長은 顧問으로 推戴됐다. 이로서 在春川橫城郡民會 顧問은 李鶴基顧問과 이번에 새로 推戴된 咸前會長 2名이다.

現在 在春川橫城郡民會 會員數는 모두 250余世帶로 推定된다.

당초 咸前會長 事務所에 걸었던 郡民會 간판은 그후 司法書士個人事務所가 合同司法書士會로 統廢합됨에 따라 1983年에 鄭致和總務 事務所에 옮겼다가 지금은 春川市 後坪洞 金仁煥 第3副會長이 經營하는 清溪漢醫院에 다시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 江原道廳 『花城會』 活動도 活潑 ☆

現在 春川에는 郡民會外에 江原道廳과 그 傘下機關에 勤務하는 公務員들만으로

◆ 어사매 칼럼

구성된 花城會 모임이 活潑하게 운영되어 오고 있다. 郡民會가 發足되던 그 다음해인 1964年에 시작된 이 花城會 會員은 警察局會員을 包含해서 모두 41名 이 花城會에서도 會員間의 慶弔事, 昇進, 榮轉등의 일이 있을때 마다 서로 돕고 위로하면서 友意를 다져오고 있다. 會長은 曹圭益씨가 맡고 있으며 幹事일은 李秉甲會員이 맡아 오다가 지금은 金振用會員이 보고 있다.

☆ 1960 年代의 『在春川橫城留學生會』 活動 ☆

在春川橫城留學生會는 1960 年代 春川農科大學과 春高 春師에 다니던 橫城出身 男女學生들의 모임이었다.

1955年 3月 25日 당시 春川農科大學에 在學中이던 金甲洙(現 大韓地籍公社 全北支社長)씨 鄭桂亨(現 大洋産業 副社長)씨 그리고 筆者등이 發起하여 6年동안 70余名의 젊은 學生들이 뭉쳐 내고장 發展의 礎石이 되고자 다짐했었다.

당시 靑雲의 뜻을 품은 在春川橫城留學生會 學生들은 봄에는 定期總會, 가을에는 野遊會등을 통해 앞날을 設計하면서 젊음을 불태우던 그 情熱과 學究熱은 참으로 대단했었다.

특히 子息의 學業을 위해 떡장수行商을 하면서 외아들의 學資金을 마련해 주던 壯한 어머니도 있었으니, 電氣불도 精米所도 없던 당시, 감감한 碩士洞 공동 디딜방아간에서 會員學生들이 그 어머니를 도와 밤늦도록 떡쌀을 찼어주던 일이 30年이 지난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다.

이 在春川橫城留學生會 活動은 1964年경까지 지속되어 오다가 없어졌지만 당시 어린學生들이던 그들도 이미 中年에 접어들어, 지금은 모두 각처에서 요직을 맡아 社會의 一翼을 담당하고 있다. 이 在春川橫城留學生會 活動을 言及하는것은 이제 歲月이 좀더 흐르다 보면, 당시의 일들이 우리의 記憶속에서 모두 살아질것이기에 여기에 적어 두는 바이다.

橫城은 우리 在春川郡民들의 마음의 요람이며 永遠한 本郷이다. 뿌리없는 나무가 生長할 수 없듯이, 橫城은 우리 會員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살고 있지만 어느 하루 잊어본적이 없는 마음의 뿌리이다.

은통 높고 낮은 山봉우리가 마치 병풍처럼 둘러싼 於斯買 옛터에, 泰岐山 깊은 골에서 發源한 섬강의 물줄기가 감돌아 드는 名郷 橫城. 舊韓末 내나라 내 鄉土를 倭놈들로부터 굳게 지키겠다고 온 郡民들이 怒濤와 같이 일어나 3.1運

動史를 찬연히 빛낸 橫城人들의 鬪志. 우리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祖上과 代를 물려 이어받은 아름다운 橫城山河를 故郷으로 두고 있다.

이것이 바로 濃縮된 橫城魂이요 橫城의 矜持일진대, 그래서 故郷을 떠난 우리 會員들의 가슴속엔 항상 그리움과 아쉬움이 더해갈 뿐이다.

橫城의 줄기찬 發展과 無窮한 繁榮을 두손모아 빈다.

橫城에 光榮있으라. 그리고 永遠하라.

◆ 향토순례 ◆

李仁居의 亂



金基元

橫城에서 春川方向으로 後川橋를 건너 가면 古風이 雅淡한 雲岩亭이 그림 같이 놓여 있고, 그 뒷便으로 蟾江上流의 水流를 따라 南北으로 뻗어내린 岡巒에는 昭武功臣의 한 사람인 陳克一의 白骨이 歲風에 시달린 墓碑와 더불어 구비 흐르는 蟾江을 굽어보며 閑寂한 草露에 묻혀 있다.

距今 三百六十年前인 李朝 仁祖五年(西紀 1627年) 겨울에 橫城은 李仁居의 反亂으로 인하여 一大狂風이 불어 닥쳤다.

李仁居는 本是 橫城사람으로서 壬辰倭亂時에는 父母를 따라 定處없이 北關

(北韓地域)을 漂泊하다가 兩親을 그곳에서 다 잃고 父母의 遺骨을 그곳에 埋葬 했는데 故郷인 橫城에 돌아와서도 父母의 遺骨을 反葬하지 못한 까닭으로 罪人이 되고 말았다.

光海君 執政時에는 어떠한 緣由인지는 記錄이 未備하여 밝혀보기 어려우나 京師(首都)와 발을 끊고 山中에 隱居 하았는데, 仁祖反正後에 朝廷에서는 李仁居에게 翊贊(王의 政事를 補佐하는 일) 벼슬을 超拜(順序를 뛰어 넘어서 벼슬을 주는 것) 했으나 그는 이에 不應하고, 東人에서 分派한 北人의 分派인 大北派의 殘黨들과 더불어 堤川地方에서 謫居하던 柳孝立의 一黨과 內通하고 仁祖五年 九月부터 光海君 復位陰謀에 加擔하여 舉事의 機會를 노리다가 그 해 겨울(十一月)에 江原道伯 崔暉을 찾아 갔다. 道伯을 面接한 李仁居는 서슴없이 和議 할 것을 提意 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倡義中 興大將이요. 軍卒 數百人을 이끌고 本道에 왔소, 忠淸道에서 軍器가 다 準備되면 橫城縣監 李擢男을 結縛하고 獄

門을 부시고 열어 囚徒들을 다 끌어 내는 即時로 京師를 攻擊할 것이요. 和議를 함이 어떻겠소」 하면서 氣勢를 부리며 거드름을 피웠다. 그러나 道伯 崔峴은 조금도 當慌하는 氣色이 없이 李仁居의 提意를 拒絕했다.

舉事가 不利하게됨을 깨달은 李仁居는 곧바로 橫城으로 달려왔다. 當時에 李仁居를 따른 무리들이 果然 몇명이 나 되었는지는 傳記의 未備로 밝혀보기 어려우나 一黨의 무리를 지었으리라고는 推測 된다.

橫城으로 달려온 李仁居는 縣館을 占領하고 李縣監을 잡으려고 했으나 李縣監은 事前에 情報를 알고 있었는지 재빨리 말 고삐를 잡고 原州로 달렸다. 李縣監은 原州牧使 洪霽에게 李仁居逆賊 一黨의 陰謀와 舉動狀況을 報告하고 早速히 軍兵을 動員해서 橫城으로 進軍할 것을 建議했다.

李縣監의 報告를 받은 洪牧使는 營將 李胤男과 協助하여 軍兵動員을 서둘렀으나 조금한 動員이 어렵게 되자 逆賊들의 勢力이 滋蔓해질 것을 우려하여 爲先 動員된 軍兵만을 引率하고 三方路(只今の 包圍作戰인듯 함)로 橫城을 目標로 進攻 했다.

이 때에 橫城縣館을 占領하고 氣勢 凜凜하게 亂動을 부리고 있던 逆賊一黨은 大部分의 무리들이 危急함을 느끼고 魂飛魄散하여 逃亡 쳤는데 仁居 四父子와 則近의 徒黨 一部는 原州로부터 進攻해온 官軍과 마주쳐 接戰하다가 끝내는 모두 被執되고 말았다.

仁居四父子는 被執된 即時 京師로 執送되고 朝廷에서는 이들 四父子를 市에서 斬首하니 李仁居의 不義한 反亂은 一時的인 亂動으로 끝났으나 이 反亂으로 因하여 橫城縣은 仁祖五年 부터 十年間이나 廢縣 되었다가 仁祖十四年에 다시 復縣되는 沿革上的 變遷이 있기도 했다.

反亂이 平定되고 朝廷에서는 이 反亂을 討伐하는데 功勳이 컸던 六名の 功臣을 발탁해서 「昭武功臣」이란 勳號를 내렸는데, 原州牧使 洪霽(豐寧府院君으로 追封)는 一等功臣이 되었고 橫城縣監 李擢男(鰲山君, 李恒福의 從子)과 元克成(成安君, 判書 元天錫의 八世孫)은 二等功臣이 되었으며, 原州地方의 營將 李胤男(原城君)과 辛應英(寧原君으로 追封), 陳克一(辛昌君縣監으로 追封) 등은 三等功臣이 되었다.



내 故郷 台五地

任 教 淳

(韓國文人協會原州支副長)

내 故郷은 橫城郡 安興面 所思里 台五地라는 마을이다. 面所在地 安興에서 北쪽으로 8 km지점에 山村 마을이라 덧재란 고개를 올라가야 하고, 隅川面 所在地에서는 東쪽으로 4 km 지점에 면화재를 올라야하는 高山村에 송림이 우거진 산속에 여기저기 흩어진 50 여호의 초가가 마치 동화속에 나오는 집처럼 송림속에 들어 있었다. 내가 태어난 집은 윗마을 다섯집 틈에 제일 산속에 깊이 박힌 집이었다.

내가 나를 알 나이가 되면서 산모퉁이 하나를 지나서 자작나무 고개 밑 외딴 집에 살았던 기억이 난다.

아직도 내 눈 속에 삼삼하게 어리는것은 멀리 원주 치악산 시루봉이 바로 우리집 안방문을 열기만하면 바라 보였다. 아득히 먼 산, 그 산이 명산이라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치악산 시루봉이 구름으로 가려지면 꼭 비가 온다고 하셨고, 시루봉이 또렷하게 보이면 날이 개인다고 하셨다. 그 때 나는 학교 갈 때면 버릇처럼 산을 바라 봤었다. 시루봉이 보이질 않으면 비를 맞고 덧재고개를 넘어 2십리 학교길을 갈 근심을 했었다. 늦가을 메밀밭가로 흙벼 비맞은 몸에 책보를 가슴에 차고, 책만은 적시지 않으려 했던 그 때의 책은 많지도 내 가슴을 따뜻하게 해 주었다. 솔잎 끝에 은구슬 같이 맺힌 물방울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송림 속에는 송진내가 많지도 풍겼다. 일제 말기라 학교에 솔쟁이를 따가는것이 숙제였던 내게는 그 배당량을 채우기 위해 소나무 가지마다 솔쟁이를 따고, 손가락을 낮에 찍어 뼈가 드러나 보이던 생각을 하면 지금도 일본 선생이 밧기가 한이 없다.

점심이라야 옥수수 삶은것 서너통을 베보자기에 싸가지고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은 너무도 허기가 저 길옆에 무우밭이나 콩밭을 개개였다고 주인에게 혼

◆ 수 상

나면서도 몰래 무우를 뽑아 입으로 껍질을 벗겨 먹었다. 봄에는 시경, 짙렁(짙레꽃 나무의 새순)을 꺾어 먹으며 용케도 컸다.

해방이 되자 다시 가까거겨를 배워서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졸업식날 아파서 단 상도 들고 가지를 못했고, 중학교에 들어가자 6.25가 나서 담배밭 속에 숨어 지냈다. 중학교 3학년 졸업을 하도록 원주라는 도시를 나가보지 못하고 큰,내가 어찌자고 춘천사범학교를 지망했는지 지금도 대견할 뿐이다.

집에서 몰래 시험보러 떠나던 날 안흥에서 하루 종일 산판차를 얻어 타려고 몇 번을 목탄차 꿈무늬를 기어 올랐다가 쫓겨 내리다가 겨우 밤이 되어서야 맘 좋은 운전수가 태워 준 바람에 원주에 나와 불도 안 때는 빈방에서 굶어 자고 새벽에 버스로 춘천을 들어갔다.

육이오 후라 벽은 없고 기둥만 남은 효자동 어느 여관 터에서 입학시험을 치루고 저녁에 궁둥이가 얼어서 가려워 애를 썼던 기억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다.

그뒤에 사범학교에 입학을 하고 우리집은 내 학비를 벨 길이 없어 경기도 연천 신망리라는 곳에 비무장지대 버려진 땅을 얻어 농사를 지으러 식구들이 이사를 했다.

그 뒤부터 나는 내 고향 태오지를 떠나고 만 것이다.

자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배와 연결된 탯줄을 버린 땅, 그곳이 자기의 고향 이거늘 나는 그 고향을 공부하기 위해서 버렸다. 그리고 선생이 된 뒤 한번도 그곳에 가 근무하지 못하고 전전하여 자랄때 늘 바라보던 치악산 시루봉이 또 바라 보이는 원주에 와서 살게되니 아마도 치악산 시루봉은 결국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한 나의 산봉우리인 모양이다.

언젠가 직원들과 영동지역을 여행 갔다가 고속도로 소사 휴게소에서 잠시 쉬어 온적이 있다. 그 때 나는 바로 내가 크던 집터가 바로 소사 휴게소 자리가 되었음을 알고 무엇인가 빼앗겨버린 허전함에 멍청히 주위를 돌아 봤다.

내가 술검불을 착실하게도 굶어모아 산더미처럼 쌓아 놓은것을 어머니가 겨우 내 부엌 아궁이에 넣어 밥을 지으시던 생각이 났다. 산세는 예나 다름 없지만 집들도 모두 달라졌지만 내 눈속에 다시 어려오는 봉화산 기슭의 울창한 소나무의 모습은 나를 반겼다. 고향을 버리고 배운것이 고작 그뿐인가 하는듯 미안하기만 했다.

“교감 선생님, 여기서 한 수 읊으시고 가야 읊지 않겠습니까?”

짓곳은 직원이 은근히 내 흥을 돋구려 했다.

흥을 돋구어야 아동문학을 전공한 내게는 <방울꽃>이란 동요가 선득 머리에

땀들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깊은 산 속에 쪼로롱 방울꽃이 혼자 폈어요.
산새들 몰래 몰래 꺾어 갈래도 쪼로롱 소리날까 그냥 둡니다.

산바람 지나가다 건드리며는 쪼로롱 방울소리 쏟아지겠다.
산노루 울음소리 메아리치면 쪼로롱 방울소리 쏟아지겠다.〉

“태어난 곳이 이러니까, 이런 동요를 쓰셨군요.”

국민학교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내 작품인것을 알지만 쓰여진 연유는 여기 와 본 사람들만 알 수 있었던 모양이다.

어떻든 〈방울꽃〉노래는 내 고향 태오지와 깊은 인연이 있는 것이다. 내가 내 고향 태오지를 위해서 한 일이라면 이것뿐이다.

고향을 버린 죄스러움, 비단 나만이 느끼는 것은 아니련만 눈 속에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는 옛모습은 내가 평생 지니고 살다가 언젠가는 그러한 幻想 속으로 영원히 살리가야 하는게 우리 사람들의 고향인 것이다.

어찌 살다가 한 동안 고향을 생각할 틈도 없었던 생활, 그 생활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은 고향이다.

고향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도 고향을 잊지 못하는 것은 바로 티 없는 순수 의 동심 때문이리라. 동심 속에 살겠다고 아동문학을 한 내가 어찌면 태오지에 태어난 사람으로는 가장 행복한 사람일것이라고 믿어본다.

나의 모든 작품 속에는 늘 태오지의 모습을 그리게 되었고, 어릴적 놀던 경험이 작품 속에 투영 되어졌던 것이다. 언제 시간을 내어 꼭 한번 가서 돌아보고 오리라 생각하고 있다.

꼭 한번이라는 내 다짐이 헛되지 않기를 빌고 이 글을 맺는다.



어느旅人이 일깨우는 鄉愁

李 振 雨

旅行하는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故鄉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故鄉이 어디인지 住所까지 모른다는 그 사람은 여섯살까지 살았다는 故鄉山川에 대해 너무나도 생생하게 잘 알고 있었다.

눈이 녹을 무렵이면 벌써 꽃봉오리를 맺는 나무들, 여름철 산새 및 풀벌레의 노래잔치, 가을 밤 나무끼는 옥수수 조밭, 눈덮인 산봉우리, 산아래 펼쳐진 전원과 집 주위 큰 나무들, 여러가지 꽃, 진귀한 풀, 서너채의 집들이 산중턱에 제비집 같이 둘러 앉은 전경이며 계절이 뚜렷한 삶에 어울려 人心 또한 네것 내것이 없이 돕고 나누어 사는 이웃과 이웃.

그가 살던 故鄉을 실감있게 그려가며 토로했다. 마치 화가가 한폭의 그림을 그리듯이.

집 뒤 수없이 제멋대로 들어선 밤나무, 열매철이면 떨어지지 않았나 하고 새벽에 밤나무 밑을 찾아 헤매던 일도 바로 어제 있었던 일처럼 이야기 하지 않는가?

父母가 생활의 터전으로 임시 집을 풀었던 그곳. 그의 뇌리에 새겨진 그곳의 상은 너무나도 생생한 것이다. 지금은 周邊 人的 狀況의 變化로 그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世上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記憶되고 회상된다는 것이 그의 結論이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한 地域에서 修學을 같이한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모습도 그려 보고, 옛 情이 얽힌 橫城의 山川과 흙을 밟아 보고 싶은 衝動 때문에 故鄉을 向하는 마음을 억제기에 고심도 하였다.

그 사람의 말에서 分明히 느낄 수 있었음은 鄉愁가 마치 필름처럼 찍혀져 있어서 어떤 契機가 되면 저절로 풀리어 再現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묘사에 그치지 않고 一種의 얼이 담긴 眞實의 吐露였다.

智慧로운

눈동자를 살며시

굴러
미소하는 입술

차례로 한오리씩
올과 날이
풀려

눈부신 햇살처럼
빛나는
따사로운 故鄉
그이의 품이런가?

이렇듯 客地에서 살아 가는 마음은 울없는 집 같이 허전하다. 마음을 활짝 열고 살 수도 없고 항상 正常에 가깝고 合理的인 生活을 追求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공격의 화살과 증오의 눈길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懦弱하거나 卑屈하지도 않는다. 恒常 開拓 하는 굳굳한 意志와 勇氣로 鬥을 創出한다.

鄉愁를 느낀다는 것은 나의 發展을 위한 跳躍이고, 앞을 바라보는 것은 貧心에 希望을 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素望스럽게 간직하고 있었다.

나에게 주어진 지난날의 쓰라린 體驗과 苦痛은 앞으로 더 큰 世波를 헤치고 나갈 勇氣라고 하였다. 悲壯한 覺悟로.

父母의 따뜻한 情도 모르고 不幸하게 成長한 남매가 熱心히 일하고 있다고 하였다. 아련히 그려지는 지난날 행복하지 못한 事緣으로 굳어진 가슴에는 뿌리칠 수 없는 되새김으로 그들이 掩襲하여 오지만 그 많은 시련은 來日의 完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그는 울음든 눈 빛으로 鄉愁에 젖고 있었다.

여름 한 낮의 소낙비는 사정없이 車窓을 두드리고 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시원함을 느꼈다.

季節의 窓너머로
저만큼 떠드는
그대들의 詩語



◆ 수 상

두 손 성큼 내대어
받아 주어드니
뚜옥 뚜옥
車窓으로
미끄러져 덩구는
너는 수정같은 詩語들



가슴
가슴에 스미는
自然의 그림이어라.

우리는 이렇게 旅程이 닿는 곳까지 鄉愁에 젖어 있었다. 비에 젖어 있었다.
모든 것들이 우리를 爲해 存在하는 듯 母情의 포근함 같은 것을 느끼면서……

江原 橫城 隅川 法周里 出生
30才에서 橫城郡內校서 勤務
32才까지 原州市 鶴城校에서 勤務
現住所 淸州市 司倉洞 289-16 (自家)
電話番號 62-4344 筆名 델비



토끼해에 코끼리를 생각하며

유 수 루

오랫만에 고향집에서 맞는 새해 아침이다. 오늘따라 성당과 교회의 종소리가
성수롭게 들리고 百世盛都(백세성도)의 시가지가 활기차며 웅장해 보인다.

사업을 한답시고 이리 저리 뛰다보니 어느새 고향을 떠난지 세해가 지나고 네
해째를 맞게 되었다. 고향을 떠나려 할때 어머님과 형님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말렸지만 한번 결심한 것을 번복할 수는 없었다. 산야의 한마리 토끼가 되어
달리고 또 달렸다. 달리다 지치면 한그루 소나무 밑에서 고향과 부모님과 친
구들을 생각 하면서 가쁜 숨을 몰아 쉬었다. 이 쉼은 다시 힘을 주었고 그
래서 더욱 힘차게 달릴수 있었다. 한 등성을 넘고나면 더 높은 산이 놓여

있었지만 부지런히 달려보니 넘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산은 넘어도 끝이 없다. 달리고 쉬고, 쉬고 달리고…….

이 경주는 끝이 없겠지만 나는 달리고 또 달리리라. 동화속의 토끼처럼 낮잠을 자서는 안되고 별주부전의 토끼처럼 간계를 부려서도 안되리라.

토끼해의 첫날 아침에 코끼리를 생각해 본다. 토끼는 우리나라 산에도 많으니 까 잘 알겠지만 코끼리는 열대 지방에 살고 있으니 그 습성을 잘은 모르겠다. 그러나 언제 부터인가 나는 코끼리를 마음속에 그리고는 한다.

우선 그 걸음 걸이 부터가 마음에 든다. 바쁘게 없이 뚜벅 뚜벅 걷는다. 몇 걸음 걷다가 하늘 한번 쳐다보고 긴 코를 한번 내 휘드르고는 크게 소리한번 치면 밀림이 흔들리는 것 같다. 그리고 앞을 향해 우직하게 걸어간다. 토끼는 주위 환경에 너무 예민해서 두귀를 쫓긋거리지만 코끼리는 큰 귀를 아래로 늘어트리고 새소리, 바람소리, 다른 짐승들의 소리를 듣는지 마는지 모두 삼켜 버리고 그냥 걸어간다. 넓은 들판을 향하여. 그러나 더욱 내 마음을 사로 잡는 것은 코끼리의 최후이다. 내가 듣기로는 코끼리는 생명이 다 했다고 생각되면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자기가 태어난 굴속으로 돌아가 조용히 마지막을 맞는다고 한다. 초원을 누비고 유유히 살다가 태어난 굴속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는 코끼리아 말로 삶과 죽음을 아는 영물이 아닐 수 없다.

이 토끼해의 아침에 코끼리를 생각함은 결코 웃은 일이 아니리라.

토끼처럼 달리되 마음만은 코끼리처럼 뚜벅 뚜벅 걷고 싶다. 코끼리처럼 초원을 누비며 살되, 내 고향에 내 영혼을 잠들게 하고 싶다.

고향을 위해 조그만 일이라도 해 보아야 하겠다.

새해 새아침. 고향의 맑은 공기를 마음껏 들여 마셔 본다. 이처럼 상쾌 할 수가 없다.

섬강아. 더 힘차게 흘러다오!

화성 별아 더 기쁨져 다오!

정묘년 일월 일일

〈前 문화원 이사〉

홍천가스상사

춘천주류합동 사장



애 정 교 육

송 수 영

아동 교육에 있어서 가장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애정 교육이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조건이 구비된 교육일지라도 애정 없는 교육이란 무미건조한 것이며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기 힘들게 되는 것이다.

가정에선 부모의 사랑, 학교에선 교사의 따뜻한 애정 교육, 이 어느 것이나 아동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건이라 보겠다.

어느 날 사회 시간이었다.

단원이 편지 쓰기라 우선 예문을 읽어 주고 자기가 누구에게든 편지를 써보 내자고 했던니 아이들은 저마다 공책에 머리를 끌어박고 퐁퐁거리며 쓰고 있었다. 이것을 책상에 앉아 바라보고 있노라니 나도 누구에게든 편지를 써 보내고 싶은 생각이 났다.

그러나, 받을 사람의 얼굴이 영 떠오르지 않아 멍하니 창을 바라다 보다가 아이들에게로 조용히 눈을 돌렸다.

그런데 “혜옥”이가 나처럼 창을 내다볼 뿐 편지를 쓰고 있지 않았다.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다른 시간에 보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우등생인 혜옥이가 오늘 따라 울적한 얼굴로 연필을 든채 앉아 있는것이 무슨 곡절이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지금의 혜옥이의 생각의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다.

얼마를 석상처럼 앉아만 있던 혜옥이의 고개가 차차 숙으려 지더니 가볍게 어깨가 들먹이고 있었다.

옆에 영희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눈으로 나를 힐끗 바라본다.

이 때 끝종이 울렸다.

아이들이 혜옥이의 울음을 짐작하고 “선생님, 혜옥이 운데요.” 하고 소리친다.

그러자 혜옥은 더 큰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다.

참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아이들에게 이유를 물어보아도 모두 모른다고 했다.

시간을 끝내고 혜옥이를 불러도 오지 않는다. 할 수 없이 혜옥이 자리 옆에
가 앉아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는 이유를 물었더니 배가 아파 울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도 분명치 않았다. 나는 혜옥이의 울음에 이유를 다시 곰곰히
생각하다가 “혜옥아 공책이 눈물에 젖는다.” 하고 공책을 팔굽에서 빼었더니 거
기에는 “엄마” 라고만 썼을뿐 다른 것은 없고 눈물로 공책장이 얼룩져 있었다.

얼핏 생각하니 혜옥이는 엄마가 생각나서 울었음이 틀림 없었다.

혜옥이의 엄마 아빠는 생활 관계로 진해에 가 있고 혜옥이는 할머니댁에 있기
때문에 엄마가 보고 싶고 그리워 울었으리라 믿어졌다.

이처럼 여덟살 난 어린 것이 엄마를 그리워 편지 첫 서두만 쓴채 창 밖으로
엄마를 생각하다가 울어버린 것이 한없이 마음 아팠다.

울고 있는 혜옥이를 꼭 안아 주면서 무어라 위로해 주어야 할 말이 없어 나
는 멍하니 창 밖을 내다보며 어디선가 이것을 모르는 혜옥이 부모의 모습을 그
리며 부모가 있으면서 고아같은 외로움에 흐느끼는 혜옥을 맡은 나는 고아의 보
모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 애정 결핍의 측은한 모습을 돌려 보내고, 아동 교육에 있어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애정 교육이라는 것을 나 혼자 속으로 뇌까리며,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지렁이속에 뉘시를 생각하자!

권 용 환

동녘하늘이 흰해지면 온세상이 회색에서 밝아지며 유난히도 새벽별의 영롱함이
새삼 어느 이름모를 소녀의 눈빛이다.

바쁜 발길에서 소스라치게 발자욱 소리 요란하다.

지루하고 우중충한 장마로 무거워진 초목들이 조용히 기지개를 펴는 미명에 파
리뉘시대를 자전차뒤 바에 찌르고는 앞내 독을 천천히 오른다.

이제는 꽤 밝아진 아침! 물소리만 부서지는 아침!

아직 날 샌줄 모르고 울어 대는 이름 모를 벌레들의 가느다란 외침! 멀리 산

◆ 수 상

구렁에 히뿌연 안개는 옛날 산수화 같고 신선이 바로 승천한 뒷여운이 서려있다.

꿈실대던 새벽잠 없는 노인이 몽당담을 허리에 끼고 논 두렁 이슬 구슬을 부수며 허리 굽혀 물고기를 조정하며 녹은 담배를 힘껏 빨아 이빠진 여원불이 애처롭게 패인다.

검녹색의 봉우재 산위 하늘이 어찌 그리 깨끗한지 천사의 손수건을 물에 적서 펴 놓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며 미명에 밝아온 그 황홀함을 감탄하며 상류 쪽으로 뚝을 계속 올라 가고 있었다.

이때였다. 꽤 멀리 저쪽에서 이상한 몸짓을 하며 무엇을 쫓는 형상이다.

나는 낚시 할 곳을 찾으며 자전거에서 내려 그곳을 유심히 볼수 밖에 없었다. 한 오십이 넘는 남루한 옷을 입은 첩지가 발로 땅을 구르며 팔로 허공을 치며 무엇을 쫓고 있는 것이다.

『뛰-이! 뛰이! 집에가!』

『정-이-잉!』

혀로 날름 코 주위를 핥는다.

『복실아! 집에가 있어! 내 밥 얻어 올게!』

열 발자욱 뒤에 살이 토실 토실쩍 누런 증강아지가 원망스럽다는 몸짓으로 그 첩지를 쳐다 보고 있다. 그 첩지가 몇 발자욱 가면 어슬렁 슬금슬금 또 거리를 조정하며 따른다. 드디어 화가 난것 처럼 소리치며 돌을 들어 더 크게 소리치고는 강아지에서 멀리 겨냥을 하여 던진다.

강아지는 그제야 포기 한듯 꼬리를 밑으로 깔고는 뒤 돌아서 오다가는 주인을 두어번 보고는 집으로 향한다. 그 첩지도 부차 마을 어느 동네로 자취를 감추었다. 복실이 가는쪽을 보니 뚝밀 갯가에 움막을 짓고 사는 걸인 집으로 들어 간다. 울타리도 없고 뜰도 마당도 봉당도 없는 알오막한 움막이다. 원시시대 빈민 굴의 집 같기만 하다.

집을 지은 소재들은 자연에서 채취한 전혀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지은 집이다. 좀 멀리서 보면 무슨 두엄 데미 같고 나무가리 같기도 하다. 그 집의 주인인 걸인 첩지는 이름이 아마 최선삼(最善삼)일 것이다.

최선삼씨는 육년 전 어느 따뜻한 봄날 이리로 이사를 왔다. 노천에서 며칠을 지내다 움막을 만들고 움막을 만든지 얼마 안가서 애를 업은 여인과 동거 하더니 몇 달 안가서 그도 안보이고 이내 혼자 지내는 것이다. 기분이 내키면 하루 또아리를 서너개씩 삼는다.

아침 일찍 행장은 또아리 여나무 개를 끈에 꿰어 어깨에 메고 앞에는 비닐로

주머니를 만들어 목에 걸고 한손에는 나무 지팡이를 잡고 한손에는 짱통을 들었다. 머리에는 때묻은 수건으로 가로 질러 동여 매고 옷은 허리가 긴 나일론 겹 잠바에 바지는 다 떨어진 예비군 바지를 입고 신은 농구화 짝짝이를 신은 것이다.

나는 강아지와 최선삼씨의 아름다운 정경에 나는 한참이나 물끄러미 보다가 이내 낚시 할 곳을 찾았다. 여울살이 센곳을 택하고 낚시대를 뽑아 올리고 바지가랭이를 무릎 위까지 걸어 올렸다. 흰 고무신을 신은채 물에 들어 섰다. 장마 끝이라 개울은 깨끗이 씻기웠고 돌맹이도 이끼 하나 없이 깨끗 하기가 그 지 없어 김치독 생각이 난다.

어려서 어머니께서 이런 깨끗한 납작한 돌을 주워 오라고 하셔서 귀찮던 생각이 떠오른다. 일년 내내 양말 속에서 하얗게 탈색된 하얀 발이 생명의 목축임을 맞보며 흡족한 향연에 산뜻한 냉기를 느낀다.

이온 현상이 있음인지 매우 상쾌한 기분이 생수가 녹아 흩어진 맑은 공기는 우주 자연 섭리의 오묘함은 새삼 절실함을 느낀다.

나는 물 가운데로 들어 갔다. 물살이 내 다리를 흔든다. 물 건너 편에는 어느 아주머니가 걸레와 이동변소(요강)을 들고 나와 빨고 닦아 옆에 놓고는 그 산삼 썩은 좋은 물에 세수를 한다. 고급팩 맛사지 그 어느 것보다 더 시원하고 피부에 탄력을 주었으리라. 어린 손주가 따라 왔다가 울면서 세수를 당했다.

나는 낚시를 드리 왔다. 모형 과리를 네개쯤 낚시에 매고는 피래미가 놀만한 곳으로 낚시를 끌었다.

고기가 툭 치는 감각이다.

『아! 이놈들이 배가 덜 굶은 모양 이구나!』 하는데 낚시대에 충격이 왔다. 나는 떨어질세라 조심스레 들었다. 팔뚝이며 끌려 왔다. 피래미는 성질이 급하여 금방 맥을 놓는다. 피래미는 꽤 큰것이 은빛 비늘을 번뜩였다. 등에 녹색색이 신선 함을 준다.

고기뜰대에서 마지막 힘을 다하여 입을 벌떡이며 팔뚝 팔뚝 뛰어 본다.

물길 따라 조금씩 내려가며 계속 낚시질을 하였다. 두탕끼(두공기)는 잡았을까? 한 두시간 쯤은 흘렀으리라 동쪽에 붉은 해가 솟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시작 되었다. 나도 이젠 집엘 가야 한다.

수돗가 대야에 고기를 쏟으며 『여보! 이 고기좀 봐요!』하고 으스 대면 아 이들이 뛰어 나와 손으로 주물러 버린내 난다고 할머니께 야단을 맞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낚시 해서 잡은 고기는 왜 그리 자랑스러 울까?

낚시인(태공)들의 공감의 동심대일 것이다.

마지막 운(재수)없는 놈을 뜰대에 넣고는 아쉬움의 큰 호흡을 하곤 물가로 나왔다. 혈압이 정상으로 간것 같은 거뜬한 몸과 마음임을 확인하며 낚시를 접어 놓고 자전거 세워둔 쪽으로 나왔다. 저 멀리서 중얼대는 소리가 들렸다.

『징-징-! 까응잉-! 쾡쾡응...!』

『그래 가자 맛있는 먹을것 많이 가져 왔다.』

『끄응-쾡!』

『글쎄 빨리 가자니까? 가자 가!』

중얼대는 곳에서 시선은 머물렀다.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정경이 사랑의 교향곡이 찬란하게 들려 온다. 걸인 침지 최선삼씨가 돌아 오는 것이다. 꽤 무거워 보이는 주머니와 깡통에 가득한 국 궁물과 밥 그리고 섞어진 반찬...

얼굴에도 기쁨 보람 만족이 가득하다.

돌을 던지며 야단쳐 돌려 보내던 강아지와 최선삼씨의 두 시간의 이별이 그렇게 안타까와 저렇게 반가와 어쩔줄 모르는 저 모습이 이상하게 생각되어 진다. 최선삼씨가 우거지 상을 하고 죽을 시늉을 하며 대문 밖에서 『밥줄 줘쇼』하고 한바퀴 돌라치면 크고 작은 건궁들이 못볼것을 본것 처럼 당장 밥 뒤통지를 물것 처럼 기를 쓰고 짚어대는 최선삼씨인데 어찌하여 저 복실이만은 그렇게 반가와 하는 것일까? 동물은 인간의 걸치레와는 무관하며 먹여 주는 고마움과 식도락의 본능에 기뻐할 뿐이며 최선삼씨와 복실이와는 단 두식구의 생계 유지는 동냥으로 끼니를 이어가는 가운데 아편장이의 의리와 분비되는 정과 사랑을 소모 할 곳이 복실이 밖에 없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정경에 감탄의 비명이 감탄의 환호가 폭음되어 흐른다.

최선삼씨와 복실이 사이에 이해관계와 탐욕과 기만과 음모 술수와 본능까지 초월한 정경은 참 삶의 예술이며 진리의 교향시이다.

돌아 서려는데 뜰대 속의 고기가 크로즈업 되었다.

배쪽이 누렇게 썩기 시작하며 뻗뻗이 굳어 버린 무의미한 시체들-!

공복에 허덕일때 난데 없이 맛있는 파리가 떠나려오는 행운을 놓칠세라 양보도 없이 먼저 욕심을 부려 먹으려 했고 삶은 각박한 것이다. 모든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난 살수 없다. 정과 의리는 성공 후에 말하자 비굴함과 아첨이 지름길이다. 현대는 돈과 권력에 노예됨은 어쩔수 없는 운명이다. 문명은 아름다운 탐을 쌓고 그 속에서는 타락과 쾌락과

◆ 수 상

길 양옆에서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바람에 흔들리던 코스모스는 순전히 우리 식구를 마중하기 위하여 그곳에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멋도 모르고 좋아하며 재잘대던 언니와 나와 동생은 우리집이라며 차가 선곳에 내려서 방 세칸에 마루 하나 부엌 하나 달린 초가집을 신기한 듯 바라 보았다.

이삿짐을 묶은 밧줄을 풀고 있을 때 언제 오셨는지 동네분들이 짐을 내려 방에 까지 옮겨 주셨다. 부엌이라곤 불때는 시커먼 아궁이 하나에 부뚜막은 홀홀로만 바른 2 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부엌집을 챙기시는 엄마는 딸만 셋을 둔 34살의 젊고 예쁜 엄마였다.

‘딸만 셋이래’ 하며 수근대고 쳐다보는 동네 사람들의 눈길의 의미도 모르는 채 어린 우리 삼형제는 마냥 신기해하며 엄마 뒤만 졸졸 따라다녔다.

수도 꼭지에서 ‘썩’ 소리내며 나오는 물만 보아오다가 가장자리를 돌로 가지런히 쌓은 우물에 맑은 물이 고여 있는 것도 보았으며, 그 물을 바가지로 물동이에 퍼 담아 또아리를 받쳐 이고 집으로 가시는 엄마의 뒷 모습이 마냥 좋아만 보였다.

수도물을 받아 나무 빨래판을 대고 빨래하던 엄마가 넓적한 바위에 앉아 졸졸졸 소리내며 흐르는 시냇물에도 빨래를 하시는 것도 신기했으며 돈 안내고 쓰는 물이 어디서 그렇게 자꾸 자꾸 흘러 오는지가 궁금했다.

6학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학교에 선생님이 일곱분 뿐인것도 이상했으며, 엄마가 곱게 땀아 준 긴 머리에 달린 빨간 꽃리본을 보고 얼굴이 까무잡잡한 아이들이 수근거리는 이유를 몰라 어리둥절 했다.

학교가 파하고 집에 갈 때, 책보를 허리에 동여매고 검정 고무신을 신고 덜그럭대며 잘도 뛰어가는 아이들 틈에서 책가방을 어깨에 메고 빨간 운동화를 신은 나는 헉헉대며 뒤쫓아 가기에 바빴다. 한참 뛰어가다 숨이 차 길 옆 바위에 앉아 숨을 헐떡일때도 코스모스는 나를 보고 싱긋 웃어 주었다.

새벽이면 엄마가 깨우는 소리에 졸리운 눈 비비고 일어나 집 앞 밤나무 밑 풀숲을 살살 헤치고 살펴 보면 통통하니 살이 쥘 알밤이 이슬이 동글 동글 맺힌 채 가만히 누워 있고 허리에 찬 종두리가 점점 무거워지면 삼형제는 의기양양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가을이 훨씬 깊어 지고 황금들판엔 벌 서는 허수아비가 여기 저기 늘어나면 우리는 4 홉 소주병에다 메뚜기를 하나 가득 잡아 오기도 하는 시골 아이가 되어갔다.

누런 벌판 여기저기 이발을 시작하면 명칭한 허수아비는 점점 심심해지고 부
 갓집 선순이네 집 마당엔 동네 아저씨들이 모여 손발 착착 맞춰 ‘와롱와롱’
 탈곡기를 잘도 돌리고 우리 아버지 키보다 훨씬 더 큰 도리깨란 것으로 깔린
 벧짚을 휘휘 매질하느라고 온통 법석대면 아이들은 넘적한 누룽지 하나씩 입에
 물고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고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면 마당 한 데 산더미만
 한 벧가마가 쌓였다.

풍성한 수확음 선물하던 가을이 서서히 겨울을 맞을 차비를 시작하면 코스모
 스는 뾰족한 씨를 쑥 내밀고 작별 인사를 했다.

× × ×

그때 그렇게 젊고 예쁜 엄마는 주름살 투성이의 54세의 시골 아주머니로 변
 하셨고, 언제나 함께 손잡고 다니던 언니는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으며 둘째 딸
 이던 나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가슴 깊이 꼭 간직하고 있던 21년전 그 가을을 가만히
 들추어 보고 싶은 충동이 인다.

이 가을이 다 가기전에 나를 선생님이라 부르고 따르는 내 아이들에게 가을
 하늘 보다 더 푸르고 높은 사랑을 심어 주고 싶은 마음 간절하니 이 또한 가
 을이 준 선물이 아닐런지.



설날을 기다리는 아이

이 연 승

열 밤
아직도 열 밤
손가락을 곱는다.

열 밤만 자면
나이 한 살 더 먹고
키도 요만큼 큰다고

할머니 얼굴에
주름살을 퍼면서
손가락을 썬다.

손가락 끝에서
아빠가 오고
삼촌도 오고

마지막 짚는 손가락에선
나이 한 살 온다고
더 좋아한다.



< 횡성 공근면 삼배리 출생 >

< 영월군 교육청 근무 >

말 없는 싸움

이 연 승

순아네 닭
철이네 닭
울 밑에서
싸움을 한다.

푸득
푸득
푸드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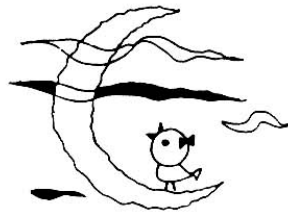
옆치락
뒤치락
싸움을 한다.

순아, 철이
모여 앉아 구경하다가

철이네 닭이 지면
철이 주먹 부르르

순이네 닭이 지면
순아 얼굴 푸르락

둘이서도
말없는 싸움을 한다.



가야금 산조

김 성 수

1

질감 고운 꽃잎이 떨어지는 소리다.
꽃잎을 물고 온 바람이
쌓이는 소리다.
꽃사태에 밀리는 나비떼
수없는 나비떼의 찬란한 비상이다.

2

아지랑이 속에서 접질을 벗는
눈부신 햇살의 변신
스스로 울리는 맑은 음향이다.
새롭게 일어서는 시간의 살점 위에
반짝이는 언어가 되어
일상을 벗어나는 따가운 울동이다.

3

신명들린 새떼가 날고 있다.
푸른 翺乎, 끝없는 공간 위를
낮게 또 높게 솟구치면서
날개짓 하나 하나에
의식의 새 바람이 인다.
빛나는 하늘자락
자욱히 나무끼는 시공
지금 이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신명이 들려 흔들리고 있다.
뜨거운 사랑을 윈크하면서

4

아른아른 봄밤이
두견이 소리로 깊어가는데
육간대청에 주렴이 걸치고
흰 옷의 무희가 춤을 춘다.
하늘하늘 실버들인양
꼭고 섬세한 몸놀림
열두폭 긴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화관 쪽두리에 황금용잠
불빛에 더욱 빛난다.

5

가야 처녀들의 정겨운 뉘이
달빛에 녹아
천년을 흘렸는데
그 흐름 애절한 이랑마다
조용히 구비치는 꽃다운 사랑
지금도 출렁이는가
눈에서 눈으로
핏줄에서 핏줄로 이어진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강
영원히 푸른 물결이어

6

청자 향아리에 바람을 담는다.
바람에 묻어 온 옛향기를 담는다.
복사꽃 곱게 피던 밤골 언덕
가실과 설씨녀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설 속에 되살아 날 때
청자 향아리 속엔
신라의 바람, 신라의 하늘이
고요히 숨쉰다.

7

정유사를 부른 다감한 아낙이
귀밝은 사립문을 여는 소리다.
사립문 들어서면 낭군의
신발끄는 소리다.
마당엔 가득한 달빛
달빛 속에서 무르익은
포용의 숨결소리다.

8

영지에 몸을 던진 아사녀의
슬픈 사랑이 구비구비
출렁인다
아가의 혼이 살아 숨쉬는
에밀레종의 여운이
멀리 멀리 물결친다.
황룡사의 노승도에 날아든
순진한 참새떼……
솔거화백의 물감 푸는 소리
은은히 들린다.

구름꽃

곽 영 기

회개, 검게, 붉게
보노라면 달라지는 꽃

하늘밭 이랑마다
思惟의 꽃이 핀다.

一遇의
생명들에게
鄉愁를 주는 꽃이 핀다.

새털구름, 목화구름
무지개 리본을 달고

정갈하고 아늑한
환상의 꽃을 피운다.

영혼의
源流가 있는
사랑의 꽃이 핀다.



통일로 주변

곽 영 기

야즈막이

깔리는 안개

농가 몇 채 삼켜버리고

삼각산

바위들이

석양을 거부한뒤

이 길의

핏빛 사연을

모르는척 달이 뜬다.



그 음 달

김 기 원

남빛 火炎으로 칼날진
네 푸른 눈시울은
어느 族屬들의 모진 心腸을
그토록 疾視한 눈빛이나
술방울 지새든 주정뱅이는
네 눈길을 더듬어 가고
판돈을 몰아쥔 도박꾼은
네 눈길을 숨어서 간다.
담장을 넘든 밤도적도
不貞한 밤을 지낸 女人도
걸레쪽 같은 良心을 들고
총총히 네 눈길에 쫓겨 간다.
黑白이 交代하는 時刻에
네 발길을 催促하던 陽明은
마침내 동녘에 불을 지르고
毒燃진 네 눈빛을 漂白한다
너는 차라리 그 불길속에서
간여린 白骨로 焚身하는
앙칼진 눈매의 어진 媼人



無言의 歸路

金 基 元

서슬이 亂飛하는
 太白의 峻嶺은
 차라리 不毛의 沙漠
 硝煙이 하늘을 휘감는
 殺傷이 狼藉한 激戰의 場
 여기는 「피의 陵線」

검은 하늘을 수놓는
 五星의 信號彈이
 灼熱하는 時刻
 千斥…… 萬斥……
 鐵重한 肉身을 몰아
 빗발치는 彈雨 밑을 걷다.

八부썸의 突擊線에서
 銃口는 敵陣를 노리고
 信號彈은 불을 탄할때
 공을 부는 小銃 소리
 하늘을 찢는 機關銃 소리
 새벽하늘이 불에 탄다.

산울림이 波濤치는
 突擊의 고향 소리
 突進을 가로 막는
 방망이 수류탄 터지는 소리
 피를 토하는 兵士들의 悲鳴
 死境을 突進하는 勇士들이여.



핏물이 흐르는 언덕바지엔
 流血의 勇士들이 쓰러져 울고
 戰屍들이 뒹굴어 모인 幽谷은
 怨魂들의 우는 소리
 社神이 우는 소리
 아! 悲痛한 修羅場이여.

살점을 꼬집는 刹那
 意識하는 나의 生死
 한아름의 바위 그 아래로
 가로막힌 天命의 歸路
 발밑으로 스며 밟히는
 귀를 울리는 핏물 소리여.

不具의 單身은
 秋風에 뒹구는 가랑잎
 痛恨은 浪浪한 피눈물인데
 灰色의 戰意는 되 살아
 丹心の 任務를 意識하고
 외치는 突進…… 突進이여.

安堵의 死角地點은
 어진 救命의 손길이 다른 곳
 落葉으로 쌓이는 昏睡 앞에
 코발트色 하늘을 이고
 걸으며 다가 앉는
 仁慈한 九月의 太陽이여.

安息을 呼吸하는 瞬間
 敵彈이 爆發하는 참호 앞에
 噴水로 치솟는 핏물을 이고
 端座한 戰友의 肖像画여
 아! 臨終의 瞬間은
 無言의 歸路 인가.



六·二五 動亂當時 「피의 陵線」 戰鬪에서 勇戰하다 戰死한
 戰友들을 追慕하면서.

1986年 6月 25日

청솔가지

김 성 기

어머니 머리 위에 청솔가지
 가슴 안 沼澤에 애오라지 母情으로 서려
 눈시울에 매달린 젊음을 띄워
 아찔거리는 청솔가지로 얹어놓고
 줄줄이 흐른 벼랑 아린 모퉁이 삭이며
 한 자락 깎던 목숨을 떠 올린다.
 파닥이는 물비늘을 다독이는 근육엔
 저자바구니 냄새로 관솔이 솔고
 살피를 헤쳐 야린 뿌리를 박아 주는 눈길엔
 돌오줌에 큰다는 한 띄기 비탈밭도 사치라서
 바위너설 헤치며 살피를 찾는다.

돌각담 오르는 발길에 햇살을 이고
 떡잎처럼 버려지는 햇살을 끌라
 소금기 데불고 오는 바람을 몽치며
 굶주림에 면역되는 하루들
 가슴에서 뽑아내는 필요가 주는 가르침으로
 술한 시련에 면역된 가슴,
 빈 손에서 부서진 젊음을 끊어
 잃어지는 것은 없힌 가지에 담아
 그날거리는 一生을 심는 마음 넉넉하고
 기미자국 영키는 얼굴엔 웃음도 퍼진다.

여름날 내리 쏟아지는 빗줄기
 솔가지에 불이 붙어
 물결처럼 불결처럼 타홀려 보내고
 드러난 살점엔 아픔도 잊은 신경 마비된 채
 물 속 빠알강개 사루는 代의 가슴
 한 움큼 재를 모뎌 무지개 허리에 뿌리고
 날 세운 빗줄기 사이로
 솔가지의 幼年을 풀어 짜내는 情曲
 잃어버린 모습을 박아 물보라로 덮는다.
 비 오는 하늘에는 비를 맞고
 들리지 않는 단말마에 눈이 먼다.
 바람만 불어도 아려오는 등허리
 빗속에서 비를 맞는다.

감각 잃은 五官을 추스려
 아귀 선 意志 한 번 굽니니
 체념의 뿌리에 어울리는 復生の 몸부림
 퍼득이는 햇살의 무게로 빛이끼 누르고
 비어 텅 빈 가슴 意志를 절여내고
 돌발에서 반사되는 관솔불
 아픔은 썬어 아픔을 밀어 올리고
 상처로 꿰맨 一代의 강물
 목마르게 기억의 안개를 헤치고 길어 올린다.

星屑한 어머니 머리 위에 청솔가지
 辛苦의 껍질이 부들켜 입덧을 앓는다.
 松脂를 썬을수록 가득 고이는 모퉁이 삭이던 세월
 타액으로 흥건히 솟아 흐르는 宿命의 손길
 떡잎으로 버려지는 햇살을 다듬어
 새벽마다 효무를 쏘며 저자바구니로 달려
 市井의 거리에서 빛다발 쏘뜨리고
 돌아오는 모습은 언제나 한갓진 청솔가지였다.



은행나무 회오리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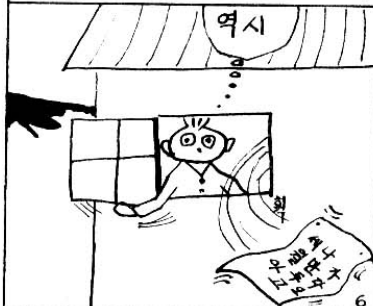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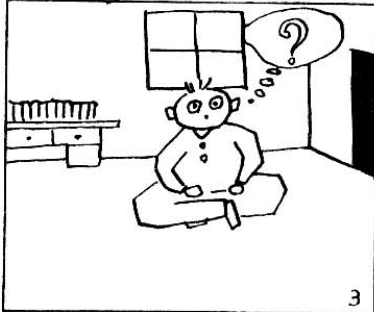
김 성 기

샘물예다 헝커 낸 햇볕에 알맞게 달구어진 바늘이 섞인 것 같은 가을날입니다. 따끔거리는 햇볕에 찢려 노랗게 소리지르는 은행나무에선 바람 한 올씩 잡아 탄 은행잎들이 산마음이 가득하도록 떠나갑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솜씨들이 하늘과 땅이 맞닿도록 커다란 유리 기둥을 만들어 세우기 시작하자 떠나가던 은행잎들도 더러는 뒤돌아서서 기둥을 떠받치곤 빙글빙글 뱅돌리며 동그랗게 깎아 주고 하늘에선 할아버지처럼 마르고 익숙한 손이 내려와 수없는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잘 손질되는 기둥에선 솔잎에 찢려 달아나는 이슬 같은 가을이 유리 기둥을 뱅돌아 오르는 걸 고르자, 가을의 노래가 거기서 뽀뽀나 오기 시작합니다. 노란 은행잎들은 높은 하늘로 오르며 오랫동안 다들었던 가락으로 가을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빨강계 몸달은 풀잎 두엇이 덩달아 흥얼거리는 걸 듣다가 잎이 떠나는 나뭇가지에, 악보의 음표처럼 촘촘한 겨울눈이 박히는 걸 보았습니다. 허리 굽힌 햇볕이 살금살금 걸어가 악보를 한 장씩 펼쳐 주며 더욱 밝게 심지를 돌워 줄 때, 속 맑은 가을의 가락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略 歷

○ 1946년 횡성읍 가담리서 태어나 춘천교육대학을 나온, 1978년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동시가 당선되고 그해 아동문예와 아동문학평론지 추천 완료로 문단에 데뷔함. 지금은 한국 현대아동문학가협회 회원이며, 청일면 춘당 국민학교에 근무하고 있음.

〈연락처 : 2-4255〉



◆ 끽 트 ◆

떠나가는 여름

살갓을 벗겨 버리고 싶을 정도로 폭푹 찜통같은 더위가 마지막 안간힘을 쓴다.

마당가에 있는 배나무 위에 참매미 한 마리가 잠시 더위를 쫓고 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정신없이 낮잠을 자고 있던 김 준구는 부시시 눈을 뜨고 일어나 선풍기의 스위치를 강풍에 놓으며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다.

지난 밤 씨주가 과했는지 김 준구는 찬물을 버덕 버덕 들이키며

“차라리 콧……”

신세타령이다.

좁은 하숙방 구석에서 35살의 노총각 김 준구가 이제부터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맥을 놓고 앉아 있는 김 준구를 딱하게 여겨

“체면차릴 것없이 등목이라도 하시지요?”

상냥한 주인집 딸 이 순미가 곁에 와 측은해 한다.

수은주를 30도까지 끌어올린 띄약은 김 준구의 하숙방을 데워 놓고 선풍기바람을 조롱하듯 물러서지 않고 있다.

누워도 앉아도 시원찮다.

항상 말이 없는 김 준구는 담배꽂초를 재떨이에 신경질적으로 부벼댄다.

“담배 좀 줄이세요!”

이 순미가 애인처럼 말참견을 하고 자기방으로 갔다.

김 준구는 다시 혼자다. 그는 늘 쓸쓸하게 지내는 것이 취미다. 누가 물어도 대꾸할 줄을 모른다.

1주일의 여름 휴가도 6일이 지났다.

방직회사에 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 준구는 나이에 비해 구렛나루 덕분인지 40은 문제없이 보

김 양 수

인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김 준구는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고 사진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다.

빈둥빈둥 여름휴가를 보내기가 아까웠던지 대학시절에 취미로 시작했던 사진 작품을 만들어 보기로 한 것이다.

무작정 걸었다.

아스팔트의 열기를 뒤로하고 시냇가로 나왔다.

찰방찰방 어린이들의 부푼 꿈이 물방울에 영켜 무지개가 되고 시원한 함성이 푸른 하늘을 끌어 내리고 있다.

김 준구는 정신없이 미끄러지며 비탈진 위험한 곳을 내려왔다.

다리 위에 고속버스까지 잡기위해 앵글을 높여야 했다.

쾌속으로 달려가는 고속버스의 속도 때문에 빠른 셔터속도를 선택해야 했다. 자세가 불안정하여 셔터찬스를 놓쳤다. 고속버스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는 15분정도 기다려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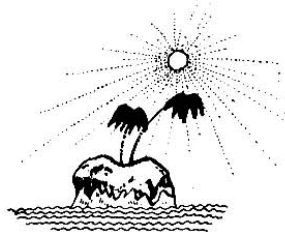
4 번을 찍었다. 한시간쯤 실랑이를 한 끝에 〈떠나는 여름〉을 찍을 수 있었다.

온 몸에는 흥건히 땀이 젖어 있었지만 김 준구는 더위를 느끼지 못했다.

아이들의 물장구 소리도 담았고 활짝 핀 웃음도 놓치지 않았다. 정말 더위는 고속버스에 실려 순식간에 떠나갔다.

진작에 휴가계획을 세워 피서를 했더라면 몇 장의 사진을 만들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았지만 김 준구는 뿌듯했다.

팔딱팔딱 뛰는 월척을 낚아올린 강태공의 심정으로 김 준구는 금빛 휴가를 보낸 셈이다.



태극기

현천국교 5학년 1반

김 현 주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온 태극기

우리의 피와 땀이 맺힌

하나의 씨앗이

쇠기둥에 매달

우리를 바라본다.

국기 사랑은

나라사랑

태극기는 오늘도

높디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상들의

넋을 찾는다.

몽계구름

금평국민학교 6학년
임 영 선

밭에서
농부들이
일하는 모습
가득 싣고

공장에서
언니 오빠들이
일하는 모습
모두 싣고

학교에서
우리들이
공부하는 모습
싣고서

북으로 날아가
알립니다.
“대한민국은
행복의 나라”라고.



국어사랑 나라사랑

성동국민학교 6학년
장은자

“은자야, 오늘 작은언니하고 다 같이 짜장면 먹으러 가지 않을래? 싫으면 그만두고…….”

물론, 나야 싫을리가 없다.

“네 좋아요. 아빠.”

우리 식구는 경운기를 타고 ‘딸딸’거리며 횡성 중국집으로 갔다. 기분 만 점이었다. 엄마랑 아빠랑 같이 외식을 한다는건 드문 일이다.

특히 내가 사는곳은 시골이라서 아빠 엄마는 매일 들일을 하시러 나가기 때문에 같이 있는 시간도 드물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날이라서 같이 외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로서는 기쁠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윽고, 중국집에 도착했다.

“어서노 오십시오.”

우리는 킬킬거리며 웃었다. 그래도 들어오자마자 인사를 받으니 기분은 좋았다.

“무슨 음식이노 드시겠습니까?”

“네, 여기 짜장 네 그릇만 주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주문을 받자 식당으로 가더니 자기네끼리는 중국말로 얘기를 하고, 음식을 날라왔다. 그 사람들의 애국심에 나는 큰 감명을 받았다. 남의 나라에 와서도 자기네끼리는 자기나라 말로 대화하는 것이다.

들어오는 길에 아빠가 아까 중국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하셨다.

“내 생각도 그래요. 우리 사회시간에 배웠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기만 하면 오히려 우리말을 빨리 잊어버리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빨리 영어를 배워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고요. 물론, 대화를 못 하면 답답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왜 우리나라 언어까지 잊어버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유, 우리 막내동이 은자가 아주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먼.”

아빠가 나를 칭찬하셨다.

내가 또 말을 이었다.

“ 화교들은요, 다른나라에 이민 온 자기나라 사람들이 꺾동을 차고 거리를 헤매면 무슨수를 써서라도 굶어죽지 않게 한다고 말어요. 나도 이제부터는 국어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착한 어린이가 되도록 노력 할게요.”

아빠는 내가 기특하다고 하시며 한없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오늘 외식을 나에게 참 많은것을 깨닫게 했다. 나도 이제부터 화교처럼 자기나라 말을 사랑할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

어머니

화성국민학교 6학년

정연순

“피, 엄마는 거짓말만 해”

나의 입은 나올대로 나와 붕어 입 같았다. 내가 이렇게 화가 나 있는건 까닭이 있었다. 요 며칠 전 엄마는 나와 약속을 했다. 요새 엄마는 돈이 생겨 장날이 되면 내 예쁜옷과 신발을 사다 주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다. 오늘이 바로 기다리던 장날이다. 아침부터 마음이 들떠 밥도 뜨는등 마는등 하고는 학교로 발걸음을 내딛었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이다. 학교에서도 내 들뜬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공부시간도 왜 그리 지겨운지 몰랐다. 즐거웠던 점심시간도 지리하기만 하였다. 끝나는 종소리가 울리자 나는 번개같이 가방 들고 대문을 들어섰다. 가슴속에선 북소리가 났다. 그러나 방문을 여는 순간 내 얼굴에는 검은 구름이 졌다. 엄마는 계셨지만 옷 같은것은 구경하기가 어려웠다.

“엄마, 옷하고 신발 어니 있어”

“그런데 그게 말이다”

엄마는 말을 더듬으셨다.

“꼭 사올려고 했는데 다른 물건을 사다보니 돈이 모자랐구나. 그러니 어떻하니, 다음에 꼭 사올께 응”

엄마는 빌다시피 사과를 하셨다.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고였다. 오늘 학교 가서 아이들한테 자랑을 실컷하고 내일 입고 올 거라고 빼기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와서 이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거짓말장이라고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을지도 모른다. 나는 분에 못 이겨 소리쳤다.

“싫어, 싫단 말야, 빨리 사봐”

하고 소리를 치고는 지금은 밖에 나와 쏘아 다니고 있는 것이다. 엄마가 미웠다. 엄마는 거짓말 장이라고 동네 방네 소리치며 다니고 싶었다. 나는 한참 쏘아 다니다가 저녁때가 되어야 집으로 돌아 왔다.

어머니께서 나를 반기셨다.

“빨리 방에 들어가 봐. 깜짝 놀랄 것이 있을 거야.”

나는 방에 들어가 보았다. 순간 나의 얼굴에 있는 검은 구름은 걷혔다. 책상 위에는 포장지로 예쁘게 싼 물건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옷과 신발임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엄마한테 미안 했다. 그래서 속으로 빌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었나 봐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하며 외치고 있었다.



고향의 봄

서원중학교 최 미 정

내 고향 진달래는
유난히도 붉었어라
기우는 노을따라
퍼지는 것 같았지

내 고향 시내는
유난히도 맑았어라
기적이 생길듯이
흐르는 것 같았지
내 고향 바람은
유난히도 시원했어라
기울어 높이 올린
마음과도 같았지

별처럼 반짝이고
달처럼 경건했어라
초처럼 희생하는
내 고향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어라.

이제 다시
내 고향엔
봄 오는 소리가
들리오이다.

내 고향 밭은
머지 않아
눈이 큰 암소를
반가와 할 것이외다.

내 고향 봄이오매
다시 또 흥겨워 하여이다.
즐거움에 희열 있어라
내 고향 산천
이제 다시
푸르름에 휩싸였어라.
고향 그리워함에
아쉬운 생각 있어도
고향 떠나와
그리움 남아 있어라
내 고향
봄에 놀던
그 향기에 묻히어
살고도 싶어라.



금수강산

대동여자중학교 3학년
최 은 경

하늘위 새털구름이
뿌리는 오색줄에
산과 강이 감겼다.

햇살오라기가 터져
찬란히 빛나는 강
별싸라기를 마셔
해맑게 웃는다.

숨쉬는 한강의 가슴속에
나래퍼는 봉어떼
점점이 박힌 잔별의 이야기에
빛나는 소금강

입에 문 아침을 날려
푸르름이 가득한 산
사계절을 띄워 언제나 새로운 산

날아가는 새들의 눈이 부신
설악산 정경
너른 가슴을 한껏 채우는
기암의 웅장함

영롱한 색동과
금실로 짜낸 비단실이 엉킨
미려한 우리 강산



〈 최우수 〉

우리 땅 우리 고향 어사매의 얼이씨

그리운 친구에게 편을 들며

문내중 3학년 권금옥

안녕 보고픈 나의 친구

어느덧 낮게 드리우는 어둠이 작은 마을의 모습을 가리운채 군림하고 여기저기 불빛만이 별처럼 빛나고 있단다.

방안의 나만의 태양을 켜고 이렇게 홀로 앉아 창밖을 본다. 아름답다. 어둠이 조용히 포용하고 있는 동안은 무엇이든지 아름답게 느껴지곤해. 아름다움을 한껏 만끽하다가 불현이 네가 그리워져 편을 든단다. 너와 나는 어릴적에 저수지에서 고기를 함께 잡던 친구지. 네가 도시로 이사간 후론 우리 고향을 잊어버렸겠지. 하지만 나는 밤마다 너에 대한 그리움을 일기에도 토하곤 했단다.

연정아!

안돼 그래선. 우리의 마음을 키워주고 몸도 키워준 고향을 잊어버려선. 혹시나 내가 우리 고향을 잊어버렸을까봐 어제 도서관에서 우리 고향에 관해서 읽을 것을 이 자랑스럽고 행복한 기분과 더불어 전해 준다.

푸른 산과 높은 하늘 그리고 맑은 공기들. 풍요와 절경을 자랑하는 반만년의 찬란한 역사를 지닌 나라 우리 나라임에 틀림이 없어. 너와 나의 작은 꿈에 나라를 한껏 펴고 젊음의 노래를 부르며 영원히 살 보금자리가 바로 나의 고향이 아닌가 생각해.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의 고향 횡성은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쳐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통일의 기반을 다질무렵부터 신라의 통치를 받아 왔었는데 삼국사기에는 어사매(於斯買)라고 기록되어 있어.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겠지만 나는 이 책을 계기로 내가 태어나고 자라며 죽어서 분히갈



나의 고향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 고구려 때에는 횡천이라 불리었는데 이곳의 강물의 흐름이 남북으로 흐르지 않고 가로 즉 동서로 흐르기 때문이래. 그리고 역사적인 활동으로는 일본 제국 주위의 침략에 대하여 자발적이며 순수한 민간운동이 우리 고장에서도 일어났어. 고종 황제가 침략자들에게 쫓겨나고 계속해서 우리의 군대가 강제로 해산당할때 해산된 군대도 합세하여 전에 없이 큰 규모의 의병이 조직되었으며 대규모의 항쟁 운동이 전개되었단다. 언제나 우뚝 높이 솟은 태기산과 특별히 내세울것도 자랑할만한 것도 없는 고장에 태어난 내가 부끄러웠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부터는 나의 고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고 무한한 자신감과 기쁨을 갖게 되었어. 조용히 눈을 감고 책상 앞에 앉으니 침략자들에게 조국을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몸도 들보지 않은채 용감히 장렬하게 싸우는 자랑스러운 조상들의 모습이 눈에 어리는구나. 고 경명 장군, 꺾 재우 장군 그리고 우리고장 출신인 조 충 장군등…….

조 충 장군은 문무를 겸비한 뛰어난 인물일뿐만 아니라 효성 또한 지극하신 분이요 청렴결백하며 끈은 절개와 지극하신 충성심을 가진 분이야. 의병장으로 혹은 의병으로 이슬처럼 스러져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민이요 천민이었어. 그러나 그들은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몸도 들보지 않은채 자신의 몸까지 희생하였으며 부귀와 영화도 스스로 거부한채 불행을 감내하면서 한뼉기 꽃처럼 사라져 가면서 조국의 밑거름이 되셨어. 이렇게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는것 부끄러워. 우린 결국 이렇게 훌륭한 분들의 뜻을 저버려선 안돼. 이분들의 뜻을 받드는 길이 바로 고향을 더욱 발전시키고 훌륭한 전통을 보존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연정아!

마지막으로 너에게 시를 한편 지어 보낸다.

고향은 언제나 어머니의 품같이 아늑하고 파사로우며,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이 깃든 곳.

굽디 고운 명주실로 우리의 지혜를 수놓아 주네.

고향은 보금자리를 찾아든 지친 새들의 안식처.

너와 내가 살 영원한 보금자리.

연정아!

이렇게 아름다운 고장을 더욱 발전 시키자. 그리고 고향에 꼭 한번 놀러와 나와 함께 옛날의 어린 시절로 한번 만이라도 좋으니 돌아가고 싶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럼 너의 앞날에 영원한 행복과 행운이 있길 빌며 너의 학교 소식도 전해주기 바란다.

안녕

1986년 5월 24일

너의 사랑하는 친구가

조

국

대동여자중학교 2학년 김 영 주

뻘뻘히 열린 문틈새로 여름 햇살이 가득 부서져 날리고 있다. 저 멀리선 요란한 경운기 소리가 이쪽을 향해 달려오는데 우리집 굴뚝에선 구수한 저녁 연기가 하늘 가득 피어 오르고 있다. 나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계신 어머니께 대뜸 물었다.

“엄마, 오늘 편지 안왔어요?”

“무슨 편지 말이니?”

“아휴, 엄만 아빠 편지지 누구 편지야, 왔어요 안왔어요?”

“오늘은 안왔어. 그제 왔는데 벌써 또 오겠니 애두 참.”

어머니의 그런 말씀을 듣고 나는 잔뜩 실망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곤 턱을 괴고 앉아 지금 이 순간에도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고생하고 계실 아버지를 생각했다.

아버지께선 작년 이맘때 다녀가신 후론 한번도 집에 오신적이

없었다.

그때의 일이다.

난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마냥 아버지께 졸라댔다.

“아빠, 우리 미국으로 이민가자.

그럼 아빠도 고생 더 하지 않아도 되잖아. 우리반에도 이민 간다는 애들 많단 말이야 웬 아빠?”

나의 이 말에 아버지께선 버럭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우리나라가 싫으니? 공기 좋고 물 맑고 사람들 인정 많고 얼마나 좋으니? 그런데 왜 미국으로 이민을 가니? 친구따라 강남가려고?”

영주야, 이리워서 아빠말씀 잘 들어봐라. 아간 언성을 높여 미안하구나 이 아빠 그 더운 이국땅에서 너와 너희 엄마와 떨어져 있으면서도 우리 식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단다. 언젠가는 따뜻한 가정이 있는 사랑하는 조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겠지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조국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영주야, 너도 물론 학교에서 배웠겠지? 우리 근로자들은 따가운 땀방울이 내리쬐는 이국땅에서 갖은 설움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조국” 그것 하나만을 위해 참고 견디며 피땀 흘리고 있는 것이란다.

이 아빠도 그들중 한 사람이란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단다. 그러니 영주야, 넌 여기서 엄마 말씀 잘 듣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거야. 알았지?

이 살기좋은 우리 조국이 있는데 무엇하러 미국으로 이민을 가, 그렇지?”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듣자 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곤 아버지의 품에 달려들어 울어 버렸다.

“아빠 죄송해요.



이젠 바보같이 이민가자고 안 그럴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살꺼예요.”
아버지는 말없이 훌쩍이는 내 등을 토닥거리 주셨다.
나는 아버지의 검게 그을린 모습을 보면서 다시한번 조국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다.
그리고 난 다짐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우리강산 우리조국에서 엄마의
따뜻한 사랑과 아버지의 굳은 신념을 배우면서 살아가겠다고.
난 지금도 그때의 그 아버지의 말씀이 생생히 기억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뜨거운 햇살 아래서 조국을 그리며 열심히
일하고 계실 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환하게 웃고 계신것 같
다.



민족의 염원

황성여고 2년 허숙이

푸르러만 가는
차가운 창공은
절규하는 민족의
염원으로 가득차고
익어가는 생명의
대지 위에는
민족의 뿌리가
옴터 나온다.

어둠던 비극의 시간들은
지나간 역사속에 잠재우고
한번은
조국을 이룩한 분들께
한번은
이 땅의 분신들께
가슴아픈 절규를 보낸다.

찾게 하소서!
흩어진 민족의 분신을
이루게 하소서!
간절한 민족의 염원을.

우리의 태도

횡성여고 2년 박희자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한다. 비록 미국과 같이 커다란 땅덩이에 풍부한 자원도 없고, 일본과 같이 부강한 경제력은 가지지 못했다하나 그래도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한다.

자기의 부모가 아무리 가난하고 서녘다 하더라도 남의 부모가 재부모 될 수 없듯이 우리나라가 아무리 빈천하다 해도 나는 결코 다른 민족이 될 수 없다며 언제나 나라의 자주독립과 번영만을 염원했던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이 불연듯 머리를 스친다.

우리는 흔히 애국이나 애족에 관해 너무 높게만 그리고 멀리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애국자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애국하는 것은 어떤 국제 대회에 나가 메달을 획득해 국위를 선양한다든가, 전쟁에서 이겨 공을 세운다든가 하는 규격화된 것만이 애국하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애국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만도 아니고 아주 멀리있는 것만도 아니다. 말 그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곧 애국이다. 그것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곧 애국의 길이 될 수도 있다. 가령 길거리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다거나 공공시설물을 아낀다거나,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것도 하나의 애국하는 방법인 것이다.

나는 요사이 TV이나 신문등의 매스컴에서 떠들석하게 방영되고 있는 일부 대학생의 시위나 데모등의 기사를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안타깝고, 무엇인가 속에서 치밀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나는 정치에 관해 잘 모르지만 지금의 그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 생각한다. 설령 정치가 잘못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찰과 충돌하며, 기물을 부수고, 집단 시위를 한다는 것은 현실을 떠난 어떤 이상세계에 빠져있는 비 현실적인 사람들의 짓

이며, 흔히 말하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인 것이다. 양자가 반성할 일도 있겠지만 벼룩을 잡으려고 초가를 불태울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에게는 해야 할 과제가 너무도 많다. 분단된 국토를 통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안정된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야겠다.



진맥 · 조제 · 건강상담

함 · 한 약 방

황성읍 읍상리 (황성우체국 옆)

전화... 2-2636 번

원장 한약사 함 소 훈

살가르기



◆ 작 가 의 변 ◆

이제 그녀석과의 끈질긴 싸움은 끝이 났다.
이긴자도 진자도 없는 그런 꼬락서니로 그는 이제 이
세상에 없다.

진정한 구원의 화두를 풀지 못해 그녀석은 神에게
도도하게 던진 도전장을, 쉰 휴지조각처럼 구겨 버리고 우리
걸음 훌훌 떠나 버렸다.

가끔 가다가

한 눈 밖에 없는 그녀석의 눈에서 튀던 시퍼런 불꽃
에 가슴 섬적함을 느끼며.....

< 정 재 영 >

◆ 살가르기

「강 철주(姜鐵柱)!!」

그 녀석은 우리들과의 이승에서의 마지막 밤을 뜬물에 쫓 담그듯, 그렇게 싱겁게 잡아 제키고 말았다.

시답잖은 人間事 해어짐에도 그 뒤편 당가 짹짹거리는게 있기 마련일진대, 항상 恨많은 이승에서 마지막 고별파티가 그 모양이래서야 원,

하여당간,

심 은자(沈 銀子) 손에 들린, 가위 끝에서 「북」소릴 내며 갈라지는 다리 기름 소창 쪼가리가 너무나 간단하게 이승과 저승을 작살 내 버렸다.

亡者의 이름 석자가 휘갈려져 쓰여진 문창호지가, 심 은자 손에 들려, 널름 거리는 촛불의 불꽃바닥 속으로 날아 들었다.

푸르스름한 연기와 알싸한 내음이,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툭」터져버릴 듯한 방안을, 송두리채 잡아 흔들고 있었다.

이제,

그 녀석은, 우리들 모두의 기억속에서 그렇게 서서히 사라지며, 잊혀져 가고 있었다.

이긴자도 진자도 없는 그런 꼬락서니로, 그 녀석과의 끈질겼던 이승에서의 싸움은 영원히 끝나 버렸다.

가슴 밑바닥을 두들겨 대는 울음소릴 토해 내며, 심마담(沈銀子)은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그녀 몸구석 구석에 들어 붙었던 恨의 쪼가리들은 한겨플, 한겨플 뜯어 내고 있었다.

오!

이세상 어디때도 위대한 승부사는 없었다. 없었다.

빌어먹을...

× × ×

그날 밤은,

초작부터 뭔가 이가 안 맞아 가고 사가 풀어져들 있었다.

그 잘난 술값이야(사실 우리들은 그 해 겨울, 단 한번도 현금박치기로 술을 푸질 못했었지만 서두), 평소에도 늘 그런 터수 였지만,

이 시대의 진정한 실업자 서넛은 대낮부터 낮술에 얼어, 손바닥만한 장터거리 기름종이 들을 한놈 한놈 도마위에 올려 놓고, 칼질을 하고 있었다.

하초 벨 볼일 없는 놈들 정력이 주렁이로만 몰린 다고, 장터거리에서 뭐 한다는 축들음, 우리 입에 올랐다 하면 꼬리 자르고, 사시미 치고 할것도 없이, 그저 초장 한번 쪽 치고 한입에 「우지직」 작살이 났다.

“개새끼들 썩었어. 철저하게...”

“오호! 통재라!”

움켜 쥐면 한줌 똥물 밖에 안나올 썩은 중생들이여!”

“기성세대가 뭐 어때, 좃같은 놈들 서푼도 못 받을 아집과 권위의식에 찢찢매는 꼴들 하군...”

“야-야! 책 접어라 그만 시끄러마-”

“그건 그렇구 기스폰(접대부)한 사

라는 어찌 된거여, 한강 나룻배도 입자가 있나...”

“영자의 XX는 한강에 나룻배냐, 이놈두 올라타구, 저놈두 타네...”

한 녀석이 우리들 술자리의 고별송을 흥얼 거렸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들 함창, 이게 우리들 순서 였다.

기스폰 어찌구 하는건 순전히 쟁끼였다. 우리들 주제에 그런 물건은 애당초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안주는 다찌노미(서어비스 안주), 술은 月鏡 이씨들이, 아닌말로 끝빈 지집 아니면 어느 얼어 죽을 기스폰이 발신 양을 한단 말인가.

「땡!」소리만 안 났다 뿐이지, 이제 우리들은 꼭지 까지 술이 차 올라 있었다.

우리들은 정해진 각본에 따라 방문을 걸어 차고(소리는 크게, 문은 절대 안망겨 지게), 이집 마담과 기스폰을 향해 엿을 맥여 댔다.(물론 그 소리는 마담 방까지는 절대 들려서는 안되었다.)

“씨발년, 거 뺏는 물건도 아닌대...”

“좋은 물건 몰라 주는만, 천하 名器를...”

이제 남은 순서는, 방안에서의 쟁끼는 주머니 속에 쑥 집어 넣고, 저마다 있는 품 다 동원하여, 머리를 긁적거리며 최대한 비굴해지면 된다.

그리고는,

엄지손가락에 「쑥」 침칠을 해 우리

단골 출석부에 그어 버리면 된다.

“발령만 나면 짝 해결해 드려...”

“영농자금만 떨어 지면 열일 제치고 외상값 부터...”

그럴때 마다, 눈감고 아옹 하는 식으로 심마담은 잘두 속아(?) 쫓았다.

“아이 어린 하실려구요, 장래 촉망 받을, 술골 기름종이 들이신대...”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쪽에서 먼저 수를 쓰곤 했다.

심마담 그는 그런 여자였다.

실실 슬슬 웃음을 흘리며, 모강질 조여 오는 빗자루 도깨비마냥, 우리를 주눅 들어 얼어 붙게 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예삿날과 다르게 각본이 진행되고 있었다.

“왜 벌써 종을 치셨어요?”

“죄송해요. 빨리 일어 난다고 하는게 이놈의 히프께서 유죄 입니다.”

“방으로 들어 가세요. 오늘밤은 제가 폐를 써야 겠어요.”

검은 드레스를 걸친 그녀가 표정하나 없이 뜨악해진 우리들을 방으로 들여물었다.

‘헉’소리가 났다.

꼭지까지 오른 술이 일순간에 낮도깨비처럼 칼 같이 깨 달아 났다.

‘오늘은 기어이 끝장이 나누나. 이 시대의 진정한 실업자들께서, 그동안 밀린 외상 술값에 작살이 나누나’

얼살 먹은 우리들 얼굴은, 똥먹은 뉘시기 모양 뜨악해 졌다.

심마담,

그 여자가 외상값을 받아 낼때 마지막으로 쓴다는 고등수법을 오늘 우리가 보는구나!

애기로만 들었지만 심마담의 외상값 받아 내기 작전은, 평범한 우리네에겐 그야말로 미치고 팔딱 뿜 기상천외한 수법이었다.

그 여자는, 오늘 우리와 같이 외상값이 구제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 하면. 소리도 없이 귀신과 같이 손님방에 나타나(그 여자는 이날 이태껏 손님 술상에 앉는걸 본자가 없다), 무릎을 착 꿇고 맥주를 따른다는 거였다.

그것도 한 두잔이 아니라 한박스정도를…….

심마담!

그 여잔 나이에 비해 너무나 단수가 높았다.

오레, 시골구석 대표집 마담하면 아랫물건 담보로, 옥시기 가마나 팔러 온 축들 주머니나 까발리는게 십상이요. 모강질 서너발 빼가지곤, 고래고래 약을 쓰며, 막가면 사내들 사추리나 붙잡고늘어 지는게 그네들 처세론 1장 1절이기 마련인데,

심마담 그는 그렇지가 않았다.

그게 사람들을 더 겁나게 했다.

차라리

게거품을 내 뿜으며 독을 쓰는 적극파 마담들이 그들에겐 더 만만했던 것이다.

심마담,

그 여잔 안개속에 가려진 여자였다. 어느 누구도, 그에 관하여 아는 것이라곤 손톱 만큼도 없었다.

그 여자의 모든게 안개, 희뿌연 안개 그 자체 였다.

「자!」

은빛 투명한 맥주컵에, 노란액체와 조화를 이룬 흰 거품이 그득 달아졌다. 어느 시건방진 술꾼들은, 잔속에 달이 보이고, 님이 보이고, 뺨꾸기가 어찌구 배때기 부른 소리를 작작 했다지만, 그날 밤 우리들 눈엔 아무것도 보이는데 없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곤 무사히 이곳을 떠나야 하겠다는 절망감 밖에 없었다.

어느놈 하나 잔에 손을 대질 않았다. 이제 마셔야 한다.

저 여자가 뱃속으로 능구렁이처럼 새파란 연길 내 뻗으며 채근 하기전에, 우리들 스스로 마셔야 한다.

그리고 널 아침에는 장리쌀을 얻어서라도, 그동안 수월찮이 밀린 술값을 청산해야 된다.

오!

이 시대의 진정한 실업자들 설 땅은 그 어디메요!

마시자.

어차피 내게로 온 잔이라면 마셔야 한다. 지가 뭐 예수패들 최후의 저녁상에 초대된 도사들이라고 기분까지 내고 마실수는 없잖은가,

“저도 오늘밤은 한잔 하겠어요. 실례를 범 하는줄 알면서도…”

이건 웬 히딩잡은 애긴가?
각본에는 무릎을 착 꿇고, 외상술값 얘길 가슴한턱에 능구렁이처럼 물어 두고 진땀 내리게 술만 앉아서 따르다 했는데 말이다.

“강 철주를 아시죠.”

“강 철주?! 강 철주라!”

“예- 이십년전 「유아 강간치상죄」로 은팔찌를 차고 이곳을 떠났던 애꾸눈 철주씨 말예요.”

“철주, 강 철주 그녀석이 어쨌단 말입니까?”

난 아득한 저 우물 밑바닥에서 알수 없는 한줄기 푸른 빛이 튕겨져 올라오는 것을 은뭉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날 이때껏 잊고 살아 왔던, 그녀석에 대한 勝負根性이 되살아 나며, 20년 동안 내몸 속에 숨죽여 잠자던 熱들이 일제히 소용돌이 쳐 올랐다.

“아-참 네 녀석과는 고양이와 쥐처럼이나 양양 거렸지 아마.”

“참, 그 녀석도 너도 꽤나 끈질기게 물고 늘어 졌었지.”

그 녀석들은 잃어버렸던 무엇이나 찾는 듯 생기를 되찾고, 그 녀석과 나의 애기 자투릴 씨부렁거려 댔다.

“그런데 심마담이 어찌 그 녀석을 다 안단 말이요.”

우리들은 금방 이라도 그녀의 모든 비밀이 벗겨 질것 같애, 숨을 죽이고 그

여자의 입만을 주시 했다.

“20년전, 찢덕거리는 엉경퀴 꽃이흐드러 지게 핀 술골 뒷산에서, 그의 육중한 물건 아래, 단추구멍 만한 아랫도리가 절뚝이 났던 여자아이를 기억 하시죠. 심 은자.

그게 바로 여기 앉아 있는 저란 말입니다.”

심 은자!

그랬었구나. 그래서 당신의 눈속에는 항상 깊이를 알 수 없는 恨의 그림자가 붙어 다녔었구나.

정말, 놀라운 일이 었다.

“그가 목을 뺐어요. 며칠전 그의 영혼을 구제 해줄 신성한 터인 神學校 캠퍼스에서 목을 뺐어요.”

“왜 찢겨머리 같은 勝負師 녀석이 그 따위 헛튼 짓을 했을까요.”

“감정이 앞선 신앙에 대한 좌절과 하늘의 권세에 대한 그의 오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미쳤군요. 그 녀석은 그렇게 막판 승부에 까지 쟁길 부렸던 거예요.”

“또 하나, 그이의 오만은 저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저에겐 생명과도 같은 자유를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다그치듯 심마담에게 곧바로 되 물었다.

“그 사람이 이세상에서 숨쉬고 살아 있는 한 20년전에 체 작은 몸속에 타고 들어 온 그의 精子 때문에, 전 제

의지대로 아무 것도 할수 없었어요.”

“이해가 잘 안가는 대요… 20년이 나 지난 일인데, 그렇게 안 잊혀 집니까?”

“안돼요. 별짓을 다 해도 안돼요. 어떻게 잊을수가 있어요. 엄청난 그 일을…”

무서워요, 그의 눈. 파란불이 그의 의눈에서 뿜어 나오던 그 빛이…”

그 여자는 이성을 잃고 소리 지르고 별벌 떨고, 때론 멍청하니 방안을 두리번 거리곤 하였다.

“오늘밤, 그를 위해 살풀일 해야 해요. 그리곤 제 잃어 버렸던 20년 세월을 되찾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을 못 가게 붙들었어요.”

즉흥적인 진오귀굿이 「평가라당」 시작 됐다. 무당도, 징도, 대잡이도 없는 살풀이는 외상술값에 발목을 잡힌, 이 시대의 진정한 실업자들에 의해서 엉거주춤 막을 올렸다.

원래는 일곱마당을 밟아서 亡者의 이승에 대한 恨이 손톱만큼도 없게 해서 다리가름을 해 줘야 하는 건데, 오늘밤은 서론 찾기, 뒤시기 찾을 그럴 여유가 없었다.

‘부—옥—복’

소창기저귀 천이 둔탁한 소릴 내지르며, 이승과 저승을 간단하게 결정짓고, 있었다.

문창호지에 써 갈겨진 그의 이름 석자가, 한줌의 재가 되어 하늘로 날아

오르자 모든 행사는 끝나 버렸다.

너무나 간단하고 싱거운 노릇이었다. 그러나 심마담은 그렇지 않았다. 행사가 진행 되는 동안 그의 눈은 오만가지 형상으로 변화 하고 있었다. 안개처럼 20년전의 자신을 짓눌렀던 恨의 쪼가리가 떠올거리는가 하면, 여름날 소나기 처럼 그의 두 눈에서는 알수 없는 눈물이 그렇거리고 있었다.

평소,

그녀 답지 않게, 그날밤 심마담은 가슴 밑바닥 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밑바닥 없는 물독에 물붓듯, 그 여잔 채워지지 않는 가슴의 공허를 술로 채우려 하고 있었다.

“심 은자, 심 은자—는 자유인이예요 저도 이제 한 여자랍니다. 제 구실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세 아랫도릴 보셔야 믿으시겠어요. 보셔도 못 믿으시면 절 가져 보셔요. 20년전 뒷동산 영경퀴 밑에서 거덜났던 제 자신의 쪼가리들이 이렇게 말쑥히 아물었다구요.”

그 여잔 필사적 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그 여자의 몸속을 흐르던 恨의 절규라고 해야 옳을것 같았다.

난, 살풀이가 끝나자 마자 즐행랑을 논 두 녀석들이 한없이 부럽게만 느껴졌다.

막무가내로 내 빼려는 날 붙잡고, 그 여자는 그의 아문 상처에 대한 확인 작업에 날 강제적으로 동참 시키고 있었다.

“오! 하늘님 이런 빌어먹을 노릇이 있습니까?!”

‘부-옥’

거친 그의 손놀림에 그 여자를 칭칭 감고 있던, 요새 와도 같던 검은 드레스가 찢기어 나갔다.

무우 속살같은 눈부신 나신이 형광등 밑에서 물결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잃어 버렸던 세월들을 그는 그렇게 악을 쓰며 되찾으려 하고 있었다.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팬티가 벗어져 내리자, 그는 은빛 설원을 뛰노는 한 마리의 암사슴이 되었다.

그 여잔 몽유병 환자처럼 중얼거리며 벗어나간 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다가 오고 있었다.

“자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세요. 바로 이곳이에요. 절 이토록 웅켜쥐고 놔주지 않던 곳이에요. 어때요. 멀쩡하죠.”

그 여자의 가장 소중한 신비한 그곳을 내 눈 가까이 들이 밀며, 그 여잔 약(?)을 쓰고 있었다.

난 눈을 감아 버렸다.

도망쳐야 한다. 되도록 멀리 멀-리 그러나 그것은 한치의 운동능력도 없는 염치라곤 없는 나약한 생각 뿐이었다.

거미줄은 내 온몸을 감아서 꼼짝 못하게 죄어 들고 있었다.

거부할 수 없는 힘,

그 힘이 도망치는 날 붙들고 늘어졌다. 가장 원초적인 아랫도리에 대한 확

인작업에 음모자가 되어, 난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

“오? 무서운 밤이여!

무서운 밤이여!”

× × ×

강 철주,

그 녀석을 처음 만난 것은 국민학교 5학년이라 기억 된다.

왜냐하면,

혁명공약을 기똥차게 외워 재껴야, 재건복을 입으신 선생님께서, 미국 돼지사료로 쓰이던 노란 옥시기 가루죽을, 다른 녀석보다 한국자 더 퍼 줬던 기억이 또렷하기 때문이었다.

그당시 변또(도시락)라고 싸오는 놈은 오로지 그녀석 하나였다.

사카린을 서너알 넣은 다음 숟가락도 델것 없이 단숨에 「후룩후룩」 죽을 마시는 우리들을, 그녀석은 신기한듯, 품치토막이 든 밥숟가락을 든채, 한쪽밖에 없는 눈을 또록또록 굴리고 있었다.

그것이 첫날 그 녀석과 주고 받은 눈길이었다.

마치 돼지우리에 걸터 앉아 방금 준 돼지죽을 탐스럽게 먹어치우는 광경을 신기한듯 바라보는 도회지 아이의 눈길 같은 그런것,

하여간 우리완 사뭇 다른 그 뉘시기였다.

지금까지 꼼꼼히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날 그녀석의 난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다. 싫은 정도가 아니라

그 푸른빛 도는 그 녀석의 눈길에 난 몹서리가 쳐 졌다.

거기에다가 그는 우리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의 가죽가방과 검은색 구두는 제쳐 두고 서라도, 그애를 앞세우고 들이 닦친 그애 업니는, 분명 사람의 탈을 쓴 선녀 만큼 아름다웠다. 그리고 또 그 녀석은 우리들이 꿈속에서 까지 부러워하는 박씨네 송방(구멍가게)의 작은 주인이 되어 나타 났으니, 우리들이 히죽하니 놀란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신문이 없어서 망정이지, 그들 모자의 출현은 횡성일보 사회면 톱기사를 차지하고도 남았을 것이었다.

그당시 우리를 군것질 거리는, 학교에서 한달에 한뿔박씩 퍼주는 우유가루 밥술에 찢거가 제일 고급이었고, 그것도 없는 축들은 휘뿌리나 짬뽕이 고작이었다. 송방에 있는 물건은 눈요기 밖에 안됐다. 어른들두, 먹고 죽을 래도 찾을 수 없는 돈이었기에, 우리들에게는 애기가 되질 않았다.

그녀석 주머니엔, 언제나 먹을것과 장난감이 그득 했다.

두눈에 까만 콩알을 넣어 만든 십환 짜리 노란 사과자, 입에 넣으면 십리는 너럭히 갈수 있다는 왕사탕 그리고 우리들 흠다마를 단번에 박살내는 오색영롱한 유리다마들...

정말 미치고 팔딱 뽀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난 그녀석 안 보는 대서 입에 침 마를새 없이 그 녀석을 물고 늘어졌다.

“애들아, 저 새끼 뚜룩(도둑질) 쳤나봐, 세상에 그 비싼 물건을 누가 그리 잘 주남 분명, 뚜룩 쳤을거야”

애들도 머리를 주억 거리며 내 말의 동감이란듯 장단을 쳤다.

애긴 그렇게 하면 서로 애들은, 그녀석 주머니를 물기어린 눈으로 쳐다 보곤 입맛을 ‘쩍쩍’ 다셨다.

어떻게 해서 그 녀석이 그 박씨아저씨네 송방에 터를 잡았는지 어린 우리들로서는 도대체 알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다만, 들리는 어른들 얘기론 「후살 일 왔느니, 팔잘 고쳤느니」 애기들을 해 뻘지만 우리에게엔 별 문제가 안됐다.

요는,

그애 엄마가 쭈그렁 밤송이 같은 박씨 아저씨완 대조적으로 젊고 예쁘다는 사실과, 보물단지 와도 같은 송방 물건을 그 녀석이 팔기도 하고, 마음대로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사실이었다.

하루 아침에 내 세력판도가 달라졌다. 면서기 아버질 둔 덕에, 매일 아침 울고 불고 졸라 눈깔사탕 몇개와, 아버지 면사무소에서 가져오는 우유가루를 번또 두께에 넣어 밥술에 찢걸 가지고, 무녀리(사실 난 쪼그랑고 지독한 약골이었다.)같은 내가 살아 남을 수 있었고 먹는대 칩칩한 촌놈들은, 얻어 먹는게 뭔지, 한주먹 거리도 안되는 날 상전처럼

모시고 있었다.

그 녀석의 새과자 공세에 애들은 내 벨 볼일 없는 눈깔사탕 알갱이와 우유 찢건, 안중에도 없다는듯, 하루 아침에 그 녀석 한테 빌길 물어 버렸다.

간사한게 사람의 입인 모양이었다. 즈들이 언제부터 새 과자를 먹어 왔다고 입맛이고 지랄이구...

암만 내가 속상해 해도 어쩔도리가 없었다.

그 녀석과 난 애당초 게임이 되질 못했다.

힘도, 애들을 훌쩍 반하게 하는 군것질 과자 공세도 난 상대가 안됐다.

단 하나,

그 녀석은 눈을 하나 밖에 가지지 못했다는 약점.

그것이 날 버티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몸 어디에선가 그 녀석을 향하여 발산되는 알 수 없는 오기가 그 녀석과 버티는데 큰 힘이 돼 주었다.

그 녀석과의 싸움은 지극히 대수롭지 않은 대서 늘 시작 됐다.

예를 들어, 왜 건방지게 니가 먼저물을 먹었느냐는등, 왜 짜려 봤느냐는등, 평상시 우리들 사이에선 도무지 싸울 건덕지가 안되는 그런 것들이었다.

“개새끼 애꾸눈 주제에, 까불어...”

이말을 들으면 그 녀석은 불맞은 소처럼 나에게 대들었다.

난 그러면 그 녀석이 가장 싫어 하는 말만 총알같이 퍼부어 댔다.

“느 엄마, 백역수 라며, 얼러리 풀러 리 빼덕 구두 신구 뭐 했대요...”

“느, 새 아버지인 옛날 우리 아버지 다니는 면사무소 소사였었어, 소사 꼬봉...”

“너 임마 새 과자두 뚜룩 쳤었지...”

느 엄마, 양갈보 었지 임마, 양갈보...”

“영화에서 봤어 임마, 양코배기 하구 양갈보 하구 붙으면, 애꾸 나온됐어...”

힘은 없구 주맹이만 살아서, 난 그 녀석이 미칠때 까지 악담을 퍼부어 댔다.

“요 생쥐 같은 새끼 죽여 버린다.”

“죽여라 죽여, 이 새끼야—”

일방적인 게임은 이렇게 시작 됐다. 등치에서도, 끈두(그당시 우리 주먹질 싸움을 그렇게 불렀다.)에서도, 발길질에서도, 난 그 녀석의 스팅링 파트너가 돼 주질 못했다.

한쪽은 때리고, 차고, 지르는 일만 했고, 다른 한쪽은 맞고, 차이고, 얻어 터지는 일만 계속 됐다.

맞는것두 다 버릇할 탓이었다.

하루 이를 맞어보니 내겐 나름대로의 요령이 생겼다.

그 녀석의 주먹이 올라갔다 하면 난 나가 떨어지고 올기만 하면 되는거였다. 그리곤 될수 있는 대로 옷에 먼지가 많이 묻도록 뒹굴면 되는 거였다.

참 편리했다.

그까짓 치고 받는건 몸으로 때우는 거라 어지간 한대(실은 계속 얻어 터지는 처지 였지만), 그 녀석의 주머니에서 축축 쏟아져 나오는 새과자 공세

는 나로서는 당할 도리가 없었다.

어제까지의 의리고 나발이구, 얻어 먹는대는 걸리적 거리는 골동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촌놈들은 그 녀석 콩무리를 줄줄 따라 다니며 두손을 벌리고 해해덕 거리며, 알랑방귀를 끼면서 충성을 맹세 했다.

더군다나,

그 녀석은 내 열 받는 꼴을 보기 위해서, 꼭 내 보는 앞에서만 아이들에게 새 과자를 퍼 돌려 주곤 했다.

모강지에 잔뜩 힘을 주곤, 돼지에 사료 주듯 눈썹 만큼씩 떼어 주는 그 꼴이 눈썹 사나와, 난 마렵지도 않은 오줌을 누기 위해 자지를 웅켜 쥐고 열 불나게 변소를 들락 거렸다.

“애꾸 새끼, 즈들 집것 슬쩍 뚜룩 쳐 갖고 좃같이 인심은...”

애꾸이건, 네 눈 박이건, 가지고 왔건 뚜룩 쳐 왔건 얻어 먹는, 없는 백성에겐 문제가 안 됐다.

어떻게 하면 그녀석한테 잘 보여 제 손바닥에 좀더 많은 과자가 들어 오느냐가 중대 관심사였기 때문이었다.

‘저 웬수놈애 새과자, 나도 언제 멋들어지게 사가지곤 퍼 돌려 주는거다. 한개에 십환씩이니 40명에 한 개씩이래도 400 환이라’

내게 400 환은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그당시 6개월치 사친회비가 200 환이었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해 보지도 않고 주저 앓을

수는 없었다.

무슨짓을 해서라도 400 환을 만들어야 한다. 그당시 400 환은 나의 신앙이었다. 밥을 먹을때도, 공부시간에도, 잠자리에서도 어린 내 가슴엔 온통 새과자 뿐이었다. 새과자는 곧 승부를 거머쥐는 일ियो. 잃었던 새 세력을 되찾는 유일한 구원의 방주였다.

아침 일찍 아버지질 따라, 모강지가 열 열해 지도록 아버지 친구분들께, 만나오는 애교를 떨며 셀셀 거리며, 1 환 2 환 동전을 모았다.

「한강에 돌 던지기」는 그 당시 날 두고 하는 말이었다. 어느 천년에, 어느 세월에 400 환을 만들어,

난 조바심이 났다. 길은 멀고 마음은 급하고,

그렇다.

우선 일을 치루고 보는 거다.

새과자를 향한 영원에 불타있던 어린 나에게 보이는게 없었다.

방법은 단 하나,

경리사무를 보시는 담임선생님 캐비닛을 어떻게 하는 거였다.

일단 맘을 독하게 먹으니 머리가 핑핑 돌았다.

완벽한 알리바이와 완전범죄를 위해 피를 썼다.

체육시간은 불가능했다. 당번 녀석이 두눈이 시퍼래 가지고 지키기 때문이었다.

기회가 왔다.

캐비닛 열쇠를 선생님이 의자 방석 밑에 넣고 퇴근 하시는 거였다.

난 얼른 선생님을 앞 질러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하는척 하다 변소 뒤로 해서 교실을 엿 보았다.

당번 둘이 책상정리를 하고 막 교실문을 나서고 있었다. 나는 살금살금 도둑고양이 처럼, 교실을 들어 섰다.

교실은 숨 막힐듯 조용했다.

노란색의 열쇠가 서산으로 지는 마지막 햇살에 찬란히 빛나고 있었다.

캐비닛 문은 생각 보다 쉽게 열렸다. 저! 돈, 돈, !!

금고에는 사친회비로 걷은 백환짜리 지폐 다발이 너댓개 있었다.

‘한다발에서 한장씩만 꺼내는 거다. 그래야만 들키지를 않는다.’

대개 묶어 놓은 돈은 주고 받을때 어른들은 별로 세어 보는걸 보지 못했던 나라. 한몽테기에서 한장씩 4장을 빼냈다. 자물쇠를 다시 채우는 내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등뒤에서 딱두꺼비같은 선생님의 큰 손이 금방이라도 내 모강질 움켜 잡을 것만 같았다.

노란 현기증이 교실문을 닫고 나서는 내 몸뚱아리 전체로 몽실거리며 피어 올랐다.

꿈속같은 며칠이 몸살 나게 지나갔다. 안그러려고 하는 대도 원종일 내 두눈은 선생님의 얼굴과, 캐비닛으로 꽂혀지 기만 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닳새가 흘렀다.

‘아직까지 뽀록이 안 났으면 일이 잘 될거다.’

이렇게 혼자 생각한 나는, 학교 변소 옆 소나무 밑에 파묻어 뒀던 돈을 꺼냈다.

그리곤 한걸음에 그 녀석네 송방을 향해 달렸다.

‘눈치를 봐서 그 녀석 안 볼때 사야 한다.’

마침 송방에는 그전보다 더 쭈그렁 밤송이가 된 박씨 아저씨가 줄고 있었다.

애써 태연한 채, 송방을 들어선 나는 두말 않고, 주섬주섬 40 개의 새과잘 봉지에 쫓어 담곤, 400 환을 내던질듯 박씨 아저씨에게 건넸다.

“웬 돈이나, 이거, 그리고 웬 새과자를 이렇게 많이...”

“왜지 저금통을 뜯었어요. 집에 친척 애들이 일개 소대나 몰려 왔는걸요” 거짓말 하는 나는, 목덜미가 근질근질했다. 진땀이 등허리에서는 짹짹 내배고 있었다.

과자봉지를 손에 든 나는 뒤도 한번 안 돌아 보고 송방문을 내 달았다.

바로 그때 였다.

뭐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녀석이 방문을 「덜컥」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암마, 너 경기 좋다.”

“왜지 저금통 털었다. 암마”

금방이라도 그 녀석은 내 목덜밀 붙
잡고 학교로 끌고 갈것만 같았다.

‘난 에라 모르겠다’는 심보로 풀복
길을 내 달았다.

그날밤,

꿈속에서 나는 그 녀석의 시퍼런 눈
과, 선생님의 무섭게 일그러진 모습과,
손바닥 벌리며 해해 거리는 새카만 반
친구들 모습에 몇번이나 가위가 놀리곤
했다.

다음날, 그날은 완전히 내 생일날이
었다.

“너 입마 칠주 새끼 따라 다님 안
돼, 정말이야 약속하지?”

“그래 그래 약속 할게”

“나도...”

“나도...”

손톱속까지 새카만 손들이 노는 시간
에 철새 없이 내게로 오고 갔다.

신나는 날이 었다.

정말로 살맛 나는 하루해가 짧게만 느
껴졌던 하루였다.

세상에 완전범죄란 없었다.

마침내 올것이 오고야 말았다.

조합에 사친회비를 예금하러 갔던 소
사 아저씨가 새과랑게 질려 가지고 우
리 교실로 들이 닥쳤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어요?”

“아—글쎄 이게 귀신이 곡할 노릇 아
니고 췌니까, 한다발에 한장씩 누가 빼

치길 했어요. 선생님 절 믿어 주세요.
전 아무짓도 안했어요.”

“차근 차근 말씀 해 봐요”

들으나 마나 빠른 일이다.

조합 입금창구에서 빵구가 난 일일게다.
선생님은 캐비닛을 열어 제치고 새과
랑게 질려 야단법석을 떨었다.

그래도 돈은 나오질 않았다.

나올리가 없었다. 그렇게 한나절을
보내고 마침내 화살이 우리에게로 날아
왔다.

집주교 얼르고, 병주교 약주교 별의별
수사가 전개 되었지만 단서하나 못잡고
선생님은 맥이 풀렸다.

마지막 방법으로 1학년 꼬마들에게 써
먹어야 통할, 자칭 과학수사가 진행했다.
과학실의 비이커에 맹물을 담어 가지
고 와선, 손가락을 담그게 하곤, 죄가
있는자는 물빛깔이 빨강게 변한다고 사
기를 치셨다. 여우같은 내가 그걸 모
를리 없었다. 40명 모두가 손가락을
들뚝들뚝 담가 봐도 맹물은 맹물 그대
로 있어 췌다.

선생님은 네발까지 다 들고 그자리에
주저 앉아 버렸다.

그때였다.

그새끼가 손을 번쩍 들더니 다짜고짜
날 찍었다.

며칠전 내가 400 환 어치 새과자를 사
가지고 간 사실을 거침없이 선생님께
고자질을 했다.(만능들은 얻어 먹은 죄
가 있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죽일놈 드디어 날 찍었구나’
각오는 돼 있던 터라 난 모든걸 순
순히 자백 했다. 그러나 왜 그 많은
새과자를 샀는가에 대해서 무슨, 입을
다물었다. 그 녀석과의 승부에서 지기
싫었기 때문이었다.

선생님은 범인을 잡았다는 안도감 보
다는 범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굳게
믿고 있던 모범생 이었다는 사실에 더
곤혹스러워 했다. 반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뿐인 공무원 아들에게다가, 평소 기
집에 처럼이나 양전하고 공부 잘하던 내
가,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데 선
생님은 속상하고 화 났었으리라.

그래서 그런지 덤으로 남보다 배나
얻어 터지고, 죄없는 아버지가 호출되어
없어진돈 400 환은 무리꾸리 하고도 모
자라, 아버지는 대포잔을 썩술하게 사시
고는 머리가 닿도록 사죄하고 날 인수
해 가셨다.

“취 - 7일놈, 그 새끼 고자질 때문이
다.”

난 내 잘못에 대한 반성 보다는 그
녀석의 고자질이 더 쾌쾌해 이를 갈며
독을 썼다.

난,
가끔 가다 그 녀석의 외눈에서 뻗쳐
나오는 푸른빛에 문득문득 갱끼를 먹곤
했다.

에나 지금이나 남의 말 못해 안달 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었다.

박씨아저씨가 찬바람 들면서부터 송방
에 나 앉는 횡수가 줄어 들자, 참새들은
신명이 난듯 입방아를 찧기 시작했다.

“그 영감 뭐가 썩우긴 썩운 모양이
여 어찌자구 지몸 하나 못그늘를 주제
에 새과란 백여수를 들여 놔”

“그 여자 상판 보라구 까무잡잡 한
데다, 그 광대 뺨, 또 광과질한 영덩짝
하군, 그짓 안 밝히게 생겼나 봐”

“그병에 술과 계집은 저승사자라 했
는데, 제명 제가 재촉하지 아마”

“내 잘 모르네만 그 여자 미군크럽
엔가 에서 놀아 먹었대, 거 뭐시냐 국
제 무슨병 그거엔 약도 없대요”

“야구방망이에 이끌이 난 물건에 박
씨 그 녀석은 연못에 라이타 돌 식이겠
네 그라”

“에라 널 죽어도 좋으니, 그 여자와
하룻밤 쟁겨 먹기나 해 봤음...”

“에끼 이사람 미쳤나...”

하여튼간에, 박씨 아저씨는 가슴앓이병
이 더 했는지, 아니면 그 여자로부터
웁았을 국제 무슨병에 절판이 났는지,
겨울이 문지방 넘어로 밀어닥칠 즈음 해
서는, 송방에 도통 얼굴을 내밀질 앓았
다. 송방 물건도 하루가 다르게 빛을
잃고 줄어 갔다.

어찌다 다마라도 사러 송방엘 들러라
치면, 박씨아저씨 대신 나 앉은 그녀석
엄니가 새하얀 손가락 끝에 빨간물을 들
여 가지곤 다마를 골라 주곤 하여, 우

리는 다마를 받기 무섭게 도망쳐 왔다. 계부랄 갈던 송방물건이 영감 약값으로 하루하루 작살이 났다.

그 녀석도 졸업식을 얼마 안남기고부터는 줄어드는 송방물건 만치, 빛을 잃고 바래 가며 쟁끼를 먹어 갔다. 그 녀석이 쟁끼를 먹고 시들어 갈수록 난 더욱 더 신이 나서 극성을 부렸다.

박씨 아저씨가 그해 거울을 못넘기고 민화투판 흑짜리 접대기처럼 맥없이 세상을 뜨자, 그 집구석은 하루 아침에 작살이 나 버렸다.

우리들이 중학원서를 쓸 즈음 해서는 알량한 집칸까지도, 빗장어들 손에 기둥뿌리 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그당시, 촌에서 땅마지가 가지고 있던 축들두 자식 중학 보내는엔 웬만한 독기 없으면 엄두를 못낼 처지였기에, 그 녀석의 중학교 가는 문제는 아예 얘기거리가 되질 않았다.

의붓애비 없어지고 손바닥 털면 마른 먼지만 풀풀 나던 그 집구석에서, 중학진학은 가당찮은 노릇이었기에, 그 녀석은 졸업하기가 무섭게, 실한 서당을 찾는데 정신이 없었다.

나는 가끔 가다 그 녀석의 한쪽밖에 없는 눈에서 쏟아져 나오는 푸른빛에 쟁끼를 먹곤 했다.

절호의 찬스가 왔다.

그 녀석의 멍통을 잡아 쥐고, 객객 거

리는 그의 초라한 모습을 감상할 절호의 찬스가 온것이다.

마지막 남은 그 녀석의 집칸이 빗장어들 손에 칼같이 채어져 나가고, 강남갈 버스 놓친 떨거지 예비마냥, 달롱하니 거리버덩에 나 앉게 될 그 집 모자에게, 나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엄니, 잠실로 쓰는 바깥채 개네 빌려 주죠. 얼마나 불쌍해요. 집도 절도 없이 된 그집 말예요. 또 같은 친구로서 의리도 있구”

“글썸다”

“글썸구 월사금이구 엄니두 교회 권사쯤 됐으면 뭐 건수를 올려야죠. 아 그래야 이담 천국갈때 용돈하죠”

“원 녀석두, 알았다 니 아버지와 의논해서 빌려 주기로 하자 이웃 어려움은 내 몰라라 할수도 없구...”

난 머리를 팽팽 돌리며 알랑을 떨고 야지럭 대며 작전을 펼쳐 나갔다. 일이 그렇게 되느라 그래선지, 그당시 그애 엄니는 예수바람이 불어, 밤을 낮삼아 수공부에 여념이 없을 때였다.

그 녀석이,

살림이랍시고 시커먼 양은술 나부랭이와 옷가지 몇벌 든 보통일 지계에 지고 우리집 자들박을 올랐을 때 내 뺨속에서는 알 수 없는 희열이 났다. 희를 쳤다.

6월 炎天에도 불구하고 그날 난 교복에 교모까지 눌러쓰고, 영어책을 옆구리에 낀 채, 하루종일 그녀석 주위를 알뜰 거려왔다.

난 몸뚱아리가 옥션 거리는 야릇한 쾌감을 느낄 수 있었다.

팽비같은 그 녀석의 우는 꼴을 보기는 생전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무서운 보릿고개가 마을에 들이닥쳤다. 마을 사람들은 보릿고개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지혜를 모두 동원하여 풀을 뜯고 송기를 베끼고 칩뿌릴 됐다.

그 녀석 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사람이 풀만으론 살수 없는 노릇이었다.

품으로 까 주기로 하고, 그 녀석네는 우리집에서 사흘걸이로 양식을 조달해 갔다. 그래서 그랬는지도 몰라도 그 녀석은 시키지 않았는 대도 아침 저녁으로 지계에 소쿠릴 얹어 가지곤, 소풀을 베어 우리집 소구유에 「광」소릴 내며 메다 뜯았다.

노루목재 팽나무가 날카로운 소릴 내지르며 겨울을 칼질할때쯤 돼서는, 그 녀석은 아예 우리집 소당번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한문책은 그의 손에서 잠시도 떠날줄을 몰랐다.

“빌어 먹을놈, 평생 서당훈장질이나 해 먹을놈...”

× × ×

나는

가끔 가다 그 녀석의 한쪽밖에 없는 눈에서 푸른빛이 번쩍이는 것을 볼 때면 쟁끼를 먹곤 했다.

그 녀석의 사타구니에 머리카락 비스

름한게 서너개 모습을 나타내자, 난 사타구니가 근질 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무엇에 필요한 건지는 몰라도 우리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그 녀석만 가지고 있다는게 기분 나쁜 일이었다.

더군다나 모강지가 근질거리는 이상 야릇한 여자 얘기를 신이 난듯 우리들 앞에서 지껄여 대는 그 녀석은, 확실히 우리를 앞질러 가고 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었지만 그 녀석은, 심은자 언니의 재건학교 가정책과 연애소설을 통달해 가지고서 설레발을 까며, 또래또래의 우리들을 주눅 들리게 했다.

생리가 어떻고, 기질 아랫도리 어떻고 하여튼간 그 녀석은 그 방면에 도사였다. 그해 겨울이 문지방 넘어로 밀어 닦치던 어느날 밤이었다.

그 녀석은 완전히 검은 숲으로 조림이된 야구방망이 같은 물건을 꺼내 가지곤, 해괴한 짓거리를 우리들 앞에서 시범 보이고 있었다.

길길거리며 우리들은 그 녀석의 지시에 따라 채 자라지도 않은 물건을 움켜 쥐고 용두질 연습에 열중했다.

체육시간 철봉을 오르노라면 아랫도리에 짜릿하게 느껴지던 뭔지 알 수 없는 쾌감이 그날밤 되살아 났다.

신문지에 내 갈겨지는 정액의 양이라든가, 정액이 날아 가는 거리, 그 모든 면에서 그 녀석은 한번도 선두자리를 우리들에게 양보하질 않았다.

우리들은 그 녀석의 손가락 안에서

꼭누각시 처럼 놀아 나며, 서서히 미쳐
가고(?) 있었다.

그 녀석 물건의 위력은 언제나 우리
들을 졸도하게 했다. 아무리 튼튼한
문창호지두 거대한 그 녀석의 미사일공
격에 단 몇회를 못 버티고 작살이 나
버렸다.

내가 아랫도리 숨털에다 면도질을 하
기 시작한건 그 무렵 부터였다.

생각 같아서는, 요소비료라도 물에 타
서 발려야 겠다고 독을 쓰곤 했다.

× × ×

난,

가끔마다 그 녀석의 외눈에서 뿜어지
는 푸른빛을 보노라면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시한폭탄 같애, 문득문득 쟁기를
먹곤 했다.

뒷동산 뒷등지에 네활겔 짝 펼치고 누
운 열살짜리 은자의 아랫도린 피몽테기
였다.

기어코 그 녀석은 우리로서는 엄두도
못낸 일을 선두주자 담게 해치웠던 것
이었다.

놀라운 녀석이었다.

겨우 시늉만 생긴 은자의 아랫도린 완
전히 거덜이 나 만신창이 되어 있었다.

피! 피!

은자의 그곳에서도 영경귀 꽃이 핏빛
으로 그렇게 쩌득 거리며 피어나고 있
었다. 어디서 날아 왔는지 똥과리 몇
마리가 영경귀 꽃에 앉아 그악스레 꿀

을 빨고 있었다.

“이놈우 새끼, 짐승만두 못한 새끼우
리 은잘 살려 봐, 아이구 우리 불쌍한
내 딸...”

머리채를 움켜 잡힌, 그 녀석 눈에서
는 보는이로 하여금 더운피를 서걱서걱
얼어 붙게하는 서늘함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 녀석이 겁주는데 사용했다는 풀베
는 낫이, 이글거리는 7월의 하늘아래에
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부라부라, 은자는

읍내 보건소로 실려가고, 며칠후 엄니한
테 업혀, 얼이 빠진채 마을로 돌아왔다.

‘찰각-찰각’

수없이 카메라 셔터가 눌러지며 그 녀
석의 현장검증은 시작 됐다.

아랫도리를 까 내린 그 녀석의 한 동
작 한동작이 정지 된채, 카메라 필름에
담겨 지고 있었다.

“저런 마른 하늘에 벼락이 내릴 놈
저게 사람이여, 저게”

“아유 단추구멍에다 차라리 말뚝을
박지...”

나이에 비해 클대로 다 큰 그 녀석의
거대한 물건을 보고 동네 아낙들은 몸
서릴 치며 이빨을 갖다.

그 녀석은 모든것을 체념한듯, 솔골
구름 한점 없는 푸른 하늘을 한번 치어
다 보군, 한쪽 눈을 무겁게 내리 깔았다.
베반바지에 꺼먼 통고무신을 췌어 찬 그
녀석이 말복날 끌려가는 黃狗처럼 동구

밖으로 멀어지자, 정신을 놓고 있던 그 애 업니는 그제서야 제 정신이 드는듯 멀어져 가는 그 녀석을 미친듯이 뒤따라 갔다.

일이 터져서 얘기지만, 그 녀석의 요 근래 눈빛은 예사 눈빛이 아니었다.

은자언니 콩무니를 발정난 숯캐 마냥 따라다니는 거라든지, 해구신 먹은 뒤시기 모양 바람든 풍선처럼 어쩔줄 몰라 했던 그 녀석은, 초읽기에 들어간 시한 폭탄이었다.

그날 이후로 달다 쓰단 말 한마디 없이 그애 업니는 술골을 뒀다.

또한

은자네도 딸 자식의 장래를 위해선 어쩔 수 없다며, 얼마되지 않는 전답을 정리해 가지고 어디론가 훌쩍 동네를 떠나 버렸다.

나중 들리는 얘기로는 그 녀석은 징역을 10년인가 받았다 하고 은자네는 어느 도회지에서 막일로 살가 가는데, 사는게 말이 아니며, 그애 업니는 그일로 충격을 받아 몸져 누웠다는 얘기가 바람결에 가끔 들리곤 했다.

× × ×

대학 졸업반이었던 겨울 마지막 방학 때 었다.

돌아온 탕자 마냥, 난 향토장학금을 기다리다 못해 같이 빌붙어 살던 기집 손을 붙들고 떨떠름한 귀향을 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손바닥만한 술골 골다네이는

발목이 빠지도록 함박눈이 펄펄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근근히 한 30년 다니던 알량한 면서기 자리마저 5-16 바람에 떼이고, 개부랄 같은 농토에 몇 식구가 달려 붙어 썩빠지게 농살 지어 싹이 노란 나 하나 대학공부 시키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 바람에 내동생 까지도 진학을 포기하고, 손바닥만한 농토에 매달려 땅을 파고 있었다.

그 계집아이가 가져온 비상금과 내 하숙비까지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한게 집이다 사기를 쳐 얼마를 긁어 내, 내 털 참이었다.

계집아이는 동구밖에 기다리게 하고, 난 집으로 달려갔다.

안부고 문안이구 둘째고, 지금 현재 씨클(사실 아버지는 그게 뭔지도 잘 모르셨다.) 활동을 친구들과 떠나는데 당장 돈이 필요하니 득달같이 만들어 내 놓으라는 낱강도 같은 내 요구였다. 덧붙여서 지금 못 떠나면 학점도 못 받고 졸업도 못한다고 공갈까지 치면서 떼를 썼다.

“애야, 촌에 어디 묶어는 돈이 있니 내 수소문 해서 내일까지는 해 놀게 자고 가렴”

“안돼요. 당장 있어야 해요.”

“아이고 이런 변이 있나, 당장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하노, 답답한 노릇이군...”

아무리 졸라봐야 집사정을 뻔히 아는 지라, 이왕 못탄 돈 등이나 놓고 간다고 난 아버지 가슴에다 「짱 짱」 못을 박고 집을 내달았다.

“혈수 없죠. 병신같이 친구들한테 빌붙어 지내죠. 에이— 속상해...”

“애야—애야 잠깐 기다려...”

발목까지 눈이 빠지는 발뚱에 걸터앉아 환갑이 넘은 노인네는 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부스럭」거리고 있는 모습에 저 멀리서 보였다.

나는 발에 걸리는 눈물은 돌멩이를 걷어차며 신작로를 뒤도 한번 안 돌아보고 내 달았다.

‘어이그 저걸 데리고 오늘밤은 어딜 가서 풀립방(잠을 자나)을 놓나...’

“형—형 잠깐 서봐”

“저 녀석은 또 웬일이야”
동생이었다.

그 녀석은 숨을 헐떡거리며 날 향해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었다.

“형— 이거래두 팔어 쓰래, 아버지 반지야 환갑때 받은...”

겨우내 나무를 하느라, 마디마디 피가 맺히고 터진 동생의 손에는, 평소 닿는 다며 장에 갈때만 끼시곤 하던, 금반지가 들려 있었다.

“누가 입마 이런거 가져 오랬어”

“씨클활동이 뭔지는 모르지만, 해야 될거라면, 반지 아니라 그보다 더 한걸 팔아서라도 해야지, 형은 우리집 희망이구 기둥이야...”

반지는 겨울날씨 답지 않게 무척 따뜻했다. 아버지의 체온과 동생놈의 사랑이 그대로 남아 있어 반지는 너무 따뜻했다.

‘빌어먹을 놈의 세상...’

계집앤 아까 내가 세워 왔던 그 자세대로 꼼짝도 않고 함박눈을 맞으며 서 있었다.

“암마 청승맞다. 니 품, 똥이 현금은 아니지만 그 비스를 한거 확보 했어 자 가자, 씨클 활동을 해야 하잖아 오늘밤 두...”

“무서워요”

“그래 도망쳐 버리자, 십년이구 이십년이구 변함 없는 권태롭기만한 저 산과 강과, 가난에 찌들어 붙은 진절머리 나는 동네를...”

음내로 나가는 막차는 너무나 조용했다.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학생증이라도 있어야 되겠는데요.”

“아니 그럼 우리가 무록쟁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거래관계상 신원이 확실해야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아저씨, 차비가 떨어져서 그래요. 제발 사정 좀 봐주세요.”

“글쎄 내가 어떻게 손님들을 믿겠습니까”

미치고 팔딱 뿜 노릇이었다.
거저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물건 주고 돈

달라는데 안된다니, 뭔가 제대로 들어
가지를 앓고 있었다.

“여보시오, 주인 어른 웬만하면 사
정 좀 봐 주시구료, 사정이 딱하지 않
소”

귀가 번쩍 뜨였다.

거기에는 가족성경을 옆구리에 낀 젊
은 녀석이 떡 버티고 서 있었다. 말하
는 태도도 그러 했지만 그의 이목구비
는 뭔가 알수 없는 도도한 위엄이 흐
르고 있어, 첫대마당에 상대방을 기죽
게 하고 있었다.

“정 뭐하면 제가 책임을 지죠. 전
서울 신학교에서 神學을 공부하는 학생
입니다.”

“아— 그러세요. 저도 교회에 나가
고 있습니다. 요즘 하두 장물단속이 심
한때라...”

나는 한숨이 ‘휴’ 하고 나왔다.

그 젊은 녀석 때문에 살아 난걸 생
각하니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침본 얼굴이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아주 낯설지만은 않은 그의 얼굴하며,
아까 입은 은혜(?)도 있고 해서, 한시간
후 만날 약속을 하고 금방을 나왔다.

꿀림방에 그애를 집어넣고 나서, 난
주머니에 든 지폐를 두손으로 만지작거
리며 약속한 다방으로 들어 섰다.

“아칸 정말 고맙습니다. 정식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뭔 별 말씀을...”

어두침침한 다방 조명 밑에서의 그의

검은테 안경은 더욱더 도도한 기운을 내
놓고 있었다.

“옷것이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는데
서로 알고나 지엽시다.”

“그러죠. 나, 강 철주라고 합니다.”

“실례지만 한번 더 말씀해 주시죠”

“네— 강 철주 라고 합니다.”

“강 철주!”

그렇리가 없다.

그 녀석은 아닐 것이다. 넓은 세상에
동명이인은 얼마든지 있을테니까”

“혹시 술골을 아시나요?”

“술골? 아다마다요. 제가 자란 곳
인데...”

“그렇다면, 장터거리 송방 박씨 아저
씨를...”

“예— 알아요. 제 아버님이셨죠.”

아! 이럴수가, 또 만났구나, 죽지 않
고 살아 있으니 이렇게 변할 수가 불
과 십수년 만에 그렇게 변할 수 있단말
인가? 난 반가움 보다는 놀람과 당혹
감에 몸을 떨었다. 그 녀석도 무척 놀
라고 있었다.

“왜, 그런 얼빠진 표정을 하고 있나,
야하, 내 눈이 금금 한계로군, 개안수술
을 받았다네, 수술 받은지 한 2년 되
는데 경과가 아주 좋아, 참 자네 이제
날 그렇게나 놀려대던 애꾸눈 별명은
이제 종을 쳤네 그라 하하하...”

“.....”

난 아무말도 그 녀석에게 해줄수가 없
었다. 귀신에 홀린듯 안경속에서 또록

또록 굴러가는 지극히 정상적인 그의 눈만 바라볼 뿐이었다.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다네, 나 옛날의 철주가 아닐세 하나님의 종으로서 새 생명을 얻은 철주란 말일세”

“.....”

“까치방(교도소)에서 어느 목사님의 인도로 하나님을 만났다네,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오더라 말일세, 빛한 쪼가리 들지 않는 까치방에 들어 누워 있어도, 근심걱정은 없구, 기쁨 기쁨 뿐이었다네, 모범수로 형을 감형 받고, 몇년전 출옥을 하곤 독학으로 神學을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로 지금 神學校에 나가는 걸세”

“.....”

난 계끼를 먹어 무슨말이구 하고 싶었지만 망할놈의 입술이 움직여 주질 아니했다.

의자에 몸을 의지하고 앉아 있었는데, 내 몸뚱아리는 천길 만길 땅속으로 자꾸만 가라 앉고 있었다.

“이봐, 목사후보 양반, 난 다방 같은 덴 통 생리에 맞지 않아, 한국적인 분위기에서 한잔 안하겠나?”

“술은 못하네만, 너무나 뜻밖에 자네와 만났으니 내 한잔 사겠네”

역시 대포집이 내 생리에 맞았다. 혼자 부어서 마시고, 또 떠들어 제키고 마시고, 그러나 술은 2홉들이 너덧병이 바닥나도록 손톱만치도 취해오질 않았다.

마시면 마실수록 정신은 또렷해지는데, 반대로 몸뚱아린 자꾸만 땅속으로 가라 앉고 있었다.

“이봐, 그때 그 은자, 혹 소식 모르나?”

“은자? 아 심 집사 말인가?”

“집사라니, 그 여자도 예수꾼인가?”

“내가 교도소에 있을 때 자주 면회를 왔었다네,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을 가졌다네...”

“어떤가 그녀에 대한 자네 생각은?”

“인간적으론 항상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일세, 그러나 주님 사랑 안에서는 얼마든지 용서 받을수 있는 일일세...”

“음— 묘한 책임회피이군 그래”

“자네 오묘한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는 말일세”

‘개새끼— 모든게 다 주님, 주님 핑계로구나 빌어먹을’

난 다분히 감정적이고, 소피스트적인 궤변과 독설로 그 녀석의 성을 무너트리기 위해서 악을 썼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면 왜 사탄같은 못된 녀석들 버릇을 못고쳐주냐, 사탄을 슬쩍 놓아 두고 그 사탄에 놀아나는 인간들을 지켜보는 악취미라도 있단 말인가?”

꼭 교회에 가 헌금을 바치고 기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얼어죽을 법칙은 어디 있나, 이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구태여 교회까지 안가고 집에서 독학으로 가능하지 않나,

일년에도 몇억씩 들어 오는 현금은 다 어디에 썼나?

지계꾼이 몇 십년 쉰빠지게 열심히 다녀 보게 집사 벼슬자리 하나 떠나?”

그 녀석은 감정 하나 안 흐트려 가지고 성경구절을 예를 들어 내 독 묻은 공격을 여유있게 버티어 가고 있었다.

게임이 되질 않았다.

목말라 악을 쓰는 나에 비해, 그 녀석은 몇 천년이고 끊이지 않을 우물이었다.

그날밤,

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여관방에 돌아와 계집을 붙들고 내 몸의 진액이 다 마를때까지 오르고, 또 올라탔다.

지겹고 몸서리 쳐지는 밤이었다.

× × ×

“심 마담 암만 생각해도 그 녀석의 죽음은 이해가 가질 않소”

“잘은 몰라도, 그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 한건 제가 시집에서 쫓겨 나고 부터였든것 같어요. 결국 그는 인간의 원초적인 고뇌를 신앙의 힘으로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철벽같은 신앙도, 인간의 원초적인 고뇌에는 뿌리채 흔들렸만 말ियो.”

“情이란 어쩌면 치사하고 더럽고 고래힘줄 만큼이나 끈질긴것 같어요.”

“한국적인 신앙은 대개, 말씀 보다는 감정에 많이 치우친 것 같어요. 우리 조상이 원래 무당자손 이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까요.”

“참 어떻게 심마담은 시집에서 나오 시게 됐습니까?”

“모두 다, 그 사람의 환영(幻影)때 문이었어요. 끈질기게 절 따라 다녔던 20년전 그 엄청난 일 때문에, 전 몸뚱아린 땅을 밟고 온전하게 걸어나면서도 마음은 항상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쫓겨 다녔습니다. 기도도 해 보고, 말 씀에도 충실 해 봤지만 안 돼요. 내 능력으론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게 前生에 살이라는거 아십니까? 어쩔 수 없이 영켜진, 태어나기 이전절 대자의 두손에 의해 영켜진 그 살을 나약한 인간의 의지로 푼다는건 우스운 얘기 아닐까요.”

“그런것 같어요.

뭐한 얘기지만 전 결혼하기전 처녀막 수술을 몇 번이나 받았습니다. 피해망상에 극도로 사로잡힌 저는 한번의 처녀막 재생 수술로는 안심이 되질 않았어요. 마치 장님이 문구멍 바르고 안심이 안돼 바르고 또 바르듯... 다 허사였어요. 쓸데 없는 짓이었다구요.

첫날밤,

불을 끄고 달려드는 남편 얼굴이 갑자기 20년전 그 사람으로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전 그만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까무러치고 말았어요. 난리가 났었죠.

난 남편이 원하지도 않는, 20년전 그 악몽과도 같은 과거를 미친여자처럼 지껄여 댔답니다. 밤이 무서웠어요. 낮에 그런대로 살겠는데 밤만 되면 지옥과 같았어요.

결국 저는,

애걸복걸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치고 그 집을 뛰쳐 나왔어요.

그리고 이곳에 와 터를 잡고 이 장사를 시작 했답니다.

“小說 같은 얘기군요.”

“小說같은 얘기가 아니고 한편의 소설. 아닐까요. 진짜 순수문학작품 말예요.”

“이젠 정말 홀가분 해요. 비록 엉터리(?) 살풀이 였었지만, 제몸 구석구석에 자리 잡았던 그 사람의 恨의 쪼가리들이 하나없이 떨어져 나간 느낌이어요.”

“아까 보니까 정말 진지 하던대요.

그리고 콩비지와도 같이 온몸을 타고 흐르던 불순물들이, 심마담을 이렇게 정화 시켰나 봅니다.”

“이제 슬픔을 떠나 줘요. 이제 이곳에 더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이젠 어디든지 분명히 내 의지대로 땅을 딛고 살아 갈 수 있을것 같아요.”

“영원한 勝負師는 결국 존재하질 않는군요. 이 세상에...”

“.....”

× × ×

“아침햇살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렇군요. 이세상 어느것두 소생시킬 위대함이 있어요.”

“해장국 끓여 놔어요. 노랑태 통통 쪼여 넣은 시래기 국이에요. 전, 서서히 떠날 차비를 해야겠어요. 정말 화창한 아침이죠”

“그렇군요. 화창한 아침”

프로필

- 1952년 횡성출생
- 1978년 강원일보 신춘문에 동화 당선
- 1978년 교육자료 대상 동화 당선
- 1982년 「엄어까기」로 강원일보 신춘문에 소설 당선
- 북원 문학회 회원
- 小說동인 「예맥문학」 회원
- 현재 한국문인협회 원주지부 소설 분과위원장

【원주MBC 향토예찬문 공모 최우수작】

이 영원한 삶의 터전을 위하여

횡성군문화공보실
김 승 기

「우리 橫城은 우람한 泰岐山의 기상과 유유히 흐르는 蟾江의 정기를 받은 고장으로 풍요를 구가하며 인정을 나누면서 자손만대가 살아갈 영원한 삶의 터전이다.」
이상은 본인이 기초한 「橫城郡民 憲章」전문의 일부이다. 또 군민현장에는 선열의 항일구국정신과 애향심을 이어받아 「살기좋은 새횡성」을 건설하고자 다짐했다.

내가 이 글을 쓰고자 함은 이 자랑스러운 땅을 예찬하고, 이 영원한 삶의 터전의 숨은 진실을 깨닫고, 나아가 살기 좋은 새횡성을 건설하기 위한 다짐을 굳게 하고자해서이다. 또한 도시화, 산업화의 물결로 웬가 자꾸만 작아져만 가는 듯한 내고장 횡성의 그 뜨거웠고 자랑스러운 과거를 오늘에 재조명해 용기와 희망을 일깨우기 위함에서 이다.

1. 고난의 땅, 영광의 땅

우리나라 고을 고을의 地里에 관해 기록해 둔 「擇里誌」에 보니 횡성을 「地利高在」라 적고 있어 풀어보니 「땅의 이로움이 하늘에 닿는 곳」이란 뜻으로 예로부터 터잡고 살만한 훌륭한 땅으로 평가받고 있었으니 결코 우연은 아니리라. 그 「地利高在」의 땅, 우리 횡성이 반만년 역사속에 겪어 온 고난과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룩한 영광의 긴 여정을 살펴보자.

1919년 4월 1일 횡성의 아침은 일제의 말발굽에 짓밟힌 암울의 아니었다. 대륙장도 아니건만 市井의 골목마다 흥청이고 북적였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움츠름 치고 있었다. 옛부터 「동대문밖 제일 큰場」이라 했지만 이날따라 원주 평창군은 물론 양양, 철원 그리고 경기도 양평군에서 조차 모여들었으니 자유

와 독립에 목마른 사람들로 「횡성장에만 가면 무언가 큰일이 있을 것만 같은
김새」에 찾아들 우국 百姓들이었으리라.

이미 橫城에서는 3월 26일 장날과 27일 두차례에 걸쳐 2~300명이 모여 만
세를 불렀고 그전에는 횡성보통학교 학생들이 검은리본을 달고 침묵의 저항을
했으니 일경의 경계가 삼엄하고 병력도 원주에서 증원되어 살벌하기 그지 없는
분위기 었으나 횡성인의 애국혼을 믿는 많은 원근사람들이 모여들 수 밖에 도
리가 없었다.

비좁은 장터를 메운 사람들이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밤을 기다리고 있
을때, 침략자들은 대학살의 음흉한 흉계속에 팽팽한 긴장속에 밤을 기다렸다.고나
할까? 폭풍전야의 고요가 지나고 땅거미가 어둑해지자 숨막히는 초조의 균형을
깨고 누군가 「조선독립만세!」를 외쳤고 그 함성은 메아리쳐 온 장안을 들끓
게 했다. 쌀가게아저씨도 술장수아줌마도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따로 없이 하나
로 뭉쳐 독립을 외쳤다.

이날 일제가 보고한 소위 시위군중이 1천5백여명이라고 했으니 실제 수효는
수천이 넘었으리라. 그 활화산 같은 불길은, 그 노도 같이 역센 물결은 일제
의 관현이 있던 언덕(지금의 3.1공원)으로 물밀듯 역류해 갈때 일제는 비무
장의 군중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해 왔지만 성난 군중들은 쓰러지면 일어서고 또
쓰러지면 또 나서는 눈물겨운 항쟁을 했다. 그리고 도끼자루, 장작개비, 하다못
해 돌맹이라도 들고 끝까지 사투를 벌였다. 이 처절한 운동으로 河永賢 지사등
여섯분이 순국했고 수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고도 일제가 두려워 치료조차 받지
못했고 죄없이 불잡혀가 매를 맞았으며 30여분이 2년~6개월간 옥고를 치뤄야
했으니 이 어찌 피압박민족의 비애가 아닌가. 일제의 탄압에도 꺾이지 않고
4월 2일에도 2백여명이 만세를 불렀으며 4월 12일까지 모든 상가가 철시를
했고 내거리에는 태극기가 게양되고 일제를 규탄하는 벽보가 담벼락에 붙었으며
4월 12~13일에는 외진 서원면 분1리 마을에서도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만세운동을 했으니 3월 26일에서 4월 13일에 이르는 기간으로 이것이 도내
최초 최장 최대의 만세운동일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橫城의 3.1
운동」이다.

이 3·1정신은 이후에도 민중운동으로 승화되어 해방될때까지 단 한순간도 일
제에게 상권을 빼앗기지 않은 전국에서 유일한 고장의 영예를 얻게 되었으며 이
운동은 도내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만세의 메아리가 되었다.

돌이켜 보건데 횡성의 3·1운동은 한시대에 있었던 일과성 사건이 아니라 橫

城人の 맥속에 끈끈이 이어 온 자주정신의 발로이며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굳게 다져 온 응집력과 슬기의 소산이다.

여기서 다시금 거슬러 올라가 반만년 鄉史의 榮枯盛衰와 함께 그 고난과 영광의 발자취를 돌아보고자 한다.

이미 선사시대 이전에 남·북방문화가 상충하던 이땅은 숙명적으로 두문화권의 각축장이 되어야 했으며 삼한시대에는 삼한은 물론 濊·貊(예맥)의 각축장이어야 했다.

아마도 우리 고을의 最古地名인 於斯買라 불리어졌을 무렵에는 史的 高층이야 없지만 군내최고의 山인 1261m의 험준한 泰岐山에서 있었을 辰韓의 마지막 王 泰岐와 新羅의 시조 박혁거세와의 대회전이 눈에 선하다. 동국여지승람에 「들로 쌓고 길이 3천 653 척이며 군창터와 우물이 하나 있고 지금은 반쯤 퇴락했다.」고 적고 있는 泰岐(德高)山城의 잔흔에서는 지금도 일취월장하는 신생국 신라와 몽진의 한을 안고 최후의 일각까지 항전하던 泰岐人들의 자주독립과 개척정신이 가슴에 와 닿는다.

그뿐이라! 내륙교통의 요충이었던 鎭성은 처음에는 백제, 다음은 고구려, 다음은 신라의 영역으로 뒤바뀌는 과정에서 우리 鎭성인이 겪어야 했던 수난은 어땠을 것이며 그 난국을 딛고 일어서기에는 또 얼마나 눈물겨운 인고의 아픔이 있었겠는가. 그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해낸 힘은 오늘날 우리 鎭성인의 의지력의 원천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於斯買에서 濱川 그리고 橫川으로 바뀌어 불려지기 시작한 고려시대는 확실히 우리에게 鎭성인임에 자부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시대이다. 이시대에 우리는 국사상 유명한 위대한 인물을 만나게 된다. 조선이 고려 8대왕과 함께 8층신을 뽑아 승의전에 배향할 때 한분으로 모셔졌고 고려사에서 딱 두분뿐인 문무최고의 관직을 겸임한 분인 文正公 趙冲은 공근면 상동리에서 태어나 鎭성읍 정암리에 잠드셨고 그의 아버지 永仁과 아들 季珣과 더불어 3대가 재상을 지냈다 하여 三元帥라 높쳐 부르는 橫城趙氏가 배출한 명인들이다.

본시 문신이었던 충은 전쟁(契丹遺族의 침입 1216-1219년)이 발발하자 스스로 상장군으로 나아가 여지없이 극도로 악랄했던 적과 맞아 싸워 마침내 강동성에서 항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지가 할 곳없는 그들을 도처에 모여 살도록한 이른바 契丹場을 마련해주니 역사는 그의 훈훈한 인간애에 갈채를 보내고 있다. 그는 여진과의 싸움에서도 많은 공을 세웠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패전으로 면직당했을때 쓴 시 한수를 음미해보고자 한다.

「萬里霜蹄容一蹶 / 悲鳴不覺換時節 / 尙教祖父更加鞭 / 踏躡場摧古月」

「만리길 서리굽이 한번 미끄러 졌으니 / 병마의 비명소리에 시절 바뀐 줄 몰랐노라 / 아마도 조부의 본을 받아 다시 주마에 가편하고 / 모래톱을 유린하는 오랑캐를 꺾어나 보자.」고 했으니 이 얼마나 비장하고 애국충정이 넘치는 시인가 물론 그는 곳 黃旗子 筆을 무찌르고 元帥에 오르는 불굴의 사나이였다.

전선에서 沖이 활약했다면 이고을 사람들은 내고장을 지키기 원주, 횡성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며 1217년 봄 아홉차례의 공방전 끝에 퇴각시키니 전국토가 유린당하는 와중에도 이고장은 온전할 수 있었고 특히 저 유명한 춘천 봉의산 전투에서 장열히 전사한 횡성출신 李沃, 李潭장수의 활약도 눈물겹다.

뒤이어 1231년의 몽고의 침략 이래 40년간을 끈질기게 싸워냈고 1290년의 哈丹賊의 침입에서 이고장 사람의 승전은 영원히 빛나고 있다. 元沖甲과 함께 鵠原山城에서 民官軍이 혼연일체가 되어 분전했던 원주·횡성인의 용맹과 전공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다. 그리고 우리의 선열들은 이땅을 유린하려는 흉권적도 왜적도 무찔러 내면서 새로운 왕조 조선을 맞게 된다.

우리 고을도 긴 橫川의 시대를 지나 지금의 이름과 같은 橫城의 시대로 비로소 진입하게 된다. 우리는 그 조선의 아침에서 부터 원주가 낳은 강직한 인물 윤곡과 이땅에서 만난다. 윤곡 원천석은 고려가 멸망하자 두임금을 섬길수 없다며 고향의 뒤편 치악산중의 강림·부곡리에 은거하고 자연과 벗하며 망국의 한을 달래는 고고한 선비의 절개를 지키니 이곳 곳곳에 老姑沼, 橫指岩, 拜向山, 태종대, 수래너미 등 유적이 있어 그분의 충절을 엿보게 한다.

또 있다. 8도관찰사와 6조판서를 두루 지낸 당대의 청백리 鄭宗榮은 원주배달에서 태어나 橫城 公根里에 참들때까지 4대왕에 걸쳐 봉사하고 노년에 눈이 어두워 바른 정사를 보지 못할까 두렵다며 스스로 관직을 물러난 뒤 정부가 내리는 녹봉도 받지 않고 여생을 보냈더니 오늘날 이 고을의 모든 목민은 그분의 덕행을 본받아 모두 훌륭한하리라 光海君의 폭정이 싫어 상소를 내고 초야로 돌아온 寒岡 鄭述는 이땅에 寒岡台란 흔적을 남기고 절개를 지켰다.

그러나 역사에는 언제나 명암이 있기 마련, 이제 조선시대에 이고을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그들과 그 그들을 거두어 낸 저력과 의지를 살피고자 한다.

저 처절했던 1592년~1598년의 7년전쟁 임진왜란은 이 고을에 있어서도 참으로 큰 고통의 연속이었다.

삼남을 제외한 전국토가 그러했겠지만 이고을도 어이없이 유린당하고 초토화될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고을 사람들은 오욕에 굴복하지 않고 민과 관군이 하나가 되어 극복해 나간다. 이때 이고을 필부 필부, 민초들의 애국혼은 뜨겁기만 하다.

원주를 침공하려는 毛利吉成의 부대와 이를 저지하려는 元豪장군의 부대와 수차에 걸친 공방전과 전력이 허약한 관군을 돕던 초인적인 백성들은 산천리 배틀바위에 숨어 배를 짜며 식량을 대고 전투를 지원하며 생사를 같이했다. 끝내 원주를 침탈한 왜병은 국도를 따라 춘천을 향하다 橫城 공근면 말구리 고개에서 매복하고 있던 의병들이 돌을 굴러 공격하니 말과 함께 굴러 구비소에 수장되니 큰 타격을 입히며 이고을 사람들은 독재봉에 숨어 의병을 지원하고 뒤쫓던 왜병을 종달바위에서 종달새 소리로 유인 궁터에서 활을 쏘아 췌멸 시키니 차라리 그들은 민초들이 아니라 날센 유격대원이라해도 좋을 것이다. 다시 패주하던 왜병은 덕촌리 왜둔지에서 진을 치고 패배를 설욕하려 하지만 고개턱을 지키던 의병에 참패하여 「붉은고개」를 만들고 마침내 의병들이 막아섰던 「막은고개」에서 전멸하고 말았으니 훗날 이나라가 한일합방의 치욕을 당했을때 일본은 댜 먼저 이곳 왜둔지에 신사를 만들고 승전에 감격했던 후손들이 머리숙이기를 강요했다고 하니 일제에게는 얼마나 뼈아픈 한이었으며 우리에게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승전이었던가.

이때, 갑천면 포동리에 살던 열녀 김씨의 눈물겨운 순애보는 영원한 감동을 안겨준다. 이곳의 정준제씨와 결혼 신희의 꿈이 무르익기도 전 난리가 터지자 농사짓던 준제는 「춘부도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서야 된다」며 의병이 되어 전라도로 출병하고 김씨는 어려운 가계를 꾸려나갈 즈음 격전에 격전을 거듭하던 끝에 남편이 큰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에 접한 부인은 훌훌단신으로 남편을 구하러 길을 떠나 한달만에 남편을 찾아 임종을 하고 시신을 홀로 운구해 정성껏 장례를 치루고 정절을 지키며 묘막에서 일생을 보낸 거룩한 여성이었다.

공근면 매곡리 육절리에 배향된 서예원과 그의 일가 노복 여섯식구는 진주성을 사수하다 모두 순절하니 육절의 행적은 이나라에 오로지 셋을 넘지 않는 위대한 자취라 하겠다.

飛車와 지포란 기상천외의 병기를 만들어 진주성싸움에서 큰공을 세웠다는 전설의 인물 정평구도 횡성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같이 모두가 한뜻이 되어 임진란이란 대환란을 극복했지만 우리는 또 다시 그 길고 긴 절곡의 36 년으로 함몰해가는 어둠의 시대를 임란, 그 3 백년 뒤에 맞이하게 되자 이지방민의 항일의 불꽃은 또다시 거세게 타오른다.

일제침략초기에 횡성, 원주, 원성은 항일사에 있어서 결코 빼어놓을 수 없는 성지였음을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구한국군 강제해산 이후 원주에서 봉기한 민공호가 해산된 군졸을 모아 위세를 떨쳤다면 횡성에서는 명문이며

유복한 가정을 버린 한상렬이 활약했고 온가족을 화전민을 만들고 봉기한 최인순도 산포수를 모아 일어 선 오정목도 그리고 한갑복, 한기석등 이루 헤아릴수 없는 수많은 의병장이 자신을 불살라 풍전등화의 조국을 구하려 했고 두메산골인 서원면에는 경기, 충청, 경상, 강원지방의 총본부로 의병 700여명이 왜군 수개연대와 대치했으며 또한 치악산 동편 부곡과 월현에는 민공호등의 부대가 크게 활약한 또하나의 성지였다.

봉복사전투 350명, 유동전투, 둔내전투, 치악산전투, 300명등 수많은 의병이 형성을 중심으로 30여회 이상의 의병전이 벌어져 수많은 의병이 이름없는 영웅으로 스러져 갔으니 지금도 강림과 금대리에 무연고 의병총이 아픈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일제 36년간 이땅을 지킨 수많은 분들, 전기의병사 최초의 의병장 원용팔이 원주인이라면, 평생을 한·만국경을 넘나들면서 25년간 죄없이 옥살이를 한 부한 청년단장 최양옥지사, 의병장으로 독립군 참모로 활약하다 만주에서 순국한 한상렬선생은 형성인이었다. 이 자랑스러운 전통과 끈끈이 이어온 맥은 마침내 저 찬란한 형성의 3·1운동이란 커다란 불꽃으로 타올랐으니 아무리 되뇌어도 우리가 자부하는 「애국의 고장」은 결코 허구가 아님을 우리는 자각해야 하며 그랬기에 해방되던 날 우리는 그것이 더욱 벅차고 감격되고 또 누구보다 몇몇했었다는 사실에 후손된 우리 모두는 경의를 표해야 한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사상 미증유의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6·25 동란의 참상 앞에서 우리 고을 사람들은 어찌했는가.

그 몸서리쳐지는 전쟁의 와중에서 사통오달의 요충이던 탓에 형성은 더 큰 화를 입어 만신창이가 되었다. 뒷내강이 시산혈해를 이루었다는 아군 16.21연대와 중공군 39·40·66군단간의 처절했던 전투, 형성 시가지를 불태워야 했던 시가전 50년 12월의 네덜란드군의 악전고투, 그 지옥같은 전장을 함께 겪은 형성인은 끝내 군·민이 일체가 되어 이땅을 지켰고, 갑천의 어린 학생과 청년들은 마을자치대를 조직해 내고장을 지키다 패주하는 북괴군 연대병력과 1주야의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다가 끝내는 8명중 7명이 채 피우지도 못한 채 애국의 꽃으로 산화했으니 어찌 영웅하고 찬란히 빛난 살신성인의 위대한 영웅들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선열들께서 조국의 부름에 하나 하나 작은 씨알이 되어 쓰러져 가면서 압박의 설움과 고통, 전쟁의 참상과 비극, 그 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자유와 평화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면 이시대의 우리는 이땅을 희망과 기쁨이 샘솟는

미래의 땅, 영광의 땅으로 꽃피우는데 또하나의 작은 씨알이 기꺼이 되어야 한다.

2. 미래의 땅, 희망의 땅

치절한 폐허와 굶주림뿐이던 전쟁의 뒤끝에 태어난 세대에게는 불행한 기억이 있다. 칠없던 어린시절 그 절망속에 먹성과 입성의 줄이 되어 온 미국에 대한 무한한 동경과 이나라사람이었음에 대한 탄식과 자조에 젖어본게 나뿐만은 아니리라 그 턱없는 자괴를 깨달았을 때는 이나라도 전쟁의 때를 벗은 뒤였고 또 한국인임을 자부해도 좋을 만큼 나라도 이몸도 커가고 의연해 진 뒤였다.

그러나 우리의 몸에 밴 자기비하의 성격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임을 내세우면서도 강원인이기를 그리고 횡성인임을 부끄러워 할때가 있다. 도세가 약하고 남들의 「감자바위」 「岩下老佛」의 빈정 거림 때문일까. 그 옛날처럼 어렵고 굶주리지도 않는데 왜 우리는 한사코 강원인이기를, 횡성인이기를 거부하려는가!

횡성인이여! 우리의 뜨거운 심장과 냉철한 가슴, 그리고 밝은 눈으로 우리의 참모습을 바로보자.

당신은 횡성을 얼마나 알고자 했는가?

당신은 횡성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대는 횡성인이기를 얼마나 원했는가?

전통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여!

이고을에는 이미 초기 철기시대에 그것도 해발 500m의 둔내에 고도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았으며 於斯賈 橫川, 潢川, 花城, 花田, 橫城으로 이어져 오는 동안 고을 고을 마다 얽히고 설힌 전설과 설화 그리고 크고 작은 향토사가 명멸하고 있다.

인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여!

文定公 趙冲이 그러했고 鄭宗榮, 高荊山, 徐禮元도 크신 인물이었고 韓相烈, 崔養玉, 鄭述도 모두 이땅이 배출한 재상이요, 명장이요, 학자며 애국지사이거늘 그 뿐이라 조선시대의 대과 국조방목에 보니 과거에 나가 장원급제한 분이 30 분이 넘어 도내에서 몇채안가는 인물의 군이었다는 사실을 알자. 그리고 조선작도읍지등 옛책을 살펴보니 이땅의 열녀, 열부, 효자, 효부의 수효는 무려 200 분이 넘었으니 헤아릴수 없는 많은 인물이 태어난 고장이면서도,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고자 하지 않았을 뿐이다.

자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여!

자원이란 무엇인가? 땅속의 금은과 석탄만이 자원은 아닐진데 우리에게도 무한한 자원이 있다.

우리군의 주산업인 농업은 옛부터 「황성원의 앞뜰자랑」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비옥한 화성벌과 문암·구리들등 기름진 옥답에서 질 좋은 쌀을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생산하고 천혜의 자연조건에 힘입어 발농사도 전국 소비량의 70%를 생산하는 홉프는 이름난 특산품이고 황성의 누에고치, 옥수수, 고추, 채소, 인삼 어느것 하나 명산, 명품이 아닌것이 없으며, 광활한 산림은 전국 제일의 축산군을 향한 꿈의 자원이 되었다.

지하자원이 없다할지라도 편리한 교통과 섬강의 풍부한 수자원은 농토를 흡족히 적시고도 남아 공업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어느곳처럼 석탄가루 날리고 검은연기를 내뿜고 폐수를 토해내는 공해산업이 아닌 무공해의 농업과 공업, 농촌과 도시경제에 공헌하는 농공단지의 조성과 연계한 공업화로 기대감에 설레이고 있지 않는가.

관광자원이 없다고들 하지만 국립공원 치악산의 1/3이 우리의 땅이며 비록 미개발지역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자연과 만날수 있고 영동고속도로를 따라 秦岐山の 푸르름도 靑台山의 절경도 오래지 않아 굴지의 관광지로 보다 완벽하게 개발되고 또 보존되리라.

문화의 부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여!

옛부터 영서·영동이 만나고 남북이 교차하던 이고을에는 습합된 독특한 전통문화가 있었다. 비단 전국의 정상에 우뚝 선 「황성회다지소리」가 아닐지라도 마을마다 「두렛소리」한곡절 없는 곳이 없고 흥겨운 춤사위하나 모르는 촌부가 있겠는가. 찬란한 문화가 현대화의 물결에 잠식되고 오늘의 세대가 그것을 찾기에 게을리 한 따름일 뿐이다.

내친김에 교육에 대하여서 논하여 보자. 우리는 풍수원천주교회가 도내 첫, 전국 네번째의 성당인줄 알면서도 그걸의 광동국민학교가 도내 첫 사립학교였음은 모르리라.

또 우리에게는 세계최대규모에 가깝다는 천연기념물 백로서식지도 있고, 문화재와 유적지, 사적지도 많이 있건만 내것이 아닌냥 남의 것에 키재기만 일삼아 온 허영심 때문에 잊어가고 있을 뿐이다.

군민축제 태풍문화제도 지방문화의 내일에 싱싱한 싹을 보게하고 갖가지 향토지가 우리문화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음은 분명 이고장 문화가 과거의 기

름진 토양속에 튼튼히 뿌리내려 있음을 알수 있다.

황성인의 성격을 닮는 사람들이여!

흔히 황성사람은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며, 쉽게 말해 빼놓아졌다고들 하는데 그리 틀린 말이 아닌듯 싶기도 하다. 명확한 근거도 없는 三橫說(山橫, 水橫, 人橫)은 그렇다치더라도 옛속담에 「황성각정이」 「황성가서 잘난체하지 말라」 「제2의 개성」 「벌거벗겨 놓으니 30 리…」 등이 그렇고 강원도 장타령에 하필이면 「황성 장돌뱅이」나 「이장 저장 못보고 황성장 예누리 많아 못보고」로 엮은 걸 보면 근거없는 설은 아닌 듯 싶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독설같기도 한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느냐에 따라 그 뜻이 크게 달라진다.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로 수용할때 스스로 멸시하고 경원하는 꼴이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는것 같다.

그 원인은 아마도 일제때 침략자들이나 그 앞잡이들이 황성사람들이 거세게 항일운동을 전개하고 36년간 일제에 때문길 거부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비양 거렸거나 아니면 우리를 시새움하거나 부러워한 이웃 도시인들이 그렇게 매도했는지 모를 일이니 우리에게는 가슴 뿌듯한 자존심일지 언정 결코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약아빠지고 수리에 밝을수 밖에 없음은 「동대문밖 제일 큰 장」에 살던 사람이 그것도 이길 저길로 팔도사람이 오가는 길목에 사는 사람이 어리숙해서야 생존을 영위할 수 있었겠으며,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라고 한다지만 그것은 뒤집어 독창적이고 진취적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약고 똑똑하니 자연 창조력이 뛰어나고 그 창조정신은 진취적인 기상과 만나 무한한 성취욕을 갖게 될수 밖에 없고, 그것은 밖에서 볼때 독선이고 이기적이었으리라.

때로는 우리 황성인이 모래알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 모래알들은 흐트러짐 없이 필요할때면 강한 응집력으로 굳게 단결하곤 했었다. 그것은 지난날 3·1 운동의 발로였고 황성읍을 전국제일의 도움으로 가꾼 원동력이었으며 온갖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한 지혜를 창출해낸 뿌리였다.

이제 우리는 그 빗간다는 즉 「빼놓다」는 특질에 빼놓아 지지 않은 긍정적인 정의를 내려야 하겠다. 강원도가 매양 「감자바위」나 「암하노불」로 안주할수 없듯이 이 가슴뿌듯한 「곧음」의 군민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그리하여 황성인임이 어쩔수 없는 숙명적인 부끄러움이 아니라 무한한 희망과 밝은 미래가 용솨음치는 터잡고 살만한 영원한 삶의 터전에 사는 몇몇한 황성인임에 자부를 갖자 그리고 황성인임에 감사하자.

'86주요사업 실적

1. 태기문화 발행
제 3 호까지 발행
(1 회 발행부수 600 부식 3 회까지 1,800 부 발행)
2. 향토사료 발굴조사위원회 구성
 - 조사위원 4명 위촉
김승기, 조임식, 정재영, 한창일
 - 향토사료 원고 작성 2편
3. 경노효친사상 선양 순회 강연
 - 순회지역 : 관내 읍, 면 8 개소
 - 강 사 : 김기원, 김정기
 - 순회기간 : 8 일간 (16 회 강연)
 - 교재준비 : 1,000 부 인쇄
4. 효행학생 선발표창 및 사례 발표
 - 초·중·고 학교에서 각 1 명씩 3 명 선발
 - 표창인원 : 3 명 형성국민학교 김태열
 우천중학교 임창숙
 둔내고등학교 박일옥
5. 학생사생대회 개최
 - 참석인원 : 초·중·고 학생 637 명
 - 시상인원 : 초·중·고 합계 57 명
6. 학생동화대회 개최
 - 주 제 : 1. 권선징악을 내용으로 하다.
 2. 역경과 고난을 인내하며 노력끝에 뜻을 성취하는 내용의 동화를 주제로 하다.
 - 참석인원 : 초등부 17 명
 - 시상인원 : 초등부 5 명

-
7. 청소년 문화강좌
- 대상지역 : 관내 8개 읍면
 - 참가대상 : 중·고등학생 및 새마을청소년회원
 - 주 제 : 애향운동
 - 강 사 : 김 정 기
 - 참가인원 : 1,374 명
 - 순회기간 : 8일간 (8회강연)
8. 내고장 문화논단 개최
- 주 제 : 1.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역할
2. 국가발전과 문화의 기능
 - 강 사 : 강원대 교수 최상익, 안범희
 - 참석인원 : 235 명
 - 참석대상 : 사회단체회원, 공무원, 지방유지, 리장, 새마을지도자, 고등학교 학생
9. 제5회 태풍문화제 개최
- 마을 농악경연대회 개최
 - 1) 참가팀 및 인원 : 8개팀, 237명
 - 2) 시상농악대 : 1등 갑천면 하대리 농악대
2등 안흥면 강림리 농악대
3등 6개마을 농악대 (장려상)
 - 횡성향토문화상 시상
 - 1) 시상인원 : 1명
 - 2) 수상자 : 서원국민학교 교장 최성침
10. 문예지 “어사매” 발간
- 발간부수 : 600부
 - 용 도 : · 강원도내 각급기관에 배부
· 전국문화원에 배부
· 군내 각급기관에 배부
· 출향 (出 鄕) 인사에게 배부
· 문화원 회원에게 배부
· 지방인사에게 배부

'87주요사업 계획

월 별	사 업 내 용	대 상	인 원
1 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실운영 (주야간) 년중 ○ 87년도 운영계획 수립 ○ 86년도 사무정리 	중·고 학생 및 일 반 청소년	1 일평균 55 명
2 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회의 개최 (매월 1회 개최) 1. 87년도 사업계획 심의 결정 2. 87년도 세입세출예산심의 결정 	이사, 감사, 운영위원	21 명
3 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회의 개최 ○ 총회개최 	이사, 감사, 운영위원 임원, 회원	21 명 63 명
4 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회의 개최 ○ 태기문화 발행 (제 4 호) ○ 경노효친사상선양 순회 강연회 	이사, 감사, 운영위원 읍·면 청소년	21 명 600 부 1,600 명
5 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회의 개최 ○ 사생대회 개최 (제 6 회) ○ 동화대회 개최 (제 6 회) ○ 효행학생선발표 및 사례발표회 	이사, 감사, 운영위원 초·중·고 학생 초등부 학생 초·중·고 학생	21 명 600 명 20 명 20 명
6 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회의 개최 ○ 내고장 문화논단 개최 	이사, 감사, 운영위원 공무원, 주민 학생	21 명 300 명
7 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회의 개최 ○ 청소년문화강좌 (순회) ○ V·T·R 상영 (전통문화) 	이사, 감사, 운영위원 읍·면 청소년 청소년 학생	21 명 1,600 명 1,000 명
8 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회의 개최 ○ 태기문화 발행 (제 5 호) ○ 청소년문화강좌 (제 3 회) ○ V·T·R 상영 (전통문화) 	이사, 감사, 운영위원 청소년 학생 "	21 명 600 부 500 명 1,000 명

월 별	사 업 내 용	대 상	인 원
9 월 중	○ 임원회의 개최	이사, 감사, 운영위원	21 명
	○ 향토사료집발간 (제 2 집)	각급 학교에 배부	1,000 부
	○ 문예지원고청탁	기관장 지방 인사	50 명
10 월 중	○ 임원회의 개최	이사, 감사, 운영위원	21 명
	○ 태풍문화제 개최 (민속경연)	읍 . 면 주민	800 명
	○ 향토문화상 시상 (제 4 회)	군 · 민	1 명
	○ 태기문화 발행 (제 6 호)		600 부
11 월 중	○ 임원회의 개최	이사, 감사, 운영위원	21 명
	○ 문예지 편집완료	편집실	5 명
	○ 내고장 문화논단 개최	주민, 학생, 공무원	300 명
12 월 중	○ 임원회의 개최	이사, 감사, 운영위원	21 명
	○ 문예지 발간 (제 5 호)		600 부
	○ 87 년도말 보고		

횡성문화원 임원 및 회원명부

직 책	성 명	주 소	전 화
교 문	김 용 대	국회의원 (횡성)	
"	함 중 한	" (원주시)	
"	조 원 혁	횡성군수	
"	김 세 학	횡성경찰서장	
"	조 진 행	횡성군교육장	
"	정 호 일	횡성읍 읍상 1 리	2 - 2275
자문위원	조 철 한	" "	
"	정 연 덕	갑천면 구방리	
운영위원	이 철 구	횡성읍 읍하 1 리	
"	송 인 호	" 읍상 2 리	
"	정 병 용	" "	
"	정 계 항	" "	
"	한 상 근	" 읍상 1 리	
"	김 용 표	" 마산리	
"	이 원 섭	" 읍하 4 리	
원 장	한 중 회	" 읍하 1 리	2 - 2579
"	김 정 기	" 마산리	2 - 4360
임 원	홍 재 욱	" 읍상 2 리	2 - 2246
"	정 운 채	" "	2 - 2440
"	이 관 술	" 읍하리	2 - 2555
"	박 충 원	" 읍상 2 리	2 - 3221
"	이 병 현	" 입석리	2 - 2874
"	조 경 택	" 읍상 2 리	2 - 2742
"	도 회 관	" 읍하리	2 - 2376
"	박 순 갑	둔내면 자포곡리	42 - 1024
"	권 용 환	횡성읍 읍상 1 리	2 - 2507
"	유 장 희	" "	2 - 2352
"	민 인 기	" 곡교리	2 - 3369
"	김 상 원	" 읍상 2 리	2 - 2796

【 편집 후기 】

또 변함없는 지각 출간에 사뭇 죄스럽기만 하다.
이번 만은 하는 일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地方文化가 뿌리 내리기에
어려운 토양만큼이나 제때에 나오는 책 다운 책을 만들기 어려운 일일까?
깊은 회한의 반성과 자각의 마음으로 투고해 주신 분들의 옥고를 그려치
지 않으려고 애썼으나 『於斯賈』 스스로가 돌아보기 두렵다. 좋은글 보내
주시고 함께 편집에 임해 주신분들 그리고 '뜨거운 향토민의' 가슴으로 지켜
보고 도와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다섯번째 나올 『於斯賈』 만은 책다운 책을 제때에 낼 수 있도록
이 후기를 쓰는 부끄러운 손과 붓은 편집실에서 사라져야 하리라.
그것은 앓는 아픔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희망이며 환희로 찬란한 빛
이 되길 바란다.
피폐한 지방문화에 더욱 많은 가꿈과 손질이, 그리고 관심과 갈채가 있
어 주시길 기원하면서 네번째 책을 내 놓는다.

-- 편집인 일동 --

인 쇄 : 1986. 12. 31
발 행 : 1986. 12. 31
발행인 : 횡성문화원장
편집인 : 문화원 편집실
인쇄소 : 서 원 사

